



최종보고서



5·18기념사업 및 5·18기념재단 발전방안 연구



2018년 12월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5·18기념사업 및 5·18 기념재단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송한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박경섭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홍성운 (광주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김봉국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연구교수)

김형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강내영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연구보조원

김주영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박사과정)

신서영 (전남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 목 차 …

| | |
|--|-----|
| I. 연구개요 | 1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2 |
| 3. 연구 방법 | 3 |
| II. 5·18기념사업 분석 및 환경의 진단 | 4 |
| 1. 5·18기념사업 진단 및 국내외 환경 분석 | 4 |
| 2. 5·18기념재단의 위상과 비전의 검토 | 8 |
| 3. 5·18기념재단의 위상에 대한 대·내외 환경 및 여건 | 12 |
| III. 5·18기념재단 현황 및 분석 | 17 |
| 1. 조직과 재정 | 17 |
| 2. 교육 및 문화 | 39 |
| 3. 국제교류 및 연대 | 65 |
| 4. 학술 및 연구 | 91 |
| IV. 국내외 사례 검토 | 118 |
| 1. 국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 | 118 |
| 2. 국외: 대만 2·28기금회 | 132 |
| V. 5·18기념재단의 발전방안 | 136 |
| 1. 위상과 비전의 재정립 | 136 |
| 2. 조직과 재정 | 141 |

| | |
|--------------------|-----|
| 3. 교육 및 문화 | 155 |
| 4. 국제교류 및 연대 | 160 |
| 5. 학술 및 연구 | 171 |

VI. 부록..... 177

| | |
|---------------------------------|-----|
| 1. F.G.I 질문지 및 면담록 | 177 |
| 2. 5·18기념재단 정관 | 186 |
| 3. 기타 유사 기념사업 조직도 및 관련 법안 | 196 |

●● 표 목 차 ●●

| | |
|---|----|
| <표 1> 5·18의 의미화 과정 | 4 |
| <표 2> 대외적 환경요인 | 15 |
| <표 3> 대내적 환경요인 | 16 |
| <표 4>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처장 임기 및 선출방식 | 19 |
| <표 5> 행정지원실(행정실장 1, 기획예산팀장, 총무팀장) | 20 |
| <표 6> 국제연대부(국제연대부장, 국제연대팀장) | 20 |
| <표 7> 교육문화부(교육문화부장, 교육문화팀장)..... | 21 |
| <표 8> 연구소(연구실장, 연구팀장) | 21 |
| <표 9> 고백과 증언센터(센터팀장) | 22 |
| <표 10> 의결 구조 및 각종 위원회 | 22 |
| <표 11>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조성내역(2018) | 29 |
| <표 12> 국·시·비 지원내역 | 30 |
| <표 13> 총 세출 대비 기본재산 전입금 비율 | 32 |
| <표 14> 국비 지원 비율 | 33 |
| <표 15> 기본재산 과실금 및 인건비 현황 | 33 |
| <표 16> 5·18기념재단 세입결산 내역 | 34 |
| <표 17>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내용(2014~2018년) | 40 |
| <표 18> 전국교사연구 현황(2014~2018년) | 42 |
| <표 19> 5·18청소년문화제(레드페스타) 개최 현황(2002~2018) | 43 |
| <표 20> 5·18문학상 수상 현황(2014~2018) | 45 |
| <표 21> 2018.8월 사무분장에 따른 교육문화부 업무 | 46 |
| <표 22> 교육문화 사업의 인적 구성과 담당업무 | 46 |
| <표 23> 교육 및 문화 사업 예산..... | 47 |
| <표 24> 2019년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국비보조금) 사업비 내역 | 48 |
| <표 25> 인권교육훈련센터 비교 검토 | 49 |
| <표 26> 유사기관 교류연대 사업..... | 72 |
| <표 27> 국제교류 및 연대 사업 담당 업무 내용 | 74 |
| <표 28> 국제연대부의 담당 업무..... | 74 |
| <표 29> 광주인권상 수상자(2014~2018)..... | 75 |
| <표 30> 광주아시아포럼의 연도별 개최 현황..... | 77 |

| | |
|--|-----|
| <표 31> 지원단체 현황..... | 78 |
| <표 32> 2014년 518광역협의회 공동추진 기념사업 | 81 |
| <표 33> 2015년 518광역협의회 공동추진 기념사업 | 82 |
| <표 34> 2016년 518광역협의회 공동추진 기념사업 | 83 |
| <표 35> 2017년 518광역협의회 공동추진 기념사업 | 84 |
| <표 36> 2018년 518광역협의회 공동추진 기념사업 | 84 |
| <표 37> 2014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 공동추진 공모사업 | 85 |
| <표 38> 2015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 공동추진 공모사업 | 85 |
| <표 39> 2016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 공동추진 공모사업..... | 85 |
| <표 40> 2017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 공동추진 공모사업 | 86 |
| <표 41> 2018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 공동추진 공모사업 | 86 |
| <표 42> 세계인권도시포럼 경과 | 88 |
| <표 43> 시기별 발표 논문 수(1989~2008년) | 93 |
| <표 44> 2018.12월 재단연구소운영규정에 따른 업무..... | 94 |
| <표 45> 재단 연구소의 인적 구성과 담당업무 | 95 |
| <표 46> 2014~2018년 학술연구 및 지원사업의 현황 | 99 |
| <표 47> 5·18민주화운동 제3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5·18과 언론: 민주주의 와 ‘기억의 장’에 대한 성찰 | 102 |
| <표 48> 5·18민주화운동 제3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5·18민주화운동과 오월 운동, 그리고 그 현재성 | 103 |
| <표 49> 시민참여 행정과 시민자치 공동체 | 103 |
| <표 50> 5·18기념재단 창립 2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21세기 동아시아의 평 화와 인권-민주주의와 대중의 역할 | 103 |
| <표 51> 부마민주항쟁 35주년 기념학술대회: 부마에서 광주로 | 104 |
| <표 52> ‘님을 위한 행진곡’ 학술세미나 | 104 |
| <표 53> 5·18왜곡편취 대응을 위한 지역내 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글로벌시 대와 호남발전의 과제 | 104 |
| <표 54> 5·18 35주년 기념 학술대회: 5·18의 진실과 민주적 가치의 수호 | 105 |
| <표 55> 역사바로세우기 20주년 학술대회 | 105 |
| <표 56> 부마민주항쟁 개요 및 부산지역 5·18운동 전개 학술대회 | 105 |
| <표 57> 5·18민중항쟁 36주년 기념학술대회: 5·18과 역사를 둘러싼 정치 | 106 |

| | |
|---|-----|
| <표 58> 여순사건 68주기 학술토론회: 여순사건 새로운 모색과 시작 | 106 |
| <표 59>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20주년 학술대회: 사법판결과 정치적 사 면에서 본 한국 민주주의의 현 단계 | 107 |
| <표 60>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 한국서양사학회·5·18기념재단 공동 학술대회: 역사 속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 | 107 |
| <표 61> 광주다이어리 발간 기념 UN 5·18국제학술대회: 광주 다이어리 민주 주의와 집단기억 | 107 |
| <표 62> 5·18민주화운동 38주년 및 광주청문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5·18 기념재단 국제학술대회: 횡단하는 5·18, 세대와 경계를 넘어 | 109 |
| <표 63> 연구용역 분석 및 진단(2014~2018) | 111 |
| <표 64> 논문연구지원 분석 및 진단(2014~2018) | 112 |
| <표 65> 간행물(2014~2018) 분석 및 진단 | 114 |
| <표 66> 인력현황 | 120 |
| <표 67> 결산현황 | 120 |
| <표 68> 자본금 및 기본재산 현황 | 121 |
| <표 69> 제주 4·3재단 인력현황 | 127 |
| <표 70> 결산현황 | 128 |
| <표 71> 자본금 및 기본재산 현황 | 129 |
| <표 72> 2·28국가기념관 상설전시관 주요 전시 내용 | 134 |
| <표 73> 조직운영의 단계별 전략 | 141 |
| <표 74> 국내·외 주요기관의 운영주체 | 141 |
| <표 75> 교육 문화 부문 단계별 발전 전략 | 155 |
| <표 76> 국제교류 및 연대의 단계별 전략 | 160 |
| <표 77> 학술연구의 단계별 전략 | 171 |

●●● 그림 목 차 ●●●

| | |
|--|-----|
| 〈그림 1〉 5·18정신의 확장과정 | 5 |
| 〈그림 2〉 5·18기념재단 목표체계 | 10 |
| 〈그림 3〉 5·18기념재단 사업 및 조직진단 컨설팅 (2015)..... | 12 |
| 〈그림 4〉 5·18기념재단 조직도 | 18 |
| 〈그림 5〉 2010-2018 세입결산..... | 30 |
| 〈그림 6〉 세입결산 중 재산수입 | 31 |
| 〈그림 7〉 세입결산 중 보조금 수입 | 32 |
| 〈그림 8〉 결산대비 관리비 비율 | 32 |
| 〈그림 9〉 5·18기념재단의 사업평가 프로세스 | 36 |
| 〈그림 10〉 2012~2019년 교육 및 문화 사업 예산의 변화 | 47 |
| 〈그림 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도 | 119 |
| 〈그림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개요 | 121 |
| 〈그림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예시(1) | 123 |
| 〈그림 1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예시(2) | 123 |
| 〈그림 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OPEN API 예시 | 124 |
| 〈그림 16〉 제주 4·3평화재단 조직도 | 127 |
| 〈그림 17〉 5·18기념재단의 정체성(컨설팅 보고서 27쪽) | 136 |
| 〈그림 18〉 비전과 중장기목표 | 138 |
| 〈그림 19〉 5·18 기념사업 및 교류연대사업 분배절차..... | 143 |
| 〈그림 20〉 재정확보 로드맵 | 152 |
| 〈그림 21〉 재단 운영자금 모금 조직도 | 154 |
| 〈그림 22〉 발전의 키워드와 사업 방향..... | 156 |
| 〈그림 23〉 국제교류 및 연대의 방향 | 161 |
| 〈그림 24〉 학술연구의 방향 | 172 |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촛불혁명을 배경으로 등장한 새 정부의 과제로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검토되고 있고, 2018년 하반기는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재고와 더불어 5·18기념사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고 5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기념사업을 공정함과 정의를 염원하는 시대적 조류, 민주주의의 확장으로서 지역과 시민 주도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재평가함으로써 기념사업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함
- 기념사업에 대한 시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5·18기념재단의 운영과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지역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5·18기념재단발전협의회가 발족하여 다각도로 기념재단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 및 활동들과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됨
- 5·18사적지인 옛 국군광주병원, 옛 국군기무부대, 광주교도소가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과 민주인권교육센터 등의 추진으로 사적지의 보존과 이용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므로 이러한 변화와 사적지에 자리하거나 건립될 시설을 염두에 둔 기념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2) 연구의 목적

- 5·18정신의 계승과 발전, 5·18전국화와 세계화, 촛불혁명의 실천의 측면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검토
- 단기적으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중장기적으로는 50주년을 염두에 두고 5·18정신의 계승과 기념사업의 환경과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5·18기념재단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대응 전략 모색
-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행사의 중심적 기관이자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5·18기념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제고와 발전 방안 제시
- 5·18기념재단에 대한 성찰적 비판과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5·18기념재단발전협의회의 활동내용과 담론에 대한 개방적 수용과 내용적 확장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시간적 범위 : 2010년 이후의 기념사업
- 사업적 범위 :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한 5·18기념사업
- 공간적 범위: 5·18사적지를 비롯한 기념공간, 5·18기념행사와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

3. 연구 방법

1) 선행 연구 및 각종 문헌 자료의 내용에 대한 분석

- 5·18기념사업 및 5·18기념재단 발전 방안과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인권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 및 추모와 관련된 자료의 검토

2) 관련 사례 분석

- 국내외 인권 및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에 대한 사례 검토와 비교·분석

3) 질적조사와 인터뷰

- 다음세대를 중심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실시함으로써 5·18 이후 세대의 5·18 기념행사에 대한 토의와 상상을 활성화
- 5·18기념재단 직원 대상 인터뷰 혹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5·18기념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한 협력적 소통 모색

4) 자문회의 운영

- 5·18기념재단발전협의회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광주지역 내외의 관련연구자 및 다음세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5·18기념재단발전협의회 논의의 논의를 연구내용에 포함

II. 5·18기념사업 분석 및 환경의 진단

1. 5·18기념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1) 5·18의 의미화 과정과 기념사업

-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사건 뿐 아니라 이를 기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운동을 만들었음. 군사정권의 감시와 억압 속에 이뤄진 1980년 5월 이후의 모든 역사적 과정, 즉 추모와 저항,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력 등의 문제해결은 사실상 그 기념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국면별로 자연스럽게 5·18의 의미와 실천의 지향점들이 만들어져 왔음. 기념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러한 5·18의 의미화 과정에서 나온 “5·18 정신”의 실천적 계승의 과정임

<표 1> 5·18의 의미화 과정

| 역사적 경험의 의미화 | 역사적 원사건 '5·18' | 5월 운동 | 5·18의 전국화·세계화 | 5·18의 현재화·내재화 |
|-----------------------------------|--------------------------|----------------|----------------|---|
| 의미 형성 시기 | 1980년 5월 | 1980~1990년대 중반 | 1990년대 중반 이후 | 최근 |
| 광주정신 의미 구성 | 총 저항 희생 헌혈 주먹밥 해방광주 시민대회 | 민족 민주 민중 자주 통일 | 민주 인권 평화 광주공동체 | 연대 협력 자유 평등 시민자치 나눔 돌봄 생명 헌신 소통 용기 마을민주주의 |
|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통일, 정의, 저항, 대동정신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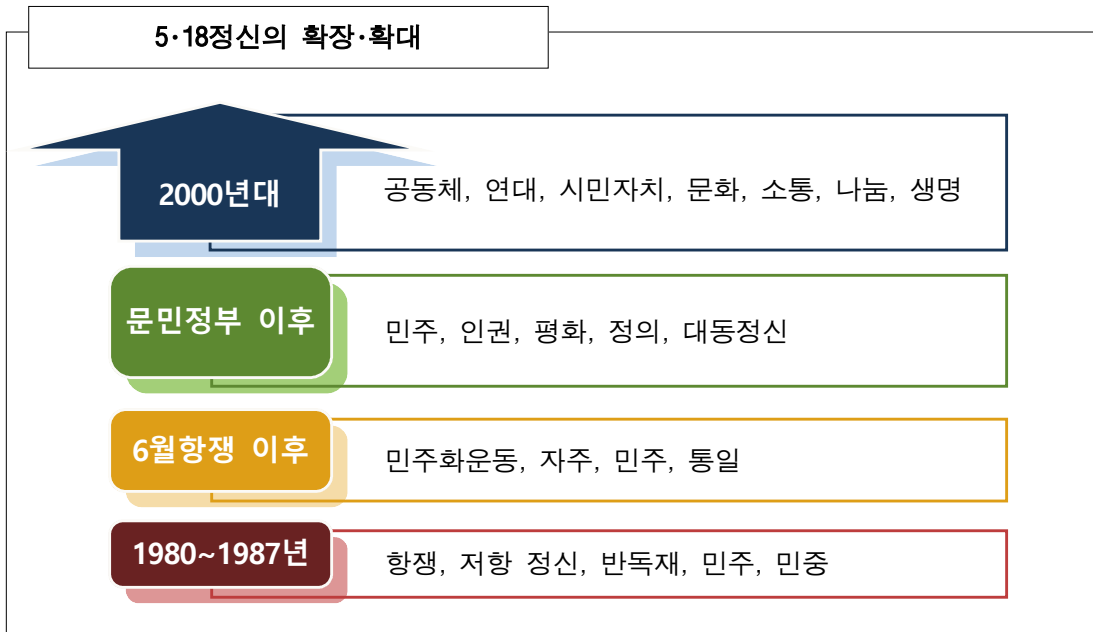
자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광역시(2016), 「5·18기념사업마스터플랜수립용역개념재단」, 12p

- 위에서 보듯 1980년 이후 5·18의 정신은 대개 희생, 불의에 대한 저항, 주먹밥과 헌

혈로 상징되는 대동세상, 또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추동했던 힘으로서의 민주주의 정신, 그리고 민주, 자주, 평화 등으로 표상되어 옴. 그러다 1990년대 5·18의 전국화·세계화 목표와 결합되어 그 확장 이념으로서 민주·인권·평화라는 이념이 최근까지도 5·18의 지배적인 정신으로 간주되어 옴

- 최근 5·18의 이념과 정신은 민주·인권·평화를 넘어 다양한 가치들과 새롭게 결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1> 5·18정신의 확장과정



자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광역시(2016), 「5·18기념사업마스터플랜수립용역개념재단」, 13p

- 5·18기념사업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¹⁾」에 의거 법률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임
 - 2013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조례는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념사업의 범위를 ‘학술사업²⁾, 교육사업³⁾, 교류·연대

1) 라. 기념사업(법 제5조)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지칭하며,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학술 연구와, 지자체와 5·18기념재단 및 기타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술 용역과 학술 행사들을 포함함

3) 학생 및 시민들에게 5·18의 정신 및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해 5·18의 역사와 정신을 가르치고

사업4), 기념의례5), 기념공간6)’을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승, 확장하기 위한 제반 사업 및 실천들’로 의미와 하위영역을 설정하고 있음

- 현재 기념사업의 주체는 정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더불어 (재)5·18기념재단7),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8),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9), (사)5·18구속부상자회10)와 같은 5·18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단체인 민간영역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이룸
 - 초기의 기념사업의 경우 민간영역에서의 인정투쟁이자 민주화운동의 한 결로서, 민주화운동으로 공식인정 받은 이후에는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음

전달하는 사업

- 4) 교류·연대 사업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 인권단체와의 연대사업으로서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실천과제의 하나로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교류·네트워크 사업을 포괄하고 있음
- 5)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의 의미와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제례와 문화적 연행을 지칭함
- 6) 기념공간은 27개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전시 시설을 지칭하는데, 5·18기념공간은 5·18당시의 역사적 현장성을 갖는 공간에 위치하거나 5·18상징 조형물의 설치를 통해 조성됨
- 7) 5·18기념재단은 1994년 8월 30일 광주시민과 해외동포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기금과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 등을 바탕으로 창립되었고, 12월 22일 당시 내무부의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음.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18기념재단은 정관에 의거하여 교류연대사업, 인재육성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학술사업, 진실규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8)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 가족들이 1980년 5월 31일 첫 모임을 갖고 ‘5·18광주거유족회’를 설립했음. 1998년에 여러 유족회들을 통합했으며, 2004년 4월에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를 창립했음. 유족회는 기념식과 추모제, 나눔의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희생자들의 증언록을 간행했음
- 9)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 등에 의해 부상을 당했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1982년 결성되었음. 부상자회는 여러 단체들을 통합하여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2003년 보건처의 설립인가를 받음. 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선양하며, 회원의 자활·자립 및 복리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및 민주주의 수호와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0)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되었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1984년에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가 창립되었고, 이후 여러 단체들이 설립되었음. 1996년에 4개 단체(광주민중항쟁 교도소 생존자 동지회·구속 후 부상자 동지회·동지회·구속자 동지회)가 통합했으며, 2004년에 (사)5·18유공자동지회로 국가보훈처의 설립인가를 받음. 이후 2006년 (사)5·18구속부상자회로 단체명을 변경하였으며 피해자의 복리 증진사업과 관련 시설의 위탁 운영사업 등을 하고 있음

2) 5·18기념재단을 둘러싼 환경 변화

○ 기념사업 주체들의 변화

-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기념사업 재평가하고 체계적인 기념사업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5년 「5·18기념사업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 기본으로 하여 2017년 “5·18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함¹¹⁾
- 전라남도 역시 5월 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적지 지정과 도민참여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용역에 착수하는 등 종합계획 수립을 시도¹²⁾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 5·18기념사업을 주도해 왔던 5·18기념재단의 역할과 위상이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기념사업 공간과 새로운 주체들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경쟁과 다툼으로 보일 여지가 생겨남

- 5·18 기념재단은 교육(5·18 교육자료개발 등)·교류협력(광주아시아포럼 및 국내외연대)·학술(5·18 연구지원 등)·진실규명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진행 해왔으나 핵심사업과 유사한 각종 공익사업이 광주시와 5월 관련단체 등에 의해 진행되거나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¹³⁾임

○ 5·18기념재단에 대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와 그에 대한 대응

- 특히 2014년 전후부터 이뤄진 재단 내부구성원들과의 갈등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에서 말미암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는 2017년 광주광역시/시의회의 행정감사 등으로 이어졌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사항 수용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이는 재단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임

11) 5·18기념사업 내실있게 추진할 밑그림 나왔다 2017-12-21/김대우기자

https://www.kinds.or.kr:443/images/nsplcon_01600501.png

12) 전남도, 5·18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속도낸다 2018-09-03/임채만 기자

https://www.kinds.or.kr:443/images/nsplcon_01600201.png

13) 5·18 기록물 사업 '중복' 갈등 우려 2015-02-03/서충섭기자

https://www.kinds.or.kr:443/images/nsplcon_01600501.png

할 일 없어질라 ... 속타는 5·18기념재단 2015-01-30/이종행기자

https://www.kinds.or.kr:443/images/nsplcon_01600301.png

2. 5·18기념재단의 위상과 비전의 검토

1) 5·18기념재단의 비전 검토

- 새로운 5·18기념재단의 위상과 비전의 수립을 위해선 기존의 5·18기념재단의 비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한 자료로는 창립 초기의 “창립선언문과 설립취지서”, 설립 8년이 지난 후 방향설정을 위한 학술용역 「2002년 기념재단 발전방안 연구」, “5·18기념재단발전특별위원회 회의자료”, “5·18기념재단 20년사”, “5·18기념재단 사업 및 조직진단 컨설팅(2015)” 가 존재함. 특히 2014년 전후에는 이 시기 시민사회의 요구가 가장 컸으며 재단 내에서도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능동적 움직임이 결합되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

① 창립선언문 (1994년)

5·18기념재단 창립선언문

광주가 다시 섰습니다.

5월이 다시 섰습니다.

위대한 항쟁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켜 조국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5·18기념재단」이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항쟁정신의 기념과 계승에 비해 게을렀던 대동정신의 기념과 계승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5·18기념재단」이 어려운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창립되었습니다.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명예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니고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부상자·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또한 5월이 광주의 5월로 올바르게 서야 진정한 전국화·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각계의 시민들과 5월 민중항쟁관련 구속자·부상자·유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항쟁진상 조사사업, 기념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문화사업, 홍보·출판사업, 자선·복지사업, 5월 정신 실천자들에 대한 시상사업을 해나갈 「5·18기념재단」을 마침내 창립하였습니다.

광주가 다시 섰습니다.
5월이 다시 섰습니다.
구속자·부상자·유가족들이 5월을 더럽히고 가신 임들을 욕되게 하고 광주를 부끄럽게 하고 시민들을 분노케 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80년 5월의 정신과 자세로 되돌아갈 것을 다짐하며 가신 임들과 7천만 겨레 앞에 옷깃을 여미고 섰습니다. 시민들 앞에 고개 숙이고 나란히 섰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창립되었습니다.
가신 임들이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1994년 8월 30일

- 목적 : 위대한 항쟁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켜 조국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 사업 : 항쟁진상, 조사사업, 기념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문화사업, 홍보·출판사업, 자선·복지사업, 5월정신 실천자들에 대한 시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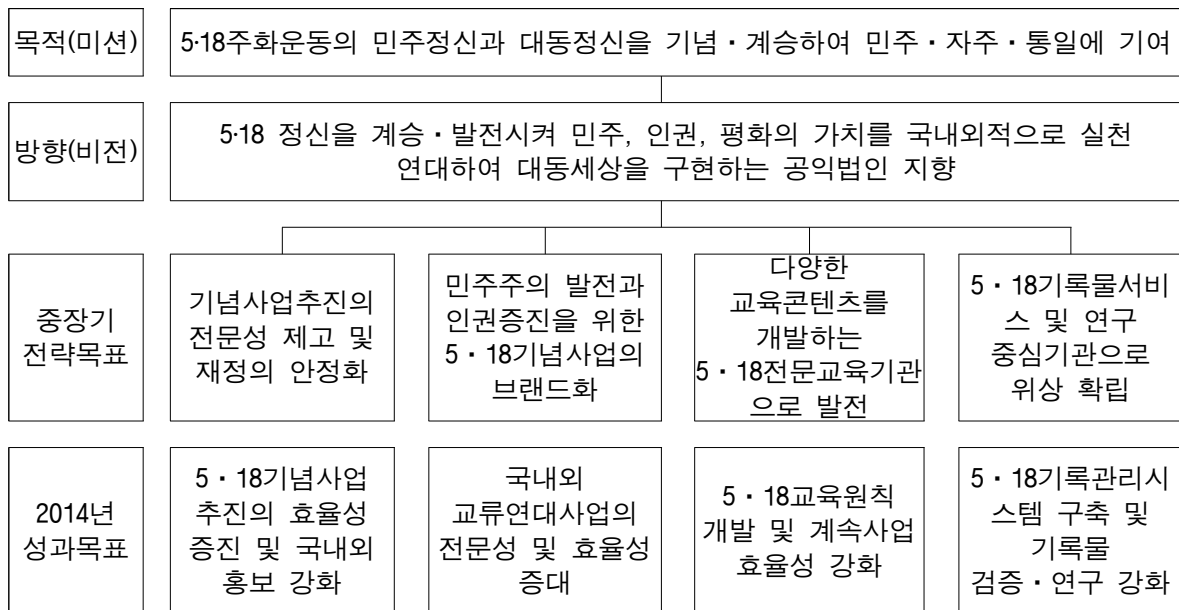
② 5·18기념재단 발전방안(2002)

- 5·18기념사업의 발전 지표
 - 민족과 세계 안에서 되살아나는 5·18
 - 정신계승에 초점 : 반성과 성찰의 프로그램 강화
 - 공동체의 구현 : 5월 민중이 추구한 가치의 내면화
- 5·18기념재단의 발전 지표
 - 지역에 뿌리내리는 5·18기념재단
 -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5·18기념재단
- 5·18기념재단의 운영원칙
 - 참여: 시민과 회원, 전문가의 참여 보장. 시민적 참여의 조직화와 활성화
 - 개방: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단운영. 공개 합법적 민간기구로서 인사, 재정, 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
 - 민주: 의사결정의 민주화.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독단과 특정세력의 이해관계 배제
- 5·18기념사업과 기념행사의 기획과 운영 원칙

- 정신계승에 초점
- 대중적 참여와 체험의 활성화
- 집중화, 상설화, 정리화
- 선언적 국제행사 배제
- 방만한 나눠먹기식 사업 지양
- 일회성, 전시성이 아닌 지속적 문화적 관행으로서의 사업개발

③ 5·18기념재단발전특별위원회 (2014)

<그림 2> 5·18기념재단 목표체계



자료: 5·18기념재단발전특별위원회(2014), 「5·18기념재단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3p

④ 5·18기념재단 20년사 (2014)

<비전>

- ‘생활 속의 5·18’ 구현
- 5·18의 상징성을 새롭게 재구성
- 5·18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
-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교육과 5·18 정신의 공유

<실행>

① 조직 및 기념사업

- 오늘날의 상황에서 성찰하고 학술적으로 재평가
- 5·18의 가치와 이념을 대중적으로 재규정
- 기념재단의 5·18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재단의 전문성과 그 역량을 증진
- 5월 행사의 경우 재단을 포함하는 상설 준비 기구를 구성, 기존 협의체의 역량을 증진
-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5·18 관련단체 사이 상호 존중과 소통을 위한 노력
- 재단 자체의 재정 마련 로드맵 수립

② 교류연대 사업 분야

- 5·18정신을 현재화하고 전국화·세계화로 가는 미래지향적인 교류연대 사업방향을 모색
- 지역사회와 연계된 풀뿌리 교류연대 사업을 전개해 나갈 때 교류연대사업의 새로운 질적 변화를 도모
- 국제단체와의 교류네트워크는 신뢰에 기반 한 연속사업이라는 점에서 교류연대의 지속성을 보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늘 새로운 교류단체를 발굴할 필요
- 5·18인재육성사업에 있어 인재 발굴의 다양화와 육성프로그램의 체계화

③ 교육문화사업 분야

- 교육 사업 대상의 외연을 확대
- 새로운 사업의 모색
- 급속한 변화와 새로운 세대의 출현으로 교육환경이 나날이 바뀌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도 혁신

④ 진실조사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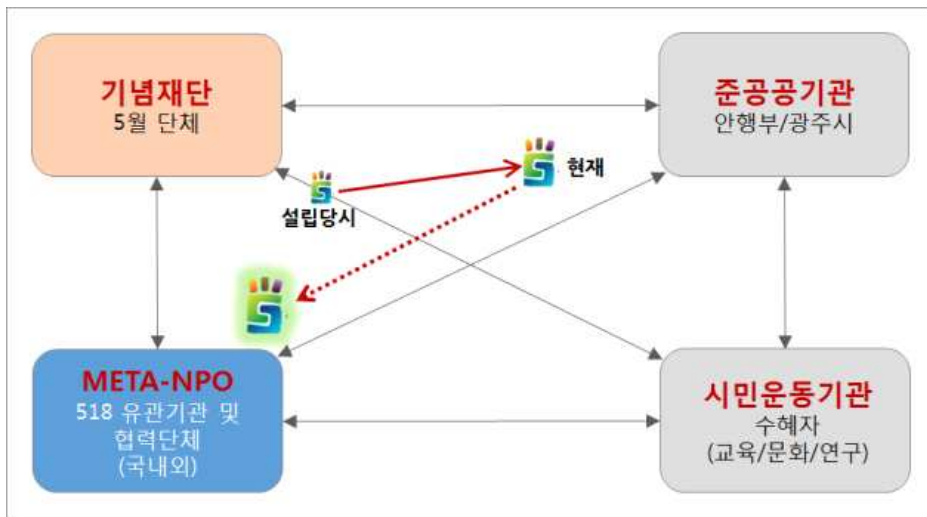
- 전문인력을 통한 기록물 관리
- 중·장기 기록물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구축했던 사료 관리시스템이나 DB구축사업이 단절 없이 새로운 시스템개발

- 인력 배치나 예산 투입을 통해 기록관리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
-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중성을 확대하는 노력

⑤ 5·18기념재단 사업 및 조직진단 컨설팅 (2015)

- 5·18정신이 필요한 곳에 재단의 역량을 지원하는 사명을 증장기적 정체성의 방향으로 제안

<그림 3> 5·18기념재단 사업 및 조직진단 컨설팅 (2015)



3. 5·18기념재단의 위상에 대한 대내·외 환경 및 여건

1) 대내외적 환경요인 SWOT 분석과 기능별 환경 분석

○ 대외적 환경요인

- 5·18민주화운동 진실조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명분이 강화됨
 - 문재인정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실 규명의 노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왜곡과 폄훼
 -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군 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를 통해 진상규명이 가능해짐
 - 5·18진상규명특별법의 통과와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음
- 5·18정신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
 - ‘민주인권·평화’ 라는 보편적 가치로 정립

- 개인·세대·집단·지역 등 각 단위에서 공동체적 관계와 연대 지향
- ‘인권도시 광주’ 로서의 위상 강화와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사업 추진

-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공간과 예산의 확충

-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민주인권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국제연대와 국내교육 사업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함
- 5·18사적지 정비와 통합관리 방안 마련

- 5·18기념사업 내에서 재단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

- 지역사회 내에서 영향력 감소 추세
- 사업 경쟁이 심화되고 지방정부와의 긴장 관계가 증폭되고 있음
- 각종 사업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과 재정수요 방안 미흡

- 재단의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

-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재단 내부의 갈등으로 5·18기념재단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
- 대외내적 갈등으로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 미흡
-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구나 위원회 채널이 부재함
- 5·18기념재단의 비전과 목표의 새롭게 창조가 필요

○ 대내적 환경요인

- 민주화운동 단체 중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옴

- 5·18 관련 1차 자료 수집기관으로서의 재단의 적합성
- 기념·교류·연대·교육·문화·학술·진실규명사업 등 수행
- 우수한 사업개발능력을 활용하여 신사업 개발 가능성 용이
- 글로벌 사업 등 다양한 기관과 연대하여 협력사업 전개가 가능
- 그 동안 5월 기간 다양한 기념행사의 기획·관리 운영을 통해 노하우가 많음

- 역할과 위상에 비해 예산 부족과 편성의 경직성

-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앙, 지방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받음
- 재원이 다양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산 편성의 경직성 있음

- 불안정한 고용에 따른 인적자원 전문성강화의 한계
 - 재단 직원의 불안정한 고용
 - 5·18기념사업 주체의 중복과 기능적 미분화, 전문성 부족
 - 내부 상하 의사소통 문제와 갈등(민주적 질서와 토론문화 부재)

□ SWOT 분석

○ 강점 요인(Strengths)

- 민주화운동 단체 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위상
- 기념·교류·연대·교육·문화·학술·진실규명사업 등 수행하면서 쌓인 노하우
- 해외 및 국내의 다양한 기관과 연대하여 협력사업 전개가 가능
- 우수한 사업개발능력을 활용하여 신사업 개발 가능성 용이
- 5·18 관련 1차 자료 수집기관으로서의 재단의 적합성

○ 약점 요인(Weaknesses)

- 역할과 위상에 비해 예산 부족과 편성의 경직성
-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앙, 지방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받음
- 불안정한 고용에 따른 인적자원 전문성강화의 한계
- 5·18기념사업 주체의 중복과 기능적 미분화, 전문성 부족
- 내부 상하 의사소통 문제와 갈등(민주적 질서와 토론문화 부재)

○ 기회 요인(Opportunities)

- 5·18민주화운동 진실조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명분이 강화
-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군 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를 통해 진상규명이 가능해짐
- 5·18진상규명특별법의 통과와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음
- 5·18 정신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
- ‘인권도시 광주’로서의 위상 강화와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사업 추진

-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공간과 예산의 확충

○ 위협 요인(Threats)

- 지역사회 내에서 영향력 감소 추세
- 사업 경쟁이 심화되고 지방정부와의 긴장 관계가 증폭되고 있음
- 재단의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
-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재단 내부의 갈등으로 5·18기념재단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
-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구나 위원회 채널이 부재함

<표 2> 대외적 환경요인

| 구분 | O (기회) | T (위협) |
|----------|---|---|
| 정치적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기념재단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 문재인정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실 규명의 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기념재단의 비전과 목표의 새롭게 창조가 필요 재단의 내부갈등의 첨예화로 5·18기념재단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 |
| 사회문화적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민주화운동 진실조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명분이 강화됨 ‘민주·인권·평화’ 라는 보편적 가치로 정립 개인·세대·집단·지역 등 각 단위에서 공동체적 관계와 연대 지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내에서 영향력 감소 추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반목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구나 위원회 채널이 부재함 |
| 경쟁시장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민주인권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국제연대와 국내 교육 사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함 5·18사적지 정비와 통합관리 방안 마련 ‘인권도시 광주’ 로서의 위상 강화와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경쟁이 심화되고 지방정부와의 긴장 관계가 증폭되고 있음 대외내적 갈등으로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 미흡 각종 사업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과 재정수요 방안 미흡 |

〈표 3〉 대내적 환경요인

| 구분 | 강점 (S) | 약점 (W) |
|------------------|---|--|
| 정체성측면 (미션/비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 단체 중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옴 ▪ 5·18 관련 1차 자료 수집기관으로서의 재단의 적합성 ▪ 기념·교류·연대·교육·문화·학술·진실규명사업 등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앙, 지방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받음 ▪ 5·18설립동지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 |
| 사업적 측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사업개발능력을 활용하여 신사업 개발 가능성용이 ▪ 글로벌 사업 등 다양한 기관과 연대하여 협력사업 전개가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이 다양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산 편성의 경직성 있음 ▪ 5·18기념사업 주체의 중복과 기능적 미분화, 전문성 부족 |
| 조직적 측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동안 5월 기간 다양한 기념행사의 기획관리 운영을 통해 노하우가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상하 의사소통 문제와 갈등(민주적 질서와 토론문화 부재) ▪ 재단 직원의 불안정한 고용 |

Ⅲ.

5·18기념재단 현황 및 분석

1. 조직과 재정

□ 설립 개요

- 5·18기념재단은 1994년 8월 30일 광주시민과 해외동포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기금과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 등을 바탕으로 창립
 - 12월 22일 당시 내무부의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음

-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념재단의 설립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올바른 정립, 그리고 이를 통한 정신계승 주체들의 올바른 시민공동체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
 - 기념재단은 1980년 5월 항쟁 과정에서 보여 준 시민공동체 정신이 자치공동체의 역동성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 의미와 정신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각성시킴으로써 시민, 사회, 민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
 - 5·18민주화운동을 인권과 평화운동으로 그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5·18정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장시킬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의
 - 기념재단의 설립은 5·18정신을 인권과 평화 등으로 확장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적인 연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임무
 - 기념재단은 청소년 교육 사업을 통한 5·18 정신의 미래 가치 정립을 위한 역할을 위임받았다는 점도 강조
 - 기념재단은 청소년의 문화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사업의 확대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과거 역사의 화석으로 교과서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로 생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
 -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5·18관련 피해자들의 역사를 복원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체제가 갖추어짐

- 기념재단은 역사적 진실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올바른 5·18 정신을 구성, 5·18정신을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킬 주체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
- 5·18기념재단은 정관에 의거하여 교류연대사업, 인재육성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학술사업, 진실규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일반현황

- 설립일 : 1994. 8. 30. (1994. 12. 22. 내무부 인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內)
- 이사장 : 이철우
 - 상임이사 : 조진태, 사무처장 : 이기봉
- 설립목적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학술·교육·문화사업 등

<그림 4> 5·18기념재단 조직도



자료: <http://www.518.org/sub.php?PID=0604>

○ 임 원 : 17명(이사 15명, 감사 2명)

- 이사장(비상임, 합의추대, 3년 단임), 상임이사(공모, 3년, 1회 연임가능)

- 이사 13명의 추천단체

: (사)5·18기념재단설립동지회 3명,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1명, (사)5·18구속부상자회 1명,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1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의모임 1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1명,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명,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명, 제주43평화재단 1명, 시의회 1명, 도의회 1명, 감사 2명(사업감사 1명, 회계감사 1명, 3년 1회 연임가능)

○ 조 직 : 1처(1실 2부 1소 1센터) / 정원 20명

○ 실무조직 : 1실 2부 1소

(행정지원실, 국제연대부, 교육문화부, 연구소 / 고백과 증언센터)

- 행정지원실(5명) : 1 실장, 2 팀장, 2 부원

- 국제연대부(6명) : 1 부장, 1 팀장, 2 부원, 2 국제인턴

- 교육문화부(4명) : 1 부장, 3 부원

- 연 구 소(3명) : 1 실장, 2 부원

※한시기구 :

- 고백과 증언센터(3명) : 1 팀장, 2 부원

□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처장 임기 및 선출방식

<표 4>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처장 임기 및 선출방식

| 직 책 | 임 기 | 선 출 | 역할 |
|------|---------------|-------------|------------------------------------|
| 이사장 | ▪ 3년, 단임 | ▪ 이사회 합의 추대 | ▪ 법인을 대표, 법인의 업무 총괄 |
| 상임이사 | ▪ 3년, 1회 연임가능 | ▪ 공모 | ▪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 |
| 사무처장 | ▪ 5년 | ▪ 이사회에서 선임 | ▪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업무 처리 |

□ 업무분장

○ 행정지원실

〈표 5〉 행정지원실

| 직 책 | 담당업무 |
|------------|---|
| 실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원실 업무 총괄 |
| 기획예산 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예산팀 업무 전반 ▪ 대외유관기관 업무 협조 및 각종 사업 현황자료 대응 ▪ 예산편성·배정, 감사결과 관리 ▪ 정관목적사업 종합계획 / 중·단기 발전전략 수립 / 5·18인식조사 ▪ 고문단 및 각종 위원회 운영 / 직원 교육 |
| 총무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팀 업무 전반 ▪ 조직관리(인력채용, 노사관리) / 직원 복무·근태 관리, ▪ 인사·임단협교섭 위원회 ▪ 재산관리 및 회계처리 /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 ▪ 정보공개 / 지정기탁금 |
| 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업무 / 홍보 전반 / 홈페이지·SNS 통합 관리·운영 / 뉴스레터 ▪ 5·18언론상 / 주소록 관리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전자결재·예산·회계·인사정보·근태관리시스템) ▪ 정보통신 회선 및 서버 관리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
| 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관련단체 지원 / 선양사업 ▪ 5·18마라톤 사업 / 5·18장학사업 ▪ 이사회 운영 관리 및 법인 등기 관리 / 정보공개 ▪ 5월 결산 프로젝트 ▪ 재물관리 / 제증명 발급 / 차량관리 / 기념품 제작·구입 등 |

○ 국제연대부

〈표 6〉 국제연대부

| 직 책 | 담당업무 |
|------|---|
| 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대부 업무 총괄 - 광주인권상, 광주아시아포럼, 인재육성, 국제연대, 국내연대 ▪ 광주아시아포럼, 5·18정신 국제공유화 사업(거점회의), ▪ 풀뿌리 단체 지원 |
| 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연대 - 광역협의회, 국내네트워크 관리운영, 국내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아카데미 ▪ 광주인권상, 동포단체 5·18기념행사 공동추진, 5·18아카데미 |
| 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NMP(전남대학교 NGO 석사과정)지원 ▪ 5·18책자 번역 및 출판 |
| 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턴 채용, 인턴 해외파견 ▪ 국제사진전 ▪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
| 국제인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파트너단체 모니터링, GNMP 1기 해외 통신원 ▪ 영문 웹진, 영문 웹사이트 관리 |

○ 교육문화부

<표 7> 교육문화부

| 직 책 | 담당업무 |
|-----|--|
| 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문화부 업무총괄 ▪ 교육활동가양성(5·18교육연구모임 운영, 교사교류, 5·18교육포럼) ▪ 5·18레드페스타 ▪ 소식지 주먹밥 발행 ▪ 기타보조금 사업(오월민중미술사 정리, 가상VR콘텐츠 개발) |
| 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교육활동가 양성(각종 5·18교사연수, 5·18교육활동동아리) ▪ 5·18교육자료 개발·관리 ▪ 5·18교육 누리집 관리 ▪ 5·18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 자원활동가 운영 |
| 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문학상 ▪ 5·18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전시실 운영 ▪ 5·18기획문화예술행사(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아트 및 전시) ▪ 5·18교과서 등 판매 및 관리, 교육자료 안내지 제작 ▪ 오월길 운영 및 5·18사적지 활용 |
| 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월길 안내해설사 운영 ▪ 오월길 방문자센터 운영 ▪ 5·18사적지활용 활동 ▪ 5·18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 자원활동가 운영 ▪ 소식지 주먹밥 발행 |

○ 연구소

<표 8> 연구소

| 직 책 | 담당업무 |
|------|---|
| 연구실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업무 총괄 |
| 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소장기록 관리 ▪ 자료실 운영 및 관리 ▪ 자료DB화 ▪ 기록 수집 및 기증 대응 ▪ 기록 열람·제공 |
| 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사업, 출판 및 학술대회 개최 ▪ 연구기관 및 단체의 교류 협력사업 |

※ 한시기구 : 고백과 증언센터

〈표 9〉 고백과 증언센터

| 직 책 | 담당업무 |
|-----|---|
| 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백과증언센터 업무 총괄, ▪ 왜곡대응, 진실알리기 ▪ 진상규명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 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곡대응 및 진실알리기 / 법률대응 ▪ 자료수집, 제보접수, 구술채록, 현장조사, 모니터링 ▪ 역사왜곡저지 대책 추진, ▪ 구 전남도청복원 지원(왜곡대책위, 법률구조) / 장비관리 |
| 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채록 및 녹취록 관리 ▪ 대외협력 및 지원 ▪ 역사왜곡저지 대책 추진 / 전문위원회 운영 ▪ 전문인력풀 관리 ▪ 센터 일반 서무 / 사무기기 관리 |

□ 의결 구조 및 각종 위원회

〈표 10〉 의결 구조 및 각종 위원회

| 구 분 | 구 성 | 역 할 |
|-----------------------|---|--|
| 이 사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명(이사 15명, 감사 2명) (이사장(합의추대), 상임이사(공모), 기관추천 13명, 감사 2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 취득관리 및 처리 ▪ 정관 개정, 임원 임면, ▪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
| 인 사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명(임원 3명, 노동조합추천 1명, 외부전문가 3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제도 개폐 ▪ 직원 신규임용, 승진 ▪ 직원 징계 및 포상 |
| 기 본 재 산 관 리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명(임원 4명, 금융전문가 3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 기금운영 기본방침, 운영방법 |
| 규 정 관 리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명(임원 4명, 외부전문가 2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제정, 개폐 심의 |
| 후 생 복 지 장 학 사 업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임원 4명, 외부전문가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선정 ▪ 후생복지 사업 |
| 임 단 협 교 섭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임원 4명, 외부전문가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및 단체협약, 노사협의 사항 |
| 정 책 자 문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명 이내(위원장, 상임이사 협의 추천, 이사 4명, 외부전문가 8명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및 정책자문 ▪ 이사장·상임이사 부의 시책사업 심의 |
| 연 구 소 운 영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명 이내(학술, 연구, 기록물 전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운영 전반 자문,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 |

□ 주요사업

○ 기념사업

- 5·18기념문화사업(기념의례사업)은 희생자와 그 관련자들에 대한 추모라는 제의적 의례에서 출발하여 희생과 불의의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운동적 정서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실천으로 나타났고, 1995년 「5·18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적 정당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축제적 기념의 의미가 부가되기 시작함
- 기념사업 일반
 - 5·18민주화운동과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의 상시적인 정보제공체계 구축 및 기념사업의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및 배포, 관련 시설집기 운영
 - 이사회 및 각종위원회 운영 : 5·18기념재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비롯해 인사위원회,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규정소위원회, 임·단협교섭위원회, 후생복지장학사업위원회, 재단발전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
 - 5·18홈페이지 운영 : 5·18민주화운동과 5·18기념재단의 각종 사업 및 활동 등 상시적인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며, 5·18기념재단 대표, 영문, 교육, 기록관, 사이버참배, 오월길,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 5·18홍보사업 : 5·18민주화운동과 5·18기념재단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활동하며, 홍보물, 기념품 개발·제작, Youtube, Facebook 등 SNS를 통한 재단 각종 사업 및 활동 홍보, 소식지 주먹밥 발행, 5·18언론상 시상식 개최
 - 5·18인식조사 : 5·18민주화운동과 5·18기념재단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활동
 - 5·18민주화운동 선양사업 : 5·18민주화운동 선양사업을 통해 5·18관련단체 및 민주유공자의 자긍심을 키우고 나눔정신을 실천하며, 영창·법정 체험행사, 음악회, 항쟁 증언록제작, 민주희생자 기념사업단체 교류 행사, 5·18정신계승 휘호대회 개최
- 5·18자원활동가 육성
 - 5·18기념재단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선발된 지역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주주의·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독려하며, 한 해 동안 기획홍보, 국제연대, 교육문화사업, 5·18진실조사 분야의 5·18기념사업 참여와 상시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증진을 위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있음
- 5·18장학사업
 - 2012년부터 소외받은 학생들과 5·18정신을 교류하며,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성원에 보답하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과 5·18정신을 나눔

○ 교류연대사업

- 국제교류·연대사업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인권단체와의 연대사업으로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실천과제이며, 다양한 교류·네트워크 사업을 포괄함
- 광주인권상 : ‘5·18 시민상’ 과 ‘윤상원상’ 을 통합하여 그 취지를 계승하고 인권과 통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현존하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자 2000년에 제정. 현재까지 13명의 인사(공동수상자 포함)와 1개의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 2011년부터는 광주인권상 특별상을 신규 제정하여 2년마다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언론인, 문화예술인, 작가, 기타 이를 지원하고 후원한 인사들에게 시상.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매년 5월 18일에 개최됨
- 광주아시아포럼 : 1999년부터 매년 5월에 개최하는 행사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적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의 역할.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국가폭력, 지역 간 분쟁 등 아시아 시민사회의 의제를 통해 창조적 대안과 연대를 모색하는 장
- 5·18국제연대 :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 지원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활동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며, 국외시민사회연대(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등 해외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활동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세계 민주주의, 인권, 평화 발전에 기여), 국내외단체교류 (국제행사 대표단 파견 등 국내외 단체와 교류·협력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외교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의 동포단체와 함께 5·18정신의 세계화를 위해 연대), 아시아민주화운동 연대(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시민 사회 연대를 위해 2010 광주아시아포럼에서 출범)
- 5·18국내연대 : 5·18왜곡·편취에 관한 대응 활동과 5·18정신계승에 따른 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5·18정신계승 관련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이 시급한 사업, 5·18정신계승 시민단체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인재육성사업

- 5·18아카데미 :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국외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기념사업 과정을 공유하고, 활동가들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하며 상호 교류하는 워크숍

- 5·18활동가 교류 : 5·18기념재단과 연대하고 있는 해외동포단체 및 민주인권단체에 재단의 우수자원활동가들을 선발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에 10개월 동안 인턴으로 파견. 또한 매 년 2명씩 국외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인턴을 선발하여 5월 정신 및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과 기념사업에 대해 배우고 상호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교육사업

- 5·18교육활동가 양성 : 학교 현장에서의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5·18전국교사연수 및 교사육성 프로그램을 진행
- 5·18교육자료 개발 : 5·18민주화운동 교과서를 비롯한 5·18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내실 있는 5·18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문화사업

- 5·18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 : 재단은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해 토론대회를 개최
- 5·18레드페스타 : 5·18 RedFesta는 1980년 5월18일, 그 날을 기억합니다! / 청소년들이 생각을 나누는 마당입니다! / 청소년들이 주장을 세상에 외치는 광장입니다! /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즐기는 축제입니다! / 청소년들이 주인공입니다!
- 5·18문학상 : 5·18기념재단이 주최하는 5·18문학상은 오월정신을 계승한 오월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장르별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발굴하여 시상하며 기성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본상과 신인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신인상으로 구분하여 시행
- 오월길 안내 및 운영 : 5·18사적지 탐방객들에게 체계화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오월문화 콘텐츠 개발
 - 광주에는 5·18민주화운동 27개 사적지(세부 사적지 총 30곳)를 중심으로 광주 곳곳의 역사, 문화자원들을 연계한 5개 테마, 18개 코스의 오월길이 조성

○ 연구소

- 5·18기록사업 : 구술채록, 해외 5월 관련자료 수집(독일, 일본, 미국 등). 자료위원회 강화, 연구결과의 점검(재단에 중요사료를 기증해 주신 해외 주요기관 초청)
- 5·18왜곡대응 : 진상규명활동(매년 진상규명이 필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과 자료위원회(기존 오월 기록을 검증하고, 자료 수집 및 연구에 대한 방향 제시)를 통해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현장대응(고소인 방문, 사진전시, 리플렛

- 배포), 사진전시회를 통한 ‘당시 사진 속 시민 찾기’ 지속
- 5·18기록물보존 : 연구소는 5·18기록물과 기념사업에서 생산·접수·수집한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시스템구축, 목록등록작업, 기록물 정리·기술, 보존처리, 보존시설·장비 구축, 운용 등, 기록물보존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 5·18학술연구 : 5·18관련 논문 연구,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5·18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연구자와 신진연구자들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며, 연구논문공모,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학술대회, 5·18도서 출판을 진행하고 있음

2 조직·재정 분석 및 진단

□ 사무처(실무조직)의 분석 및 진단

- 5·18기념재단의 이념과 방향성 그리고 비전이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경주되어야 함
 - 5·18 정신에 대한 기념보다는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을 위한 기념에 초점을 두어, 5·18 정신계승이라는 미션과는 괴리되어 있음
 - 또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업구조로 기존의 5·18기념사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진상규명 및 왜곡대응, 국제연대사업이 확장되면서 수행능력 및 전문성 확보는 소홀함
 - 매체의 변화와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사중심의 사업구조의 변경과 더불어 매체별 다양한 대상(연령, 매체 등)에 따른 명확한 콘텐츠 전략 방향성 설정되어야 함
- 5·18 기념재단의 사업규모가 커지고 각 사업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각 사업부문을 교육센터, 연구센터 등과 같이 보다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인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조직화가 필요함
- 재단 내 정보공유, 관리자-직원 간 의사소통의 문제, 조직시스템 문제 등
 - 조직 내의 의사소통이나 회의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원활한 업무 소통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함
 - 구성원들이 비전에 따라 행동하도록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계획하고 장기적 비전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

- 5·18의 가치와 이념을 대중적으로 재규정하고 지역 중심 사업방식을 개선하여 전국적인 사업조직을 구성하고,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직 형태 및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색
 - 사업의 규모, 기간, 범위 등 특성에 따라 한시적 목적을 가진 소규모 팀(Task Force Team)들을 유연하게 조직하고 해체하며 활성화 하는 방식으로 조직 문화와 업무 방식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 대폭적인 권한위임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팀 내에서의 의사결정의 완결성 필요하며, 각 과부제의 특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함
- 매체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구조의 재편성에 따른 인력 확충
 - 여론 주도층 대상으로 한 경성 콘텐츠 강화방안(정책/뉴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과 수용자 관점의 흥미로운 이슈 발굴이 부족하며, 콘텐츠들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음
 - 현재의 매체별 콘텐츠는 다양성이 부족하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대상별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각 대상의 지식수준과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함

□ 이사회 및 임원 조직의 분석 및 진단

- 이사회와 이사장의 관계 및 역할을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 정관을 재정비하여 재단의 역량 증진이 필요함
 - 이사장과 상임이사, 5·18 관련단체 사이 상호 존중과 소통을 위한 노력
 - 전국 분야별 이사는 5·18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함
 - 15명 중 관련자 단체나 광주전남지역 현직인이 9 ~ 11인, 지역주의나 당사자주의의 심각한 성찰 필요
 - 전국적 명망가를 이사장으로 모셔올 수 있어야 하며, 이사회 조직의 개선 필요
 - 지역주의 및 당사자주의 비판 수용 문제(5·18의 지역적 고립화 자초, 광주전남지역 중심의 기념행사 진행, 전국적·세계적 연대 미흡, 5·18유공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비판적 정서)
 - 내부지배구조 중 추천단체 정비를 통하여 5·18정신의 세계화 및 여성 참여를 뒷받침하

는 이사 구성이 필요함

○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조직 개선이 필요함

- 이사회 안건 상정에 앞선 예비검토 자문기구로서 전문적, 효율적 운영 필요

○ 상근 임원제도 검토

- 상근임원제 : 이사장, 부이사장

- 전문화, 책임성 강화, 효율적 업무추진 등을 위해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을 상근 임원으로 할 경우 상임이사제도 폐지해야 하며, 이사장, 부이사장, 비상근 임원일 경우 상임이사 존치
- 부이사장제(상근, 비상근 포함)의 경우 실질적인 필요성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의 상층만 비대해지고 지휘 통솔에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당사자주의의 극복을 위한 조직지배구조 개선

- 재단 이사 추천권, 재단 참여구조를 전국민으로 확장으로 실질적인 전국화 구도

- 기관의 이사추천 시 추천단체 구성원에 국한하지 말고 외부인으로 확대하여 추천토록 권유

- 후원회 이사추천권 조정 필요(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3인 → 1인)

- 2015년 이전까지 후원회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장악했다는 비판이 있음
- 후원회 내에서 3인의 재단 이사를 경선 선출하는 것도 반목과 경쟁을 유도하는 폐해가 있음
- 국민대표권 또는 부문적 대표권의 입장에서 후원회원이 아닌 능력 있는 비당사자를 추천하는 방식 도입도 고려 대상임, 전반적으로 국민참여이사회제도 필요

- 5·18관련단체의 이사추천권 조정 필요 : 3인 → 1인

- 1안 : 관련단체 통합 시까지 한시적으로 각 단체별 1인의 추천권은 유지하되 통합 시에는 통합단체의 1인으로 하는 방안
- 2안 : 단체통합 이전까지 단체소속구성원이 아니고 당사자가 아닌 능력 있는 시민을 이사회 보자로 추천하는 방안(시민으로 추천권 양여, 각 단체가 5·18기념재단 이사를 희망하는 시민을 공모하여 선발·추천)
- 3안 : 3단체로 공법단체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5월단체와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현 방식 유지

- 과정적 절차를 통한 협의와 합의 유도, 조급한 해결은 어려움

- 당사자에 대한 위로·격려·지지 견지하며 정례적 간담회 구조 개설하고, 오월당사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모범으로 다시 서기 위한 과정 고려

□ 예산지원근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념사업)
 -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정지원)
 -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1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재정의 진단 및 분석

○ 5·18기념재단이 창립되면서 광주시에 보관되어 있던 광주성금 이관 시작하였으며, 광주시의 국민성금 보관분 52억원, 광주시 기금 출연, 개인출연금, 오월관련단체의 기금이관, 예산 절감을 통한 기본재산전입 등으로 90억원을 마련함. 2018년 현재 93.8억원의 기본재산을 보유

<표 11>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조성내역(2018)

| 구 분 | 금액(원) | 조성연도 | 비고 |
|---|---------------|--------------------------|--|
| 후원회원 조성 및 과실금 | 749,016,740 | 1994.8.31~ 2002.12.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당시 조성기금 ▪ 설립 후 후원회원출연금 ▪ 원금 이자 과실금 ▪ 2002 이자 과실금(3,292,162) |
| 윤상원상 기금 이관 | 21,583,406 | 1998.5.22 | |
| 광주광역시 (국민성금 62억원 중 국비보전 52 억 차액 10억원 시비 이관) | 1,058,993,260 | 1998.6.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조례(1998. 3. 15 제정) |
| 광주광역시 (국민성금 62억원 중 국비보전금 52억원 이관) | 5,200,000,000 | 1998.8.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 수익 40억원은 광주테크노파크조성으로 광주에서 전용 |
| 5추위 기금 이관 | 85,993,400 | 2000.2.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임대료포함(2천만원) |
| 동아시아대회 기금이관 | 26,490,177 | 2000.9.1 | |
| 국비잔여금(광주광역시) | 418,000,000 | 2000.11.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보조사업비 중 20주년 행사 잔여금 |
| 국비잔여금(광주광역시) | 160,000,000 | 2001.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보조사업비 중 21주년 행사 |

| 구 분 | 금액(원) | 조성연도 | 비고 |
|------------------|---------------|----------------------|---|
| | | | 잔여금 |
| 해외성금 보관분 | 75,127,900 | 2002.9.10 | ▪ 독일, 미주 등 80년 이후 종교기관 성금 조아라 장로 보관 |
| 국비잔여금(광주광역시) | 280,000,000 | 2002.12.10 | ▪ 국비보조사업비 중 22주년 행사 잔여금 |
| 회원 자체조성, 기본재산전입금 | 24,795,117 | 2005.12.31 | ▪ 2004년 전입 7,354,491 ▪ 2005년 전입 17,440,626 |
| 故 윤한봉, 후원회, 전남매일 | 43,100,000 | 2007.9.18 기본재산 전입 | ▪ 고 윤한봉 30,000,000 ▪ 후원회 8,100,000 ▪ 전남매일 5,000,000 |
| 혜당 김순희 장학회 | 50,000,011 | 2012.12.31 | |
| 기본재산 이자 과실금 | 6,899,989 | 2013.12.31 | ▪ 기본재산전입 |
| 광주광역시 출연 | 800,000,000 | 2014.2.25 | |
| 기본재산 이자 과실금 | 200,000,000 | 2016.3.15 | ▪ 기본재산전입 |
| 518기념재단후원회 후원금 등 | 25,000,000 | 2016.12.30 | ▪ 후원회 후원금 ▪ 24,000,000 ▪ 이기봉 지정기탁금 1,000,000 |
| 기본재산 이자 과실금 | 100,000,000 | 2017.3.22 | ▪ 기본재산전입 |
| 후원금 기본재산전입 | 7,000,000 | 2017.12.28 | ▪ 오재일 지정기탁금 5,000,000 ▪ 고재남 지정기탁금 2,000,000 |
| 후원금 기본재산전입 | 50,000,000 | 2018.2.27 | ▪ 김순희 장학금 |
| 계 | 9,382,000,000 | | |

- 2014년 이후 기본재산(기금)을 살펴보면, 2016년 2월 기준 후순위채권 9,200백만 원을 운영하고 있음

○ 5·18기념재단의 창립 이후, 안정적인 5·18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비에 의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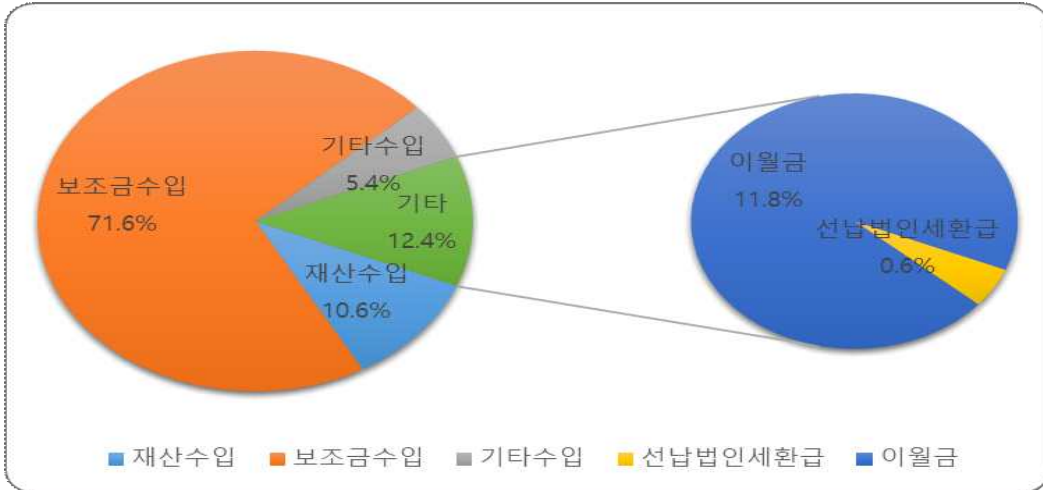
<표 12> 국·시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계 | 23,169 | 3,200 | 2,310 | 3,005 | 3,455 | 2,617 | 2,769 | 2,913 | 2,900 |
| 국 비 | 19,100 | 2,500 | 2,300 | 2,300 | 2,400 | 2,400 | 2,400 | 2,400 | 2,400 |
| 시 비 | 4,069 | 700 | 10 | 705 | 1,055 | 217 | 369 | 513 | 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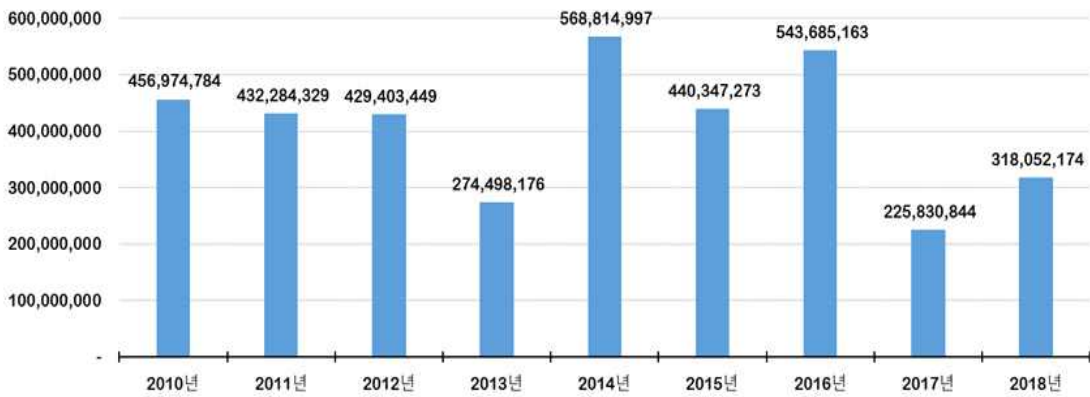
주) 국비는 2005년부터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으로 지원(2011년은 오월길조성 관련 보조금 350백만원 포함), 2016년 기타에는 광주시마라톤 보조금 27백만원, 전남교육청 보조금 40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음

<그림 5> 2010-2018 세입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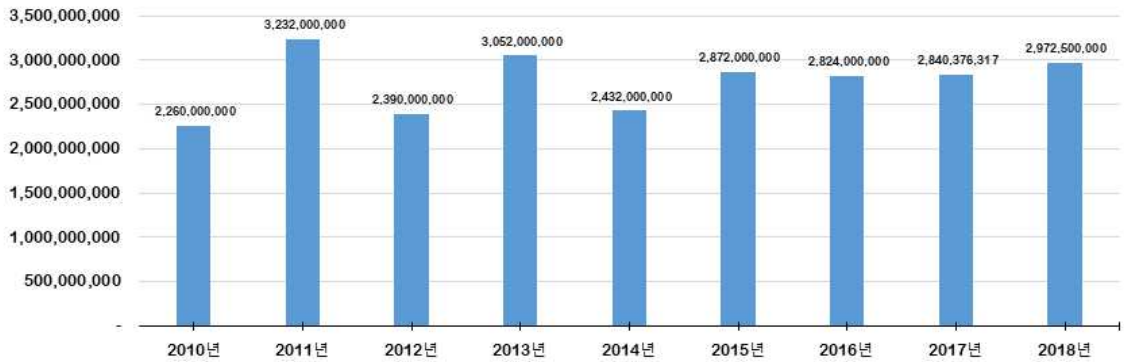
- 2010년부터 2018년 세입결산 내역을 분석하면, 재산 수입은 전체 10.6%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조금 수입은 7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6> 세입결산 중 재산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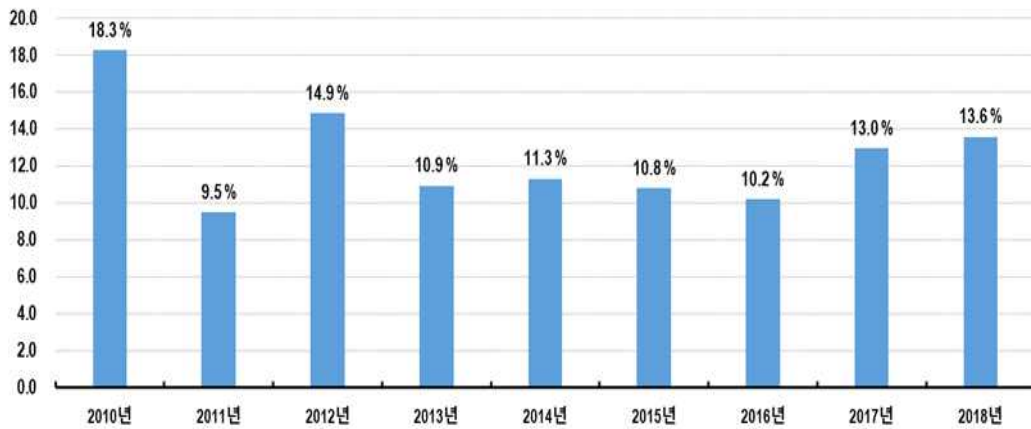


- 2010년부터 2018년 세입결산 총계를 분석하면,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계 예산의 등락폭이 있으며, 이후 2015년 이후 안정세에 들어섬

<그림 7> 세입결산 중 보조금 수입



- 2010년부터 2018년 결산 대비 관리비의 비율은 평균 12.4%를 차지하고 있음



- 재단 운영을 위한 이자수익은 이자율의 하락으로 매년 감소

<표 13> 총 세출 대비 기본재산 전입금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총 세출 | 3,905 | 3,192 | 3,724 | 4,282 | 4,136 | 4,374 | 4,044 | 4,079 |
| 기본재산 전입금 | 100 | 50 | 7 | 800 | - | 225 | 107 | 50 |
| 비율 (%) | 2.56 | 1.57 | 0.19 | 18.68 | 0.00 | 5.14 | 2.65 | 1.23 |

- 2005년부터 국비보조사업인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을 수행하면서 매년 20~25억원 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총 보조금사업의 약 82%가 국비 지원사업임

- 관리비 이월금이나 교과서 판매수익금 등으로 적자를 메워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리비의 부족 문제는 심화,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임

<표 14> 국비 지원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계 | 23,169 | 2,578.1 | 2,399.6 | 2,376.5 | 2,469.5 | 2,491.7 | 2,769 | 2,913 | 2,900 |
| 국비 | 19,100 | 2,500 | 2,300 | 2,300 | 2,400 | 2,400 | 2,400 | 2,400 | 2,400 |
| 비율(%) | 82.4 | 78.1 | 99.6 | 76.5 | 69.5 | 91.7 | 86.7 | 82.4 | 82.8 |

주) 국비는 2005년부터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으로 지원(2011년은 오월길조성 관련 보조금 350백만원 포함), 2016년 기타에는 광주시마라톤 보조금 27백만원, 전남교육청 보조금 40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음

<표 15> 기본재산 과실금 및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이자수입 | 2,061 | 249 | 533 | 398 | 605 | 276 |
| 인건비-자체 | 1,066 | 212 | 262 | 192 | 192 | 208 |
| 인건비-국비 | 2,236 | 443 | 368 | 511 | 498 | 416 |

주) 국비는 2005년부터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으로 지원(2011년은 오월길조성 관련 보조금 350백만원 포함), 2016년 기타에는 광주시마라톤 보조금 27백만원, 전남교육청 보조금 40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음

- 사업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이 강화되고 인건비 편성 한도도 설정됨에 따라 국비보조사업도 재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실행하기 어려움

<표 16> 5·18 기념재단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재산수입 | 보조금수입 | 기타수입 | 선납법인세환급 | 이월금 | 총계 |
|-------|-------------|---------------|-------------|------------|-------------|---------------|
| 2010년 | 461,537,365 | 2,260,000,000 | 76,380,224 | - | 210,888,342 | 3,008,805,931 |
| 2011년 | 432,284,329 | 3,232,000,000 | 15,185,279 | - | 225,476,959 | 3,904,946,567 |
| 2012년 | 429,403,449 | 2,390,000,000 | 72,529,550 | - | 300,015,641 | 3,191,948,640 |
| 2013년 | 274,498,176 | 3,052,000,000 | 120,384,251 | - | 277,129,635 | 3,724,012,062 |
| 2014년 | 568,814,997 | 2,432,000,000 | 905,034,114 | - | 375,985,601 | 4,281,834,712 |
| 2015년 | 440,347,273 | 2,872,000,000 | 120,464,997 | 44,974,555 | 658,213,529 | 4,136,000,354 |
| 2016년 | 543,685,163 | 2,824,000,000 | 131,534,366 | 60,885,690 | 814,332,619 | 4,374,437,838 |
| 2017년 | 225,830,844 | 2,840,376,317 | 253,519,239 | 63,288,465 | 660,765,810 | 4,043,780,675 |
| 2018년 | 300,300,000 | 2,972,500,000 | 179,490,000 | 50,241,630 | 576,763,357 | 4,079,294,987 |

- 자체 예산이 취약한 재정여건 때문에 재단의 목적사업 구현에 큰 장애
 -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은 통제 수준에 이르러 재단본연의 사업방향수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출연 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조체계 강화와 일반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재원확보방안 마련이 절실히

3) 기존의 개선방안

□ 사무처(실무조직)의 개선방안

○ 업무 세분화 및 변화대응력 강화

- 실무조직의 순환형 시스템 정착으로 팀 단위의 업무 세분화(사무분장)가 요구됨
- 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의 구축

○ 사무처 조직의 개선

- 특정시기 업무편중 해소와 팀 간 공유와 협조가 필요함
- 업무과정(의사결정) 투명·공개성 확대가 필요함
- 업무 공정한 평가체계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양양
- 직원 채용 시 언어능력 검증 및 기존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여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보직순환의 어려움 발생(국제업무역량의 차이, 직원별 전문분야 인정 여부 등)
 - 소규모 사업을 줄이고 브랜드화 해야 함
- 행정지원실 외 사업팀의 재편 고려
 - 팀제의 장점(전문성, 책임성, 신속성)만이 아니라 단점인 부서 간 칸막이, 경계업무 소극적 대처 등 팀제의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함 있음
 - 업무의 분야는 총무, 기획, 홍보, 교류, 연대, 교육, 문화, 진실조사, 기록관리 등인데 현재의 편제방식이 아닌 다른 편제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공식적인 팀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TF활동 장려 필요(홍보·홈페이지, 왜곡대응, 내부교육, 성과 관리 등)
- 상임이사와 사무처장의 역할 구분
 - 상임이사 : 집행총괄감독, 대외적(정무적) 교섭 주력
 - 사무처장 : 직원통솔, 사업과 프로그램 실무집행 책임

○ 사업 프로세스의 개편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 직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므로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가져가야 하는 전문가적 관료제의 형태가 적합

- 전문성이 미흡한 부분은 기술지원 부문에서 외부전문가 위원회를 활용
- 전문성과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하도록 핵심운영부분 개편
 - 재단의 실행조직 구조는 직무 설계상 하나의 사업이 운영되려면 여러 전문성이 어우러져 상호의존적으로 기획 · 진행 · 평가되어야함
 - 개방적 소통과 상호토론 및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실제 운영은 팀제가 유리함
- 성과평가 중심의 사업평가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함

<그림 9> 5 · 18기념재단의 사업평가 프로세스



자료 : 도움과나눔(2015), 「5 · 18개념재단 사업 및 조직진단 컨설팅」, 77.

□ 이사회 및 임원 조직의 개선방안

- 이사장 임기와 이사장 선출방식에 대한 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함
 - 현재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역할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이사장은 공모를 통해 선출되고 재단의 대표권을 갖지만 실무는 상임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임이사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견제할 수 없었음

○ 후원조직의 다변화

- 기존 후원회의 활성화, 자원봉사조직, 서포터즈 등 참여 공간 확대, 재능기부 참여 통로 개설, May friends(오월의 친구들)와 같은 수익모델 창출

□ 재정확보 방안

○ 국내·외 후원회원 모집

-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회원모임의 조직

○ 재정거버넌스 구축

-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 시민단체와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거버넌스 구축
- 새로운 기금 마련 방안 모색(발전기금, 기부금)

○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재원확보방안

- 5·18기념재단 기본재산지원조례를 ‘육성조례’ 혹은 ‘지원조례’로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5·18기념사업지원법률 제·개정

- 5·18기념사업 근거 법률은 5·18민주유공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2) 등 3개 법률에 지원근거와 당위성 등 선언적 규정에 국한되어 기념사업의 정책 입안 등 시행방법에 대한 규정 미비
- 현행 보상법, 특별법, 예우법의 선언적 규정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기념사업장으로 개정하거나 개별법으로 기념사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5·18관련 기금 회수 및 통합

- 1980년 5·18민중항쟁과 관련하여 조성되어 다른 기관에서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재원(21세기 광주전남발전협의회, 테크노파크, 성암야영장 등)을 재단이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법적 활동을 서둘러야 할 것임(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감사보고, 2001.3.27)

- 국민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광주성금은 성암야영장 조성자금, 공원조성자금 외에 전남지역개발협의회 기금으로 사용됨¹⁴⁾

○ 사업 및 시설의 민간위탁

- 5·18유관시설 관리권 확보(경상비와 추가사업비, 인건비 등 해결)
- 광주시의 5·18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고려

○ 국내·외적 연대사업을 통한 재원 조성

- 국가인권위, 민주화운동기념단체 등과 공동부담 사업 추진

○ 광주시의 5·18기념사업 종합발전계획에 재단추진 브랜드사업 포함 노력

- 광주시를 대표하는 5·18기념사업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

○ 재정의 경우 기금 확충을 위해 기념재단 자체의 재정로드맵 마련

- 중·장기 사업계획의 방향성을 담은 <5·18기념사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 현 후원회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과 새로운 국민기금 마련 방법 등

14) 광주·전남 21세기 발전협의회(당시 '전남지역개발협의회')측은 1996년 전남도의회(양강섭 의원)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협의회의 설립은 광주성금과 무관하고 활동이 '5·18정신을 축소 왜곡하는 당시 정권의 의도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을 인보복지적 차원에서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5·18을 희석시키고 분열시킬 목적으로 망월동 묘지이장에 앞장섰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일부유족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음, 기금으로 전용되는 과정을 밝히고 기금회수 방안을 마련

2. 교육 및 문화

1) 교육 및 문화 사업 의의 및 현황 진단

□ 교육 및 문화 사업 의의 및 개요

“교육·문화 사업은 5·18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하고 계승하도록 하며, 이를 문화·예술적으로 승화시켜 그 의미를 확대하고 확장하는 재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5·18기념재단 20년사』102쪽)

- 5·18 교육은 공교육과 달리 교육의 목표와 대상 및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음. 재단의 교육 사업은 청소년 및 시민 교육에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자라나는 세대들과 건전한 시민 형성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 온 과정의 산물(『5·18기념재단 20년사』 참조). 현재 재단의 교육 사업은 연례적이고 일상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구조화되었음. 하지만 5·18 이후 출생자들(혹은 다음세대)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기념시설과 교육관련 프로그램의 증가 등 5·18기념사업과 5·18재단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5·18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교육사업과 문화사업은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나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의 계승의 측면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 문화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정형화된 5·18에 대한 공교육에서는 5·18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술 장르를 통한 문화적 재현 방식이 공감과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임. “문화란 항상 주체들에 의해 경험된 의미세계이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단지 고정된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5·18의 한 부분을 스스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5·18의 의미와 외연을 확장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5·18기념재단 20년사』 104쪽)라는 서술에서 나타나는 문화사업의 의의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시민 일반으로 확대되어야 함

- 5·18기념재단은 5·18 청소년 교육을 과거 지향이 아닌 미래 지향으로 재정비하고, 5·18 정신을 시민들이 공유하도록 교육적 이념과 가치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음. 그러나 5·18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청소년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5·1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있으므로 시민교육 또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연대사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와 공교육에서의 5·18 교육 활성화 및 확대가 주요한 사업 목표로 설정되고 실행되어야 함
- 그동안 교육 사업에서는 사적지 체험학습, 5·18 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 5·18 전국교사연수, 5·18민주화운동 수업사례 공모, 오월지기 양성, 교육자료 개발과 배포, 5·18 협력학교 사업, 5·18 교육활동 지원 등의 사업이 이루어져왔음
- 20년간 재단이 실행해 온 문화화사업에는 ‘5·18 문학상’, ‘레드페스타’, ‘5·18 청소년 연극제’, ‘오월길 안내 및 체험학습’, 계간지 ‘주먹밥’ 발행, ‘오월문학총서’ 발간, 공연사업 등이 포함됨

□ 사업의 구분과 내용

○ 교육사업

1) 청소년 체험학습 및 참여활동

- 역사캠프, 평화순례: 현재는 다른 체험학습과 통합)
- 사적지 체험학습(2011년부터 오월길 사업으로 통합)
-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캠프 포함)

〈표 17〉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내용(2014~2018년)

| 회 | 일시 | 참여 인원 | 주제 | |
|-------|---|-------|-------|--|
| 13회 | 2014. 8.15~8.17 | 280명 | 전체 주제 | 잡은 손의 따스함 - 청소년, 공동체를 말하다 |
| | | | 예선 | 책(이것이 인간인가(프리모 레비)), 영화(내 깡패같은 애인)를 보고 논제 추출 |
| | | | 본선 주제 | 1차: 학교는 공동체인가? |
| | | | | 2차: 배타성을 벗어나는 공동체는 가능한가? |
| | | | 결선 주제 | 3차: 개인들의 욕망의 해방과 공동체적 가치는 모순되는가? |
| 결선 주제 | 1. 잡은 손의 따스함 - 청소년, 공동체를 말하다 2. 우리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과 협동이라는 | | | |

| | | | | | | | | |
|----------|--|----------|----------|--|---|-----------|----------|---|
| | | | | 두 가지 사회적 선택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을 골라야 하는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경쟁과 협동이 공존하는 공동체는 과연 가능한가? | | | | |
| 14회 | 2015. 8.21~8.23 | 178 명 | 전체 주제 | CCTV 너머에는 누가 있을까? | | | | |
| | | | 예선 | 제시된 텍스트를 보고 논제 추출 1) 제러미 벤담 <파놉티콘>, 신건수 옮김, 책세상, 2007. 2)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좌담, <지그문트 바우만, 감시사회를 말하다>, 한길식 옮김, 오월의봄, 2014. 3) 한병철, <심리정치-신자유주의 통치술>,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5. 4) 김인성, , 홀로깨달음, 2015. | | | | |
| | | | | 결선 주제 | 1. CCTV 너머에는 누가 있을까? 빅데이터의 시대,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논하다 | | | |
| | | | | 15회 | 2016. 8.12~8.14 | 192 명 | 전체 주제 | 라자드와 완득이는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 |
| | | | | | | | 예선 | 제시된 텍스트를 보고 논제 뽑기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다문화 이야기, SBS스페셜 제작팀, 꿈결, 2012 안녕, 라자드, 배봉기, 문학과지성사, 2011 영화 「완득이」, 이한, 대한민국, 2010 |
| 결선 주제 | 1. 라자드와 완득이는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 2. 다문화시대, 차이가 존중되고 편견과 불평등 없는 사회를 논하다. | | | | | | | |
| 16회 | 2017. 8.11~8.13 | 96명 | 전체 주제 | 곧, 청년-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 | | | | |
| | | | 예선 | 제시된 텍스트를 보고 논제 뽑기 청년, 난민되다, 미스핏츠, 코난박스, 2015 청년백수를 위한 길 위의 인문학, 고미숙, 북드라망, 2014 EBS다큐프라임 2017시대탐구-청년1-4부 | | | | |
| | | | | 17회 | 2018. 8.10~8.12 | 24팀 참여 | 전체 주제 | '침묵'을 폭로하다 - '촛불'과 '#MeToo' 이후,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 |
| 예선 | 제시된 텍스트를 보고 논제 뽑기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2016 그것이 나만이 아니기를, 구병모, 문학과지성사, 2015 EBS다큐프라임 2016 민주주의 | | | | | | | |

- 토론대회는 2001년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및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며, 청소년들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주장과 의견 조율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고 협력하는 방법을 찾으며,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음
- 토론대회는 2001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과제와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52명이 참가한 이후 2018년 18회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인으로 구성된 신청팀 중 24팀을 선발하여 2박 3일간 본선, 결선을 치르는 캠프형태의 대회임

2) 교육자 양성

〈표 18〉 전국교사연수 현황(2014~2018년)

| 연도 | 개최시기 | 내용 및 참가현황 |
|------|----------|--|
| 2014 | 5.10~11 | 전국교사연수 '5·18민주화운동으로 소통하기' (광주, 70명) |
| | 9월~12월 | 타지역교사연수 -서울·경기, 대구, 강원 (총3회, 120명 내외) |
| | 10.18~19 | 전국교사연수(광주, 70명) |
| 2015 | 4.18~19 | 5·18전국교사연수(기본연수) '역사를 마주보다' (광주, 14명) |
| | 5.9~10 | 5·18전국교사연수(심화연수) '역사를 말하다' (광주, 34명) |
| | 7.4~5 | 5·18타지역교사연수(기본연수) '역사를 마주보다' (울산, 38명) |
| | 8.13~14 | 기념사업단체 통합연수 '광복 70년, 분단 70년' (부산, 20명) |
| | 8.29~30 | 5·18타지역교사연수(기본연수) '역사를 마주보다' (강원, 35명) |
| | 10.17~18 | 5·18타지역교사연수(기본연수) '역사를 마주보다' (경기·서울, 31명) |
| 2016 | 4.23~24 | 5·18전국교사연수(상반기 기본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광주, 35명) |
| | 5.14~15 | 예비교사 및 신규교사 답사 연수(광주, 134명) |
| | 7.23~24 | 5·18전국교사연수(심화연수) '5·18교육활동가 워크숍' (광주, 75명) |
| | 9.10~11 | 강원사제동행연수(광주, 36명) |
| | 10.15~16 | 5·18전국교사연수(하반기 기본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광주, 32명) |
| 2017 | 2.14 | 6개 시도 예비 장학사 연수 (6개 시도, 190명) |
| | 2.27~28 | 광주광역시 초등학교원 사회과 연수 (광주, 550명) |
| | 4.22~23 | 5·18전국교사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광주, 26명) |
| | 5.20~21 | 5·18역사와 기억의 걸음(공모연수) (광주, 23명) |
| | 6.3~4 | 강원·경기 5·18자유훈연수(공모연수) (광주, 41명) |
| | 10.28~29 | 울산 특수분야직무연수(공모연수) (광주, 39명) |
| 2018 | 5.19~20 | 1차 공모연수 - 강원교육연구소 (광주, 32명) |
| | 8.16~18 | 2차 공모연수 - 전교조 광주전남 예비교사지원국/광주교대, 전남 대사범대(광주 45명) |
| | 10.6~7 | 3차 공모연수 - 전국교사연극모임(광주, 40명) |
| | 3월~8월 | 5·18초청연수 - 전북, 울산, 경남, 대구, 세종충남 교원 대상 연수 총5회(광주, 247명) |

- 5·18전국교사연수는 2001년 시작하여 2009년까지 전국교사 연수로 확장되다가 2010-2013년 이후에는 광주와 부산 교사를 중심으로 참여. 2015년 이후에는 기본연수와 심화연수로 연수내용을 전문화하고 2018년부터는 교육청과 함께 교사연수 사업을 진행
- 5·18 민주화운동 수업사례 공모(2007년 시범사업 이후 지속)는 학교에서의 5·18민주화운동 수업 장려와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5·18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우수 수업을 심사하여 우수수업교사를 선정

- 오월지기 양성사업(2000년에 안내가이드 양성 사업으로 시작, 2006년에는 사적지 안내 해설사와 해설사 교육을 담당하는 오월강사단 구성 운영으로 체계화: 2011년부터 오월길 사업으로 통합)
- 3)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2006년부터 시작되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인정도서는 2007년 개발 완료하여 2008년 교육청 승인받아 2009년부터 보급. 2004년부터 수업용 교재 개발 지속, 교과별 수업안 개발. 2016년부터 대학교재 개발
- 4) 공교육 지원: 5·18 협력학교 사업(2002년부터 추진하여 2009년 종료), 5·18 교육활동 지원(2002년부터 학생 및 교사의 연구 모임 및 동아리 지원,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

○ 문화사업

- 1) 청소년 문화사업: ① 2002~2003년 5·18 청소년 평화축제(재단과 청소년 단체들이 공동 주관), ② 2004년~현재: 청소년 주도의 거리축제 레드페스타(RedFesta)(재단 후원 사업에서 재단 주최 사업으로), ③ 2006~2012: 5·18 청소년 연극제, ④ 오월길 사업(체험교육): 2011년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사적지 순례 프로그램 ‘오월길’ 개발하여 기존 사적지 체험학습과 통합, 2012년 오월길 방문자 센터 개관

<표 19> 5·18청소년문화제(레드페스타) 개최 현황(2002~2018)

| 일시 | 행사명 | 내용 | 비고 |
|-----------|-------------------------|--------------------------------------|----------|
| 2002.11.8 | 제1회 청소년평화축제 | 단체 체험부스 | |
| 2003.11.1 | 제2회 청소년평화축제 | 단체 체험부스, 문화공연 | |
| 2004.5.22 | 제1회 5·18청소년문화제 REDFESTA | RED오감전,민주,사상,금기,상상마당/락페스티벌 | |
| 2005.5.21 | 제2회 5·18청소년문화제 REDFESTA | 내 안에 오월이 있다상황재현극,민주,인권,평화,나눔마당/락페스티벌 | |
| 2006.5.20 | 제3회 5·18청소년문화제 REDFESTA | 우리가 오월이다상황재현극,민주,인권,평화,나눔마당/락페스티벌 | |
| 2007.5.19 | 제4회 5·18청소년문화제 REDFESTA | 우리가 오월이다상황재현극,오월,인권,평화,나눔마당/락페스티벌 | |
| 2008.5.24 | 제5회 5·18청소년문화제 REDFESTA | 우리가 오월이다상황재현극,오월,인권,평화,나눔마당/락페스티벌 | 5월 문화창작소 |
| 2009.5.23 | 제6회 5·18청소년문화제 REDFESTA | 소풍-“고마워! 그날을 기억할게” 상황재현극,뚝뚝뚝뚝 | 5월 문화창작소 |

| | | | |
|------------------------------------|--------------------------------|--|---|
| | | 두근두근, 들썩들썩, 알록달록 광장 | |
| 2010.5.21 ~ 22 (1박2일) | 제7회 5·18청소년문화 제REDFESTA | 금남로518잼버리상황재현극, 하나촌,열정촌,젊음촌,평화촌 | 5월 문화창작 소 |
| 2011.5.21 ~ 22 (1박2일) | 제8회 5·18청소년문화 제REDFESTA | 오월로상황재현극, 5개 테마 별 체험·전시·놀이·공연 프로그램(학교,금남로,도청, 묘지,우리마을) | 기획활동가(5 인) |
| 2012.5.26 ~ 27 (무 박 2 일) | 제9회 5·18청소년문화 제REDFESTA |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축제희 망버스,퍼레이드,주간난장,특 설무대,새벽난장 | 감독, 매니저 청소년기획단 |
| 2013.5.25 ~ 26 (1박2일) | 제10회 5·18청소년민주 주의축제REDFESTA | 청소년민주주의축제거리퍼레 이드, 플래시몹 ‘님을 위한 행진’ 청소년공연 및 퍼포 먼스, 캠페인 등 사회참여활 동, 프리마켓, 청소년문화기 획자학교 1기 운영 | 추진위원회,레 페사무국 |
| 2015.5.23 ~ 24 (무박2일) | 제11회 5·18청소년문화 제 RED FESTA | 달려라레페버스, 이슈로 표 현한다 거리퍼레이드, 이슈 난장 금남로, 대한민국 청소 년금남로 성회, 금남로OO파 티, 오월야 우리는OO을 이야 기 한다. | 레 드 페 스타 사무국운영(감 독, PM2) |
| 2016.5.21 | 제12회 5·18 레드페스 타 | 탐관오리 사냥터, 시민오리 놀이터, 시민오리마을, 스마 트엔터테인먼트 | 주관 : 청년문 화허브 주최 : 광주광 역시, 5·18기 념재단 |
| 2017.5.27 | 제13회 5·18 레드페스 타 | 촛불 청소년, 금남로를 붉게 물들이다 | 주관 : 문화행 동 S#ARP 주최 : 광주광 역시, 5·18기 념재단 |
| 2018.5.26 | 제14회 5·18 레드페스 타 | 기억하라! 5월의 진실 행동 하라! 청소년 | 주관 : 문화행 동 S#ARP 주최 : 광주광 역시, 5·18기 념재단 |

- 레드페스타(REDFESTA)는 청소년평화축제를 계승하여 2004년부터 시작된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 레드페스타는 1980년 5월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5월을 기억하고 민주, 인권, 평화, 나눔 등의 5월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끼와 열정을 담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장이기도함

- 2) 시민문화사업: ① 2005년~현재: 5·18 문학상 공모, ② 재단 소식지(1996년부터)와 계간

지 ‘주먹밥’ (2003년 창간) 발행, ③ 오월문학총서 발간(2012~2013년 출간), ④ 공연 사업: 2005~2006년 ‘광주음악제’, 2007~2009년 ‘난장·人·Free’ 공연, 2010~2011년 ‘오월누리제’, ⑤ 5·18 언론상(2007년~현재)

〈표 20〉 5·18문학상 수상 현황(2014-2018)

| 연도 | 수상작 | 심사 | 접수 |
|------|--|--|---|
| 2014 | 시 : 반디의 시위(김완수) 소설: 당신의 거울(이희영) 동화: 이름도둑(문은아) | 공동주관: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 5·18기념재단 시 : 황지우, 나희덕, 신형철 소설: 임철우, 은미희, 김형중 동화: 김진경, 한정기 | 시상: 5월 17일(토) 시 1,464편(247명) 소설 104편 동화 92편 |
| 2015 | 시 : 검은 물 밑에서(김성일) 소설: 아무도 없는 곳에서(김경숙) 동화: 유별난 목공 집(김 령) | 공동주관: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 5·18기념재단 시 : 이시영, 나희덕, 신형철 소설: 임철우, 김형중, 한 강 동화: 김진경, 한정기 | 시상: 5월 16일 (토), 11:00 시 138명(825편) 소설 105편 동화 59편 |
| 2016 | <본상> 금요일엔 돌아오렴(4·16세월호참사작가 기록단) <신인상> 시 : 무 싹을 바라보는 견해들(고은희) 소설: 기억의 유통기한(신수담) 동화: 김순영 꽃(박효명) | 공동주관: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 5·18기념재단 시 : 김경주, 신형철 소설: 정지아, 정용준 동화: 배봉기, 유은실 본상: 황현산, 김진경, 임철우, 나희덕, 김형중 | 시상: 5월 21일 (토), 19:00 시 134명(816편) 소설 69편 동화 51편 |
| 2017 | <본상> 수상작 없음 <신인상> 시 : 흑백(이온정) 소설: 그리고 신발을 위한 냉장고(최지영) 동화: 레벨업(정미영), 유통기한 친구(박수진) | 공동주관: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 5·18기념재단 시 : 신형철, 서효인 소설: 정지아, 정용준 동화: 임정자, 유은실 | 시상: 5월 20일 (토), 17:00 시 188명(1090편) 소설 124편 동화 61편 |
| 2018 | <본상> 꽃보다 먼저 다녀간 이름들(이종형) <신인상> 시 : 춤(조성국) 소설: 뒷(박철수) 동화: 소문(한완식) | 공동주관: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 5·18기념재단 시 : 조성국, 서효인 소설: 이진, 정용준 동화: 이상권, 임지형 | 시상: 5월 19일 (토), 17:00 시 173명(1024편) 소설 88명(91편) 동화 45명(46편) |

- 5·18문학상은 오월정신을 계승한 오월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장르별로 문학성이 뛰어나

난 작품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국내 신인 문학상. 특정한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월정신을 계승해 오월문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참신하고 역량있는 문학작품을 공모하여 선정. 2005년 5·18어린이문학상 공모로 시작하여 2006년부터는 시와 소설 분야로 확대하여 시상. 2016년부터는 기성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본상을 시상하고 있음

□ 교육 및 문화 분야 업무 분장과 조직

〈표 21〉 2018.8월 사무분장에 따른 교육문화부 업무

| | | | |
|----|---------------|-----|--------------------|
| 1. | 교육문화사업의 기획 | 6. | 5·18교육사이트 운영 |
| 2. |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 7. | 5·18문화예술사업, 공연사업 |
| 3. | 5·18교육 및 교사연수 | 8. | 오월길 운영 |
| 4. | 교육자료개발 및 보급 | 9. | 자원활동가 육성 및 관리 |
| 5. | 5·18문학상 | 10. | 주먹밥 발행 및 각종 간행물 관리 |

- 교육과 문화 사업 부문의 기존 업무에 2018년 8월 새로운 업무 분장에 따라 자원활동가 육성 및 관리, 주먹밥 발행 및 각종 간행물 관리가 추가되었으나 현재 재단의 재정과 인력 구성에서 새로운 인력 충원은 쉽지 않음

〈표 22〉 교육문화 사업의 인적 구성과 담당업무

| 직책 | 담당업무 |
|----|--|
| 부장 | 교육문화부 업무총괄, 교육활동가양성(5·18교육연구모임 운영, 교사교류, 5·18교육포럼), 5·18 레드페스타, 소식지 주먹밥 발행, 기타보조금 사업(오월민중미술사 정리, 가상VR콘텐츠 개발) |
| 부원 | 5·18교육활동가 양성(각종 5·18교사연수, 5·18교육활동동아리), 5·18교육자료 개발·관리, 5·18교육 누리집 관리, 5·18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자원활동가 운영 |
| 부원 | 5·18문학상, 5·18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전시실 운영, 5·18기획문화예술행사(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아트 및 전시), 5·18교과서 등 판매 및 관리, 교육자료안내지 제작, 오월길 운영 및 5·18 사적지 활용 |
| 부원 | |

- 교육 사업과 문화사업의 담당자가 명료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고 교육활동가 관련 업무, 교육자료 개발 및 관리 업무도 분산되어 있음. 향후 교육 관련 인적 자원 담당과 교재 업무가 구별되고 한시적인 이벤트성 문화사업 담당자 또한 전문화되어야 함

□ 예산

- 2012년부터(2011년은 학술교육사업으로 교육사업만 별도로 측정 안 됨) 세입, 세출 내역상의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2012~2013년 7억여 원(오월길 조성사업 예산 포함)에서 5억여 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다 5억여 원으로 고정된 상황임(재단누리집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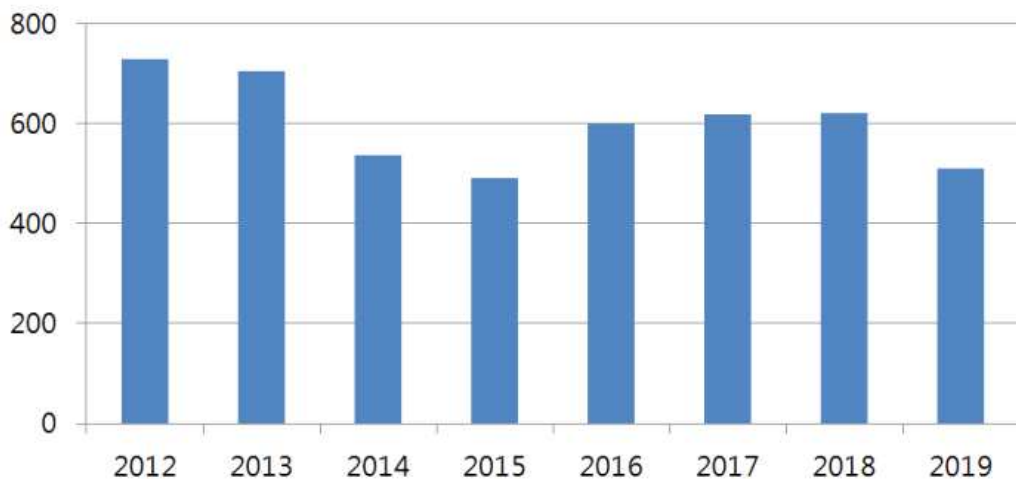
<표 23> 교육 및 문화 사업 예산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금액 | 729,894,795 | 706,752,500 | 536,500,000 | 492,247,217 | 598,182,090 | 619,692,137 | 620,000,000 | 510,000,000 |

* 홈페이지의 예산과 2019사업계획서 상의 국비보조금 이외에 시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교육청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 교육 및 문화 사업 관련 예산은 국비보조금 사업비를 근간으로 시의 보조금 사업과 교육청의 보조금 사업에 따라 예산의 변동이 나타남. 변화의 정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그림 10> 2012~2019년 교육 및 문화 사업 예산의 변화



- 교육 및 문화사업 예산(보조금 사업의 명칭은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은 전체 국비보조금 2,240천원에서 22.7%의 비중을 차지함. 아래의 <표 24>에서 보듯이 교육사업이 2억원, 문화예술사업이 2억2천만 원이고 오월길 사업은 성격상 기념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비중이 높은 편임

<표 24> 2019년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국비보조금) 사업비 내역

| 항목 | 세목 | 세부사업 | '18예산(A) | '19예산(B) (행안부반영) | 증감 (C=B-A) |
|------------|----|------------------|-----------|---------------------|---------------|
|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 | | 2,400,000 | 2,240,000 | 160,000 |
| 5·18교육문화사업 | | | 510,000 | 510,000 | 0 |
| | | 10. 5·18교육활동가 양성 | 110,000 | 110,000 | 0 |
| | | 11. 5·18교육자료 개발 | 90,000 | 90,000 | 0 |
| | | 12. 5·18청소년문화사업 | 90,000 | 90,000 | 0 |
| | | 13. 오월길 | 90,000 | 90,000 | 0 |
| | | 14. 오월문화예술사업 | 130,000 | 130,000 | 0 |

2) 사업 분석 및 진단

□ 「5·18기념사업 마스터 플랜」(2014)의 5년간 교육사업 평가

- 5·18교육이 5·18의 정신을 반영하는 정도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지만, 교육의 전국화, 공교육 내에서의 5·18교육, 시민교육 등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
- 5·18교육이 5·18의 정신을 반영하는 정도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지만, 교육의 전국화, 공교육 내에서의 5·18교육, 시민교육 등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
- 부정 평가의 원인: 이것은 5·18교육이 가진 특수성과 구조적 조건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됨. 5·18교육은 공교육의 정식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기 어렵고, 그 교육 내용을 학생 수준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음. 또한 광주·전남 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서 5·18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사회적 조건 하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 평가자가 교사가 아닌 일반인이어서 재단의 5·18교육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보수정권의

5·18축소 및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 반영

- 5·18교육의 문제점: 학생의 관심 부족과 자발적 참여 부족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교재 부족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

- 미래세대에게 5·18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으로서 교육사업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매우 진지하게 추진되어왔고, 그 성과도 적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과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교육의 전부가 되어 있는 청소년 교육 환경에서 5·18교육은 여전히 의미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앞서 분석된 교육 당사자들, 시스템, 그리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재검토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대적으로 청소년 교육에 비해 시민교육은 비중있게 실천되지 못함. 그것은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5·18의 역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이해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소홀히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그렇지만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 및 시민들이 출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민교육은 5·18교육의 중요한 임무가 되고 있음
- 참고로 부마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009년 ‘학습하는 사회와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 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부설로 설립하고 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함. 이 시민교육은 시민들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5·18 시민교육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조하여 체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교육 관련 유관 기관과 비교

<표 25> 인권교육훈련센터 비교 검토

| | 기본계획 | 유사컨텐츠 | 중복성 여부 |
|---------|---|---|--------|
| 비전 및 목적 | 인권교육훈련센터는 UN인권교육훈련 선언에 기초한 인권교육기관 한국과 아시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쳐 | 설립 목적은 인권교육훈련센터가 국제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광주의 5·18관련 단체들의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교가 어려움 | ○ |

| | | | |
|----------|--|---|---|
| | 지구촌 시민과 더 많이 만나고, 더 깊이 참여하는 사업 광주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동아시아를 비롯해 해외 각국의 민주화운동 경험을 공유하며 교류 | 교육훈련 측면에서 5·18관련 단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사업이 일정정도 겹치는 부분이 많음 5·18관련 단체들은 5·18 자체를 통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육하는 부분이 중심이 됨 인권교육의 강조는 광주광역시민주인권교육센터와 유사 | |
| 사업 내용 | 업무: 국내외 공무원, 군인, 사회지도자, 학생 등에 대한 교육훈련사업과 인권교육훈련 방법에 관한 연구를 위한 교육연구사업, 인권교육훈련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네트워크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인권교육훈련에 관한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의 발간을 위한 출판사업. 프로그램: 단기 국제프로그램(2~5주), 단기 국내프로그램(2~4일), 장기프로그램(1년 단위 3학기 과정의 석사학위과정 운영, 대학원대학교) 운영 내외국인대상으로 과정 운영 | 교육훈련사업과 관련하여 5·18재단이 교사연수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인권부분의 교육을 실시함 | ○ |
| | | 교육훈련사업 중 교사와 학생을 제외한 공무원, 군인, 사회지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는 없는 사업내용 | × |
| | | 인권교육훈련 관련 국제회의 개최는 5·18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도 펼치는 사업내용 | ○ |
| | | 장기프로그램 중 대학원대학교는 김대중대학원대학교와 겹침 5·18재단은 국외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인턴을 선발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과 기념사업에 대해 배우고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단기 국제프로그램과 유사 | ○ |

자료: 「민주인권기념파크조성 사업컨텐츠 타당성 검토 용역」(2017) 54쪽.

- 광주교도소 부지에 대통령 지역공약 중의 하나인 ‘민주인권기념파크’가 조성된다면 우선적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민주인권교육 관련 시설임. 5·18교육이 민주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민주인권기념파크’와 협업이 요구됨.
- 조성될 예정인 ‘민주인권기념파크’와 더불어 5·18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시교육청, 5·18교육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이 있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의 가치와 의미의 현재화’라는 관점에서 5·18기념재단과 유사한 교육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기록물을 교육콘텐츠로 가공하여 세대 간 가치 연계와 계승을 위한 교육을 기록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단의 5·18교육과 차별성이 있음
- 5·18교육관은 5·18기념재단이 5·18자유공원 및 교육활성화 차원에서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시의 시설물로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5·18 민주유공자에게 소양강좌를 진행하고 구 상무대 영창이 재현되어 있어 체험 교육이 가능한 것이 특색. 하지만 고유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개발하여 운영할 역량이 미흡하므로 협업을 통해

- 5·18기념재단이 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교육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적으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5·18교육관을 5·18기념재단이 위탁운영하여 5·18교육의 공간으로 정립시킬 필요가 있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은 시민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임. 민주평화교류원과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은 아시아 주요 도시들과 문화교류협정 체결을 통한 안정적, 지속적 교류 네트워크 구축하고,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아시아와 공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5·18기념재단이 그동안 노력을 경주해 고유한 콘텐츠를 갖춘 5·18교육을 중심으로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확장하고자 한다면 문화간 대화 및 교류에 기초한 민주평화교류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자의 역할 분담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고려해야 함

□ 교육문화 분야 관련 2019년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 2019교육문화부 운영방향 개요

- (사업) 5·18교육의 확장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지원거점 역할 강화
 - 5·18교육의 내용적 확장 및 정립(5·18시민교육체계)
 - 5·18교육문화프로그램의 정비 및 유기적 연계성 강화
 - (지원과 유기성 확보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부서조직) 지속발전가능한 성장역량의 조성
 - 의사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팀 내 원활한 사업협력 체계 구축)
 - 사업의 내용성 강화를 위한 조사 및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사업협력주체 간담회 등)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전문성 강화교육 제고(교육의 활성화)
 - 5·18기념사업주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5·18 이해 심화)

○ 5·18 인재육성

-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국내외 인권활동가 교육 진행
- 5·18아카데미 프로그램 질적 향상 추진
 - 아시아·아프리카 시민활동가 선발(15명 이내)
 - 국내 시민활동가와의 연계 프로그램 추진(신설)

- 인턴 선발 및 파견 사업 재정비를 통한 전문성 강화
 - 해외 전문인력 선발(신규)
 - 국제 인턴 선발
 - 인턴 해외파견 사업 종료
- 5·18아카데미 프로그램, 인턴 선발 및 파견 사업은 GNMP 사업,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 교육관련 부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아시아·아프리카 시민활동가들이 아카데미를 통해 GNMP 사업과 연결시키고, GNMP 프로그램이 이수자가 국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교류의 지속성과 내용성 확보 가능

○ 5·18 교육활동가양성

- 공교육현장의 창의적인 5·18 교육활동을 위한 전국 교사연수 및 교육연구활동, 교육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 5·18교육활동가 양성
 - 5·18교육활동가 연수 추진
- 중장기계획에 따라 5년 단위 평가와 계획 확보 필요
 - 5·18교육활동 네트워크 확대
 - 5·18교육 연구과제 공모사업 추진('19년 신규사업) → 학술연구 쪽과 연계 필요
 - 5·18교육교류(5·18교육 '세계화' 사업) - 국내외 교육활동가 교류 및 역량 강화
 - 5·18교육활동동아리 육성 및 활동보고회 개최(5·18교육 '전국화' 사업)
 - 5·18교육협의회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5·18교육 '전국화' 사업)
- 교육활동 네트워크는 전국단위 5·18교육협의회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교류와 역량 강화 또한 교육협의회에서 내용이 논의되어야 확장성이 담보됨

○ 5·18교육자료개발

- 5·18교육자료 개발
 - 5·18중등도서 개발('17~'19년 연차 사업)
 - 교육자료개발 기획팀 운영 : 교육자료개발 기획·검토회의 운영
 - 활동지 및 교구 내용 신규 개발('19년 신규 자료 개발 2종)

- 5·18교육자료 관리·보급

- 기존자료 추가 제작 : 활동지, 교과서, 영상자료 등
- 5·18교육 누리집 운영 : <http://edu.518.org> 운영

→ 교육자료개발과 관련된 기획팀에서는 연차별, 단계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별(외국인, 시민, 국민, 청소년, 대학생 및 전문가, 사회적 약자 등), 수준별(초급, 중급, 전문가), 교육 도구 및 전달체계(온라인 오프라인)를 감안하여 교육체제를 구성하고 교육자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함. 교육자료 개발은 학술연구 분야와 무관하지 않음. 학술연구 분야의 성과와 결과가 교육자료의 개발과 맞물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누리집은 쌍방향 교육참여 시스템을 기초로 온라인코스를 개발하여 독자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5·18청소년문화사업

- 청소년 문화행사와 토론대회를 통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 제15회 5·18레드페스타 개최
 -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로서 5·18교육지향 구체화
- 제18회 5·18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개최
 - 단기성 행사 참여에서 지속적인 관계형성으로 변모
- 사업 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관계유지

→ 레드페스타 참여자와 토론대회 참여자들이 향후 5·18전국화의 중요한 인적 재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 자원활동가 프로그램 등과 연계 필요. 참여자들에게 5·18재단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재단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협력기관을 발굴하여 추진

○ 오월길

- 5·18사적지를 안내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방문객들에게 5·18의 내용과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
- 안내 해설 활동의 체계적 운영
 - 안내해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5·18사적지 해설역량 강화

- 안내해설 콘텐츠의 개선 및 보완
 - 대상별 안내활동 프로그램 다양화하여 수요계층 이해·요구 반영
- 오월길 연계 문화예술공연 개최(연 2회, 8백만원)
- 오월길 안내 해설사에 대한 교육은 교육팀에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화 하고 안내 해설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오월길 사업은 5·18, 민주, 인권, 평화를 테마로 한 광주시티투어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 향후 ‘광주인권평화투어’(가칭)는 광주문화재단 및 시의 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방문객 맞춤형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단에서는 안내 해설사 교육에 집중
- 사적지 안내 기관 네트워크 구축 필요

○ 5월 문화예술사업

-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문화예술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전국화 및 세계화에 기여
- 오월문학작품의 발굴과 5·18문학상 시상을 통한 5·18정신 선양
- 5·18전시를 통한 5·18이해 확산
- 5·18문화예술행사를 통한 정서적 공감대 확산
- 5·18문학상은 재단이 아닌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거나 공동주관 형태로 추진 필요
- 전시는 예술분야 전문가 및 큐레이터의 5·18을 주제로 한 전시기획을 지원하는 형태나, 광주문화재단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지역에서 진행하는 레지던시를 지원하여 국내외 작가들의 5·18을 주제로 한 예술활동을 간접지원하는 형태로 전환 필요

3) 기존의 발전 방안 검토

□ 교육사업의 방향성

- 「5·18재단 20년사」에서는 5·18의 역사적 의미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작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민족의 미래를 예비하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교육 사업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 이러한 강조점에 따라 전국화와 세계화, 시민대상

교육의 확대,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혁신이라는 5·18교육의 발전 방안 세 가지를 제시
 “첫째, 계속 사업들의 경우 가능한 한 그 외연을 넓혀가야 한다. 지난 20년간 재단은 교육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했지만, 아직은 지역적으로는 광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제 재단은 이 사업 대상을 전국화, 세계화해나가야 한다.”

“둘째, 새로운 사업 내용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 재단의 주된 교육 사업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 대상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미래 세대의 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민들의 재교육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새로운 세대의 출현으로 교육환경이 나날이 바뀌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도 혁신이 있어야 한다.”

- 5·18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 시민대상교육의 확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혁신이라는 세 가지 발전 방향은 5·18기념재단의 과제인 5·18의 현재화, 다음 세대로의 계승과 유사하며 2019년 추진전략인 ‘5·18 교육의 확장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부합

□ 문화사업의 방향성

- 「5·18재단 20년사」에서 문화 사업은 5·18의 정신을 문화적, 예술적으로 재현하고 승화시키는 작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서술. 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화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상당 부분 교육사업의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음. 따라서 문화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는 것, 문화사업의 독자성 모색, 시민의 일상 속 문화로서 5·18을 구현하는 것을 재단의 향후 과제로 제시

“첫째,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속하면서, 전시나 공연 등의 사업을 독자적 사업 영역으로 확보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시민들의 삶과 보다 밀착한 문화적 행사나 실천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단의 문화 사업은 5·18 행사를 축제의 것으로 만드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동시에 재단의 문화 사업은 일회성 축제만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과의 접촉을 넓히고, 작지만 누구나 쉽게 접

할 수 있는 문화 기획과 실천을 통해 대중이 5·18 정신을 생활 속에서 문화의 형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문화사업의 체계화와 독자성 모색은 5·18의 현재화, 기념행사와 교육과 문화 사업을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의미있는 일로 만드는 과제와 부합할 수 있으나 5·18기념재단의 재정과 인력 구조 내에서 현실성있는 전략과 방법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임. 문화다양성과 삶의 질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시민들의 일상과 문화에 대한 강조는 중요하지만 5·18기념재단은 직접 사업이 아니라 간접 지원을 통해 달성해야 할 과제일 수 있음

□ 교육 및 문화사업의 기존 발전 방안

- 「5·18기념재단 사업 및 조직진단 컨설팅」(2015) 보고서에서는 인재육성사업과 교육 자료 개발 및 오월교사 양성을 인재양성사업으로, 교과서배포 등의 공교육지원 사업을 교육지원사업, 기존의 교류연대 사업 중 인재육성사업을 제외하고 문화사업을 통합하여 교류연대사업으로의 재편을 권고
 - 보고서에서는 인재육성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5·18기념재단이 resource center 로 가기위해 경쟁력 또는 대체프로그램 범위를 낮추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 교육 사업인 자원활동가육성과 교류연대 사업인 5·18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두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재단의 역할로 제시. 하지만 인재육성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구별하고 다시 교류연대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교육지원사업과 인재육성사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검토되어야 함. 문화사업의 교류연대사업으로의 재편 또한 교육과 문화 사업을 기초로 교류연대사업이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교육지원사업은 공교육 교재 개발 및 배포뿐만 아니라 학교 단위의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교육 등의 다양한 채널 확보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함. 학생 및 교사교육을 위한 민주, 인권, 평화, 대동정신 등의 가치에 대한 교육 콘텐츠와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등의 외연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5·18기념재단 사업 및 조직진단 컨설팅」 10쪽)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교육의 다양한 채널의 확보는 5·18기념재단이 일상적인 과업 중 하나

이지만 향후의 교육분야 장기 발전 방향에서는 5·18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조금 더 현실적인 전략이 도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컨텐츠와 일상생활과의 연계 프로그램은 문화사업이 결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에서는 혁신 방안으로 5·18교육주체의 정비, 교육체계의 재구성, 시민교육의 필요성, 교육 내용의 질적 제고를 제시. 이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2017)의 ‘교육사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 5·18교육주체의 정비

- 5·18교육을 담당해오고 있거나 유관한 기관들이 기능을 분화, 전문화하면서 동시에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는 역할 재설정이 필요

① 5·18기념재단의 교육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5·18기념재단은 5·18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중장기적 교육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주체들과의 교육 분담체계를 수립·관리·운영하는 역할을 수행
- 교재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양성, 교육협력 시스템 및 관계 확대 등으로 전문화
- 시민교육에서는 5·18의 정신이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교육교재 개발, 시민강좌, 단기 학교, 토론모임 등의 5·18 시민교육을 주도

② 교육청의 5·18교육 기능 강화: 교육 정례화 및 확장, 타 시도 교육청과 협력

③ 5·18교육관의 교육기능 강화: 연수 중심

④ 5·18연구소의 대학 및 시민 교육 참여: 교재 개발 중심

⑤ 기록관의 교육기능 활용: 기록물 중심

- 교육청을 통한 타 시도 교육청과의 5·18교육 협력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기초로 이러한 선언문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5·18재단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교육감들,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계기 교육' 결의

“5월 정신이 촛불 혁명으로, 평화와 인권 바로 서는 대한민국 밝히고 있어”

〈오마이뉴스〉 18.03.16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컨퍼런스홀에서 15일 열린 제6대 시도 교육감 협의회 마지막 총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이 채택됐다.

선언문은 전국의 학교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계기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 강사단, 체험처 등을 지원하여 5·18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내용이다. 계기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을 가르치는 수업이다.

선언문에는 “5·18은 광주에서 시작되었지만, 광주에만 머물지 않았다. 저항과 대동의 공동체 정신은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로 승화되었으며, 모든 국민이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마침내 5월 정신은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와 인권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밝히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소명이 되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계기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 교육부 장관 권한인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감에게 넘겨 달라고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감 인사 권한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경기도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교육 자치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 조직, 재정, 인사의 자주권을 확보하여 교육자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제6대 교육감 마지막 총회에 교육감 14명(대구, 전남, 인천 불참)이 참여했다.

다음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 전문이다.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으며, 왜곡되고 탄압받은 5·18의 진실을 알리는 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5·18은 광주에서 시작되었지만, 광주에만 머물지 않았다. 저항과 대동의 공동체 정신은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로 승화되었으며, 국민 모두가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마침내 5월 정신은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와 인권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소명이 되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대구2·28민주운동, 4.19민주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제주 4.3이 던진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교육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며 5·18을 중심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를 강화한다.
2. 전국의 학생들이 '오월 민주 강사단'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에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3. 전국의 교사들이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확인하고 학교 단위에서 5·18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제주4.3, 대구2.28민주운동, 4.19민주혁명, 부마 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 5·18교육체계의 재구성

- 5·18 유관 단체들의 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공교육 및 시민교육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일관성있는 교육을 추진
 - 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이용하고, 교육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
- ① ‘5·18교육협의회’ 구성: 재단이 컨트롤 타워
- ② 교육기관 및 5·18교육협의회와 교육 담당자들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학교 밖 교육 및 시민교육의 체계 마련

- 5·18교육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사적지 중심 체험교육 활성화를 통해 재구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5·18 및 민주·인권·평화 교육 실시. 시민들의 삶에 의미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5·18교육은 삶의 의문들, 정치·민주주의·경제·인권 등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함
 - ① 사적지 중심 학교 밖 5·18교육 체계 구성
 - : 사적지 중심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오월길 프로그램 재정비 및 오월지기 재교육
 - ② 5·18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중적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 2018년 11월 22일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해 민주주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하자는 취지하에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 광주지역에서도 2018년 내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 5·18기념재단 또한 광주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에 참여하고 있어 5·18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맥락에 위치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5·18교육 내용의 질적 제고: 단순한 역사적 사실 교육을 넘어, 5·18이 보여주는 미래적 가치(연대, 공동체, 나눔, 시민자치 등)를 어떻게 교육으로 구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 ① 5·18의 미래가치 교육
- ② 교육 매개자 연수 확대
- ③ 교육매체의 다양화

- 5·18의 미래적 가치를 교육으로 구현하는 것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교육 내용과 형식의 혁신을 통해 가능한 것임. 5·18재단의 교육 및 문화분야는 5·18의 미래적 가치를 연구나 논의를 통해 풍부하게 만들고 중장기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점차 교육의 자기주도 학습과 창의적 상상이 강조되고 있기에 5·18교육에서 교육자나 교육활동가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와 지식 및 정보를 매개하는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매개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서 매체(인터넷 기술과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고민 필요

□ <재단발전협의회>(2018년 8월 23일 발전협의회 시민공청회 자료집)

- 재단발전협의회에서 제시한 교육 분야의 발전 방안의 내용은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5·18기념재단의 교육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시민교육으로의 확장’이라는 방향성과 유사하게 5·18기념재단이 전문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

○ 5·18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원센터 역할

- 5·18교육을 위한 교육방법론 연구, 교육콘텐츠 개발, 교육활동가 양성,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활동에 대한 대상별 종합안내창구 및 지원센터 역할 강구

○ 5·18교육정책을 통한 제도화 강구(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 강구)

- 범국가적인 5·18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 시도
- (평생교육, 시민교육, 학교교육)

○ 시민교육의 강화

-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5·18의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시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 5·18기념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중 ‘교육문화분야’

- 재단 내부 발전방안의 기본적인 틀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개혁 요구와 광주시의 행정 감사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한 2017년 4차 이사회에서 제시된 바 있음. 당시 적정 인력 및 운영비 지원, 전문인력 확충이라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발전의 방향은 핵심 업무 중심 사업 재편으로 사업 및 재정 운영 효율화로 삼음
 - 5·18기념재단의 자체 진단에서 현재 재단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역 내 5·18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의 유사성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재단 내 사업에서도 중복성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광주시, 시민단체, 기념재단과 T/F를 구성하여 중복 사업 평가 및 사업 추진 방향 협의하여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 재편 추진해야 함을 강조
 - 핵심사업 중심의 재편 방향에서 진상규명사업은 확대하고 교육문화사업은 재편하며, 국제연대사업의 축소를 검토. 교육과 문화사업의 재편 방향은 아래와 같음
 - 교육활동가 양성,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교육사업에 집중
 - 문화사업은 평가를 통해 재편(이관, 중복해소, 축소, 폐지 등)
- 5·18기념재단은 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여 부서별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교육문화부에서는 5·18의 현재화,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라는 과제 속에서 2019년 추진전략 중 ‘5·18 교육의 확장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제시
- 5·18교육문화사업에 대한 재단 내부의 진단과 개선방향
 - ① 5·18교육문화사업의 경쟁적 구조
 - 교육 분야에서는 민주평화교류원, 5·18기록관, 5·18교육관
 - 문화 분야에서는 광주문화재단,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재단
 - 현재 추진중인 민주시민교육, 장기적으로는 민주인권기념파크 내에 들어설 교육센터
 - (개선방향) 5·18교육사업 선도기관으로서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의 기대 부응할 필요

② 항구적인 대표사업 육성의 미흡(장기적 발전모델의 부재)

- 장기간 지속된 몇 개 사업의 경우에도 인식수준이 높지 못하고 다양하게 선도적 사업들을 실시했으나 사업간 연계구조를 확보하지 못함
- (개선방향) 사업의 유기성 확보를 전제로 사업단위를 키우되 사업의 개수를 줄여 대표사업의 내용성 강화하는 방향 필요

③ 역량의 적절한 배분

- 한정된 재원과 인력 속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여건상 사업의 내용과 전문성 강화가 쉽지 않음
- (개선방향) 5·18교육문화사업의 체질 개선
 - (교육)역량범위내의 직접시행사업을 선별하여 시행하되 관련사업의 지원거점으로서 다양한 협력기관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의 조화가 요구됨
 - (문화) 다양한 협력주체를 발굴, 연계하여 그들의 전문성에 기반한 사업을 추동하되 재단은 그 성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 소결

○ 교육 및 문화 분야의 비전과 발전 방안

- 교육 사업이 재단의 기념사업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18정신과 가치의 계승, 5·18의 현재화라는 과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 문화 분야의 경우 5·18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적 표현 형태를 통해 공교육의 제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달성할 수 없는 5·18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촉진할 수 있음

○ 교육사업과 문화사업의 관계

- 문화사업의 고유성과 전문성의 강화, 문화사업과 교류연대사업의 통합에 대한 의견은 자칫 교육사업과 문화사업의 분리를 가져올 수 있기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문화적 표현 및 계승의 매개로서 예술에 대한 고려는 교육 및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재단 사업 전반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기도 함

○ 교육분야의 발전 방향으로서 5·18교육지원전문센터와 콘트롤 타워

- 5·18교육이 전세계와 타 지역 및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재단에
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설 필요가 있
음. 교육사업이 5·18교육의 콘트롤 타워의 기능을 하고 교육지원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재단은 직접 사업의 비중은 줄이거나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5·18교육을 진행하거
나 관련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역량을 모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발전 방안들 사이의 대립

- 역량강화와 전문화라는 재단의 과제는 지원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
구와 충돌할 수 있음. 왜냐하면 지원의 전문성은 개별사업 담당자의 전문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 문화사업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문화분야를 재단이 직접 사업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지원을 통해 성과를 내야한다는 주장은 서로 상충됨

3. 국제교류 및 연대

1) 국제교류 및 연대의 배경

□ 국제교류 및 연대의 개요

- 기념재단의 주요 목적 사업으로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인권 단체와 연대’ 사업으로 1998년 광주광역시가 보관하고 있던 국민성금이 기념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현안 문제 대응, 교육문화사업 등과 시작
 - 현재는 ‘국제·국내 교류연대사업’ 과 매년 5월에 개최되는 ‘광주인권상’, ‘광주아시아포럼’ 등으로 구분

- ‘국제네트워크 사업’으로써 민주화운동 과정에 희생된 아시아 지역의 희생자 가족에 대한 초청사업으로 1999년 ‘아시아 민주희생자 연대 네트워크’ 행사 시작
 - 5월 광주를 아시아인들에게 소개, 아시아의 민주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5·18광주의거유족회’가 1999년 동아시아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단체 초청 연대 모임을 개최(19주년 기념행사에 7개국 11명의 희생자 가족, 인권 활동가 참석)
 - 2000년 행사에 8개국 32명의 유가족과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하면서 교류연대의 외형적 토대가 마련
 - 아시아 민주희생자 가족 연대회의에서 민주희생자들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위해, 2000년 ‘아시아 인권을 위한 백만인 1달러 모금운동’을 기획, 2001년~2008년까지 이후 ‘스리랑카 실종자 행사 지원’ 사업 진행

- 2010년에는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결성, 피스잼(Peace Jam)과의 교류, 2011년 ‘국제역사적기념공간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2012년 동아시아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East Asia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Network)에 참여를 통해 국제교류연대를 진행

- 일상적인 교류연대를 위해 ‘5·18 인재육성사업’ 과 ‘5·18 활동가 교류사업’ 등으로 확장
- 국내연대는 사업공모를 통한 지원사업, 국제연대는 주요 거점 네트워크와의 연대 및 풀뿌리 단체 지원이 주요 내용
 -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지원 사업은 시민사회의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 지원, 해외 시민단체 후원 등의 간접사업으로 구체화
 - 국제연대 사업은 국제공동사업추진을 골자로 대표단 파견이 주를 이루고 있음.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의 동포단체와 함께 5·18정신의 세계화를 추진
- 광주인권상 및 광주아시아포럼은 매월 5월 개최되는 연례행사로서 재단의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함. 광주지역 청년, 자원활동가, 국내외 단체 및 서포터즈들과 다양한 컨퍼런스와 워크숍 등을 통해 5·18 정신 교류를 통한 연대가 진행
- 광주인권상
 - 1999년 8월,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각종 상을 통합하여 그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5·18시민상’, ‘윤상원상’, ‘박관현상’, ‘5월정의상’ 등의 시상 주체들이 간담회를 개최. 그 결과 ‘5·18시민상’ 과 ‘윤상원상’ 을 통합하기로 결정. 2000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광주인권상’ 과 관련한 명칭과 시상규정을 확정하여 첫 시상 사업을 시작
 - 2011년 문화·예술·언론·학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한 인사와 단체를 시상하기 위해 ‘광주인권상 특별상’ 을 제정, 2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
- 광주아시아포럼
 - 1999년 국제 네트워크 사업의 첫 출발인 ‘아시아 민주희생자 연대 네트워크’ 에서 2004년 ‘국제평화캠프’, 2007년 ‘광주국제평화포럼’ 를 거쳐 2010년 ‘광주아시아포럼’ 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개최

- 아시아 민주희생자 가족 광주 초청 행사를 광주국제평화캠프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 하면서 국제 교류·연대 사업이 확장
- 2004년 국내·외 평화학자 및 인권·평화단체 실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가족 들이 인권과 평화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광주를 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도시로 만들기를 위한 목적으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15개국 40명의 외국인 참가자와 국내 참가자 200명 등 총 250명의 인권단체 실무자, 민주희생자 가족 등이 참여해 국제평화 캠프가 개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의 Human Rights Course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시에 진행
- 2006년 광주국제평화캠프는 ‘아시아의 분쟁과 NGO의 평화 만들기’ 라는 주제로, 지역 대학생들이 자원 활동가로 참여해 행사 운영.
- 2007년 광주국제평화캠프가 ‘광주국제평화포럼’ 으로 변경하고, ‘포럼아시아’ 행사를 동시에 개최해 5·18정신의 공유와 국제화를 위한 국제 교류·연대를 본격화
- 2010년 5·18민중항쟁 30주년에 ‘아시아의 어제와 오늘, 미래’ 를 주제로 25개국 400명 이 참가해 ‘광주아시아포럼’ 을 개최. 이 행사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을 위 한 실행기구로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약칭 SDMA)’ 를 출범
- SDMA는 2006년부터 네트워크의 출범을 위해 활동 목표와 규약, 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2010년 광주아시아포럼에서 국제 네트워크 조직 결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발족하였으며 2015년까지 활동
- 2008년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국제역사적기념공간연합 지역회의에 처음 참여했으며, 2009년 광주아시아포럼 행사 중 아시아지역회의 개최, 2010년 방글라데시 지역회의에 참가를 통해 2011년 8월 ‘국제역사적기념공간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경험을 가진 기념관들의 국제적인 네트 워크 조직으로 199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미국, 영국 등 8개국 9개 의 기념관이 공동으로 설립)’ 에 한국 최초로 가입
-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활동(East Asia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Network)은 2012년 광주아시아포럼에서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민주, 인 권, 평화 기념사업 단체들과 공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인재 공동육성 등 지속적 인 공동사업을 통해 교류, 협력

- 2018년에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사진전, 정부에 탄압 아래에 있는 캄보디아 CNRP 구국당 무어 쪽후어 부총재 내방 등으로 국제 교류연대를 진행

○ 5·18 인재육성 및 활동가 교류

- ‘5·18인재육성’ 사업은 민주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국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2004년 광주 아시아인권학교로 시작
-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아시아지역의 인권·평화단체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를 선발하여 6주 동안 한국의 인권·평화·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자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하는 인재로 양성하고자 추진
-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2012년 팀 내 단위사업 조정을 통해 해외활동가관련 교육은 5·18아카데미2, 국내활동가 대상 교육은 5·18아카데미1(국내연대로 분류)로 사업 명칭을 바꾸어 시행, 기념사업전문가 과정인 5·18아카데미3을 신설
- 2012년 5·18아카데미2는 서울연수와 광주연수로 프로그램을 구성, 서울연수는 성공회대학교 아시아시민사회석사과정(MAINS)의 여름학교 강좌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광주연수는 5·18민주화운동, 국가폭력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의제의 교육이 진행
- 국제인턴채용은 2001년 사업 제안 당시 국내외 인권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아시아 지역 NGO활동가가 기념재단에 근무하면서 한국과 5·18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제안. 2005년 첫 인턴채용
- 해외 파견 사업은 자원봉사자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1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왕복 항공료와 현지 체류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2003년부터 선발 대상을 기념재단의 자원 활동가에서 국내 사회단체의 활동가로 확대

○ 국외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

- 국외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은 아시아지역에 소재한 시민사회단체를 선정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와 ‘광주인권상’ 시상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을 위해 권위주의적 제도와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투쟁하는 인사와 단체를 지원 격려하는 형태로 진행
- 해외동포 단체의 5월 운동에 대한 지원 사업은 국외 시민사회단체협력사업의 형태로 독

- 일에서 개최되는 재유럽 오월민중제 지원과 미국 민족학교의 5월 행사 지원 사업전개
- 2012년부터 국외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의 범주를 ‘과거사 청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실조사사업,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집중 지원. 공모배분과 지정지원 방식을 통해 5월정신과 연계된 국제사업을 지원

□ 국내교류 및 연대 (교육문화부에서 이관 2018.6.26.)

○ 국내교류 및 연대의 개요

- 2003년 연대사업으로 국내 시민사회단체 지원 협력 사업이 시작. 재단의 정관 4조 목적 사업 8항(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 인권단체와의 연대 사업)과 5·18정신계승관련 사업에 대한 후원 규정에 의거 5·18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2005년 국내 시민사회단체 지원 협력 사업의 명칭을 ‘민주·인권·평화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변경.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5·18과 민주·인권·평화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해 풀뿌리 민간 기구를 육성
- 2007년, 민주·인권·평화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명칭을 국내 NGO지원사업으로 변경, 사업 내용을 ‘국내NGO프로젝트 지원, 타 지역 5월 행사지원, 5·18 나눔 한마당, 지역 단체 송년행사’로 세분화
- 2009년,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지원 사업의 기간을 ‘단기(1년), 중기(2년), 인큐베이팅(설립 3년 이내의 신규단체지원)’으로 지원시기를 각각 세분화
- 지역단위로 5·18공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과 5·18기념행사를 수행하는 풀뿌리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5·18의 전국화를 도모하는 ‘광역협의회’ 사업을 실시. 이 사업은 5·18역사왜곡저지 활동을 함께 진행

○ 5·18아카데미

- 시민사회운동을 통한 5·18의 민주·대동·나눔·자치정신을 지속 전파하고, 사회현안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할 목적으로 제안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활동가를 양성
- 2012년 기념재단의 교육 사업 통합에 따라 5·18아카데미1로 명칭을 변경

○ 5·18자원활동가 육성(교육문화부로 이관 2018.6.26.)

- 2001년 기존의 일회적인 활동에 그치는 자원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자원활동가 육성프로그램을 도입
- 지역사회 청년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재단사업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제인턴 파견의 선발기준으로 5·18자원활동 경력을 중요한 지표로 선정
- 2018년 사업에서는 기획홍보, 국제연대, 교육문화, 진실조사 4개 팀으로 구성해 사업의 기획부터 시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

□국제교류 및 연대 사업에 대한 기존 평가

○국제교류 및 연대의 성과

- 5·18광주에 대한 홍보
 - 5월 기념행사 주간에 개최되는 광주아시아포럼은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민주인권평화도시로 대표되는 광주를 알리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의 선도적 역할
 - 2000년부터 시작한 광주인권상을 비롯하여, 광주 아시아 포럼, 국제 연대 등을 통해 아시아 및 제3세계의 민주화 운동 단체 및 인사들을 지원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제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외교력을 증진하고 있음
 - 유사기관들의 5·18기념사업과 달리, 지방정부가 아닌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처음 추진되었으며, 1990년대 초창기 국제 교류 및 연대사업의 주체는 시민연대모임을 필두로 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광주인권상 시상은 5·18정신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 권위주의 제도와 국가폭력에 맞

서 저항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연대와 협력으로 인식되면서 5·18정신의 세계화 및 제 3세계의 민주화에 기여

- 국제 교류연대 경험의 축적

- 5월 아시아포럼의 경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시아민주희생자 연대사업으로 시작한 교류사업이 국제 평화포럼을 거쳐 광주아시아포럼과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라는 네트워크 결성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외부 협력사업의 모델 제시

- 광주인권상 및 광주아시아포럼은 매월 5월 개최되는 연례행사로서 재단의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함. 광주지역 청년, 자원활동가, 국내외 단체 및 서포터즈들과 다양한 컨퍼런스 와 워크샵 등을 통해 5·18 정신 교류의 무대로 진행됨
- 국제네트워크사업, 5·18인재육성사업, 국외시민사회단체협력(지원)사업 등 독자적인 내용을 갖춘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은 5월 정신의 국제화와 민주인권을 매개한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모델을 제시

○ 국제교류 및 연대 사업의 한계

- 전문 인력의 부족

- 5·18기념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교류활동에 비해 재단 내 전담부서 및 실무인력의 여건은 열악함

- 교류연대 대상의 협소함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의 7단체가 참여하여 활발한 반면, 그 외에 지역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는 편임

- 현장성의 미비

- 국제 교류활동인 친선교류를 위한 초청사업, 인턴쉽을 통한 교육사업, NGO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의식이나 그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류형태라기보다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젊은 세대들을 교육하는 등 사회운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의미에서 제도적 성격이 강함
-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거점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유사기관들과의 사업 중복성

- 최근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주관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추진되면서 광주아시아포럼에서 진행하는 국제 교류연대사업의 참여 주체와 내용이 중

침된다는 우려가 제기

- 문화사업과 함께 5월에 행사가 집중되고, 5월에 광주지역에서 비슷한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사로 인식되기 어려움

<표 26> 유사기관 교류연대 사업

| 구분 | 관리기관 | 교류연대 내용 |
|--------------------|-----------------|--|
|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 광주광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 기관과의 교류 협력 ▪ 연구·교육관련 네트워크 구축 ▪ 기록물에 대한 포럼, 인권소장기관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주시의 글로벌 아이덴티티 강화 ▪ 유네스코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국가(기관)와의 교류협력 ▪ 5·18관련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광주시 국제교류 창구 확대 |
|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 | 광주광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인권정책, 인권평화교류, 인권움부즈맨 지원 |
| 광주 트라우마센터 | 광주광역시,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아시아 지역 고문 생존자 재활센터와 교류 ▪ 치유네트워크 구축 |
|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 문화체육관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인권·평화 관련, 문화예술 특성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공, 정부·기관·단체 등과 창조적 협력관계 구축, 의제 발굴 및 확산 ▪ 광주광역시 및 5·18기념재단, 국내외 유관 기관 등과 민주·인권·평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교류 네트워크 구축 ▪ 민주·인권·평화 관련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구)전남도청 복원에 따른 교류연대 사업의 지원 |

○ 기존의 발전 방안

「재단 20년사」

-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5·18정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재단의 사업적 성과를 교류연대 사업으로 확장, 지역사회와 연계된 풀뿌리 교류연대 사업을 전개를 제시

- 국제단체와의 교류네트워크 신뢰에 기반 한 연속사업이라는 점에서 교류연대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교류단체를 발굴해 재단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단체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교류협력단체에 대한 파견과 교육을 실시해 교류연대 전문가 육성을 제안
- 인재육성사업은 인재 발굴의 다양화와 육성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제안하며, 특히 국제인턴 파견사업의 경우 파견지역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지역에 네트워크의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교류네트워크를 확장, 해외 인턴도 전국적 비율로 선발해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교류네트워크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부수적 효과를 추구(48페이지)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보고서

- 국제 교류·연대사업은 5·18 전국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로서 세계화를 추진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국제 교류·연대사업이 본격화되었다고 평가(60페이지)
- ‘향후 국제 교류·연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인가’ 는 질문에 대해 ‘시민단체 간 국제협력사업’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과 연대사업’ 31.1%, ‘국제적 문화예술 교류사업’ 13.9%, ‘외국 지차제와의 협력 사업’ 10.0%, ‘빈곤국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4.4%, ‘제3세계 개발사업’ 3.6% 등의 순으로 조사됨(68페이지)
- 첫째, 시민성 제고하는 차원에서 시민참여의 방안과 참여주체들의 역할 재분배의 필요성이 제기하며 참여주체 역할 재조정 및 시민 참여 보장, 교류·연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경쟁이 아닌 협업시스템 구축, 사업 시기 및 참여 주체 역할의 재조정을 제시하고 있음
- 둘째, 5·18정신에 기반 한 교류·연대사업, 셋째, 지역성과 현장성을 확충한 로컬리티가 반영된 교류·연대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287~289페이지)

「5·18기념재단 사업 및 조직진단 컨설팅」

- 5·18가치를 실천하는 플랫폼이자 Resource center로서 재단의 기존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을 통한(Platform) 사업이 널리 연계되도록 정보와 지식을 내어주고 지원

및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재단의 사업 확장을 제시

- 이를 위해 내외부의 전문가그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직을 개편해 구체적으로 교류사업은 국내외연대를 통해 외부의 단체들이 진행,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 연대의 강화로 5·18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도모할 것을 제시

2) 국제교류 및 연대 사업의 현황 및 분석

□ 조직 구성과 업무

<표 27> 국제교류 및 연대 사업 담당 업무 내용

| 국제연대부 |
|------------------------------|
| 국제연대사업의 기획 |
| 광주인권상 |
| 광주아시아포럼 |
| 국제민주인권단체 지원 및 협력 |
| 글로벌 인재육성 |
| 국제홍보사업 |
| 5·18관련 국내연대사업(신설 2018.6.26.) |

<표 28> 국제연대부의 담당 업무

| 직책 | 담당업무 |
|------|--|
| 부장 | 국제연대부 업무 총괄(광주인권상, 광주아시아포럼, 인재육성, 국제연대, 국내연대), 광주아시아포럼, 5·18정신 국제공유화 사업(거점회의), 풀뿌리 단체 지원 |
| 팀장 | 국내연대(광역협의회, 국내네트워크 관리운영, 국내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아카데미), 광주인권상, 동포단체 5·18기념행사 공동추진, 5·18아카데미 |
| 부원 | GNMP(전남대학교 NGO 석사과정) 지원, 5·18책자 번역 및 출판 |
| 부원 | 국제인턴 채용, 인턴 해외파견, 국제사진전,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
| 국제인턴 | 해외파트너단체 모니터링, GNMP 1기 해외통신원, 영문 웹진, 웹사이트 관리 |
| 국제인턴 | 해외파트너단체 모니터링, GNMP 1기 해외통신원, 영문 웹진, 웹사이트 관리 |

□ 사업의 구분과 내용

○ 광주인권상

- 2000년 동티모르의 샨나 구스마오를 1회 인권상을 수상한 이후로 대한민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태국, 이란, 파키스탄, 미얀마,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의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민주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 인사·단체를 수상자를 선정
- 수상절차는 후보자를 접수하고 검증전문위원회에서 사전검증을 실시, 수상자클럽의 검증을 통해 검증회의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후보자 접수부터 선정까지 약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 수상 후보자는 ① 5·18시민상, 윤상원상 역대 수상자 또는 수상 단체, ② 광주인권상 역대 수상자 또는 수상 단체, ③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국내외 인권·평화·통일 운동 단체 중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을 의뢰키로 결정한 국내외 단체, ④ 광주인권상 제정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이 추천
- 심사위원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장 등이 추천한 위원과 5·18기념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추천한 2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 시 최소 2명의 여성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며,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으로는 ① 민주인권평화관련 국제기구 종사자 또는 관련전문가, ② 국제문제관련 전문 언론인, ③ 후보자 관련 국가 및 단체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

<표 29> 광주인권상 수상자(2014~2018)

| 광주인권상 수상자(2014~2018) | | |
|----------------------|----------------|---|
| 연 도 | 수상자 | 주요 활동 |
| 2014 | 아딜 라만 칸(방글라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수호와 인권법 제정, 인권 옹호 활동 인권단체인 오디카(Odhikar)를 설립 ▪ 남아시아 지역의 인권 유린에 반대하는 선도적인 역할과 ‘고문·처벌 면제 반대 남아시아 국가 간 네트워크’ 등 국내외 연대활동 |
| | 하반란의 어머니들(이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이란 당국에 의해 대규모의 반인권적 처형이 발생했을 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하바란 공동묘지에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결성 ▪ 지속적인 진실 규명요구는 반체제인사의 처형과 정부 관련성 규명, 인권활동가들의 활동 영역 확대, 재판 절차 개선 등의 변화를 이끌어냄 |

| | | |
|------|---|--|
| 2015 | 라띠파 아눔 실레가르(인도네시아 인권변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의 분쟁지역인 웨스트파푸아에서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권변호사 |
| | 2015년 광주인권상 특별상 : 솜바스 솜폰 (라오스, 참여개발훈련센터 설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과학자이자 공동체 운동가 2005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고 농촌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 |
| 2016 | 뉴엔 단 쿠에(베트남 인권 운동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층의 건강을 외면하고 공산당원만을 선택적으로 대우하는 베트남 정부의 관행에 맞서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 |
| | BERSIH 2.0(말레이시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연합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레이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선거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으며, 이를 위해 8개 요구 사항을 포함한 국가적 개혁의제를 제시 선거 부정 문제를 말레이시아 정치권에 부각 및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 |
| 2017 | 자투팻 분팻타락사(태국 인권운동가, 태국 콘캔 대학교 Pai Daodin 멤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부터 독재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수많은 협박과 구금·투옥에도 반군부 학생운동을 주도 |
| | ※ 특별상 수상자 세르지 밤바라(부르키나 파소 힙합 뮤지션, 시민의 빗자루 멤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을 통해 아프리카 전 지역 사회변혁운동에 참여. 시민의 빗자루(Citizen's Broom)라는 단체를 창설 |
| 2018 | 난다나 마나통가(스리랑카 캔디 인권사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문, 강제실종 등과 같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편에서 투쟁 인권활동을 통해 스리랑카 사법부 개혁운동, 인권을 위한 성직자 네트워크 확대, 정의를 위한 연합 태동 등 스리랑카 인권지평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 |

○ 광주아시아포럼

- 1999년 국제 네트워크 사업의 첫 출발인 ‘아시아 민주희생자 연대 네트워크’ 에서 2004년 ‘국제평화캠프’, 2007년 ‘광주국제평화포럼’ 을 거쳐 2010년 ‘광주아시아포럼’ 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개최
- 2010년에는 “아시아의 어제, 오늘, 미래”, 2011년에는 “도시로부터 시작하는 지구적 인권실현”, 2012년에는 “정의로운 변화를 향하여” 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인권도시를 위한 이행지침들” 이라는 주제로 기념재단이 주관해 ‘세계인권도시포럼’ 과 공동 개최
- 매년 5월에 열리는 행사로 주요 섹션은 동아시아민주인권네트워크, 국가폭력, 트라우마, 5·18과 관련된 주제들, 기타 청년, 풀뿌리단체 등과 관련된 주제로 포럼이 개최

<표 30> 광주아시아포럼의 연도별 개최 현황

| 일자 | 주제 | 구성 |
|--------------|------------------------------------|---|
| 2014.5.15~17 | 정의회복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책임 | SDMA 워크숍 : ‘선거에서 국제인권 기준 이행을 위한 권고와 감시’ |
| | | 역사왜곡 바로잡기 워크숍 : ‘민주주의 위기와 역사왜곡’ |
| | | 동아시아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 연례회의 |
| | | 국가폭력 트라우마 국제워크숍 : ‘정의와 회복을 위한 국가와 시민의 책임’ |
| | | 역사왜곡 바로잡기 전시회 및 상영회 |
| 2015.5.16~18 | 사회정의를 위한 연대 | SDMA 워크숍 : 아시아 민주주의 워크숍 |
| | | 5·18과 교육 : 오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 | | 5·18정신계승 국제워크숍 : 노동자가 바라본 5·18정신 계승 |
| | | 5·18과 역사왜곡 학술대회 |
| 2016.5.15~17 | 국가폭력과 역사왜곡 | SDMA2 |
| | | SFSJ-Solidarity for Social Justice |
| | | 트라우마 센터2 |
| | | 5·18기록물 기증자 |
| | | 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
| | | 5월 교육 |
| | | 풀뿌리 기부행사 |
| SDMA운영회의 | | |
| 2017.5.15~17 | 저항하라! 1980 광주에서 2017 촛불로 | 아시아민주주의청년포럼: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청년의 힘 |
| | | 트라우마센터 : 다시,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
| | | 아시아인권위원회 : 아시아인권헌장에서 본 인권메커니즘 |
| | | 풀뿌리지원워크숍 : Hand-in Hand-in Solidarity |
| | | 동아시아민주인권네트워크 연례회의 |
| | | 광산구 마을론(論) : 마을, 저항하라 |
| | | 광주전남기자협회 포럼 |
| 2018.5.15~20 | 아시아인권헌장 광주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지금은 실천할 때” | 아시아인권헌장(정의, 문화, 평화) |
| | | 국가폭력트라우마국제회의 |
| | | 아시아청년포럼 |
| | | 풀뿌리단체 지원워크숍 |
| | | 동아시아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 |
| | | 518과 언론 |
| | | 동아시아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 |
| 518교육 | | |

- 2016년에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단체 지원하고 광주정신 세계화 및 민주주의 지원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6개국 7개국 단체를 지원, 2017년에는 스리랑카 2, 필리핀, 방글라데시 3, 파키스탄, 인도 2, 인도네시아, 네팔 등 11개 단체, 2018년 방글라데시 2,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2, 파키스탄 2, 인도 등 9개 단체들을 선정해 지원
- 2018년 인권상 수상자 난다나 마나통가는 2017년 지원단체인 캔디인권사무소에서 활동

하며, 풀뿌리단체 지원과 워크숍은 2016~2018년 아시아포럼 주요 섹션으로 진행됨

<표 31> 지원단체 현황

| 연도 | 단체명 | 국가 |
|------|---|-------|
| 2017 | 캔디인권사무소 (Kandy Human Rights Office) | 스리랑카 |
| | 자나산사다야(Janasansadaya) | |
| | 코딜레라 시민연합(CPA) | 필리핀 |
| | 투이스 방글라데시 (Tuis Bangladesh) | 방글라데시 |
| | 오디카(Odhikar) | |
| | 수보노그람재단 (Subonogram Foundation) | |
| | 인적자원연구개발(RDHR) | 파키스탄 |
| | 자나네티(Jananethi) | 인도 |
| | 너바지(Nervazhi) | |
| | 인도네시아 시민연합(KPRI) | 인도네시아 |
| | 민주자유인권연구소(DFHRI) | 네팔 |
| 2018 | Tuius Bangladesh | 방글라데시 |
| |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 | |
| | Human Rights Alert | 인도 |
| |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Society | |
| | Aliansi Demokrasi untuk Papua | |
| | Jagaran Media Center | 네팔 |
| | SAA:PHU(Education for All) | |
| | Sindh Community Foundation | 파키스탄 |
| | Society for Peace Sustainable Development | |

○ 인재육성

- 국제인턴 채용

- 국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인턴 채용으로 교류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활동가 및 시민사회지도자, 인권상 수상자 등의 추천을 받은 활동가 중에서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음
- 국가 및 지역 간 상호 활동 공유를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웹진, 영문홈페이지 및 아시아풀뿌리 등 네트워크 단체 관리, 해외 전문인력 및 국외 단체 네트워크 사업 지원

- 2014년 인도, 필리핀, 2015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2016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2017년 네팔, 파키스탄, 2018년 네팔 등 아시아 활동가들이 약 10개월 동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해외인턴 파견
 - 국내외 파트너 단체들과의 인적, 조직적 교류를 강화하고 참여자들에게는 국제사업 실무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재단사업 홍보 통로로 활용
 - 국내연수기간 1~2개월 포함 4~6개월 동안 단기파견을 진행하다 2019년 입국 후 사업 종료
- 5·18아카데미
 - 아시아·아프리카 등 국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5·18항쟁의 경험과 현장을 보여주는 인권 학교 프로그램
 - 2015년에는 9월 7일~9월 21일, ‘사회정의연대(Solidarity for Social Justice)’ 라는 주제로 아시아, 아프리카 국제 시민활동가 19명이 참여. 각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 13인의 일반 강의 진행
 - 2016년에는 8월 25일~9월 10일,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한 연대’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라는 주제로 10개국(스리랑카, 파키스탄, 수단,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네팔, 미얀마) 20명이 참여해 서울과 광주에서 진행. 각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 12인의 일반 강의로 진행
- GNMP
 - 5·18정신 세계화 및 인재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NGO활동가 양성과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2016년 9월 시작. 전남대학교 대학원 NGO 협동과정 내에 설치해 2년 24학점, 현장실습과 학위논문작성 포함되는 과정
 - 대상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활동가, 국내 활동가로 2018년 현재 1기 학생 4인 (18.8 졸업 후 귀국), 2기 학생 3인, 3기 학생 4인 재학 중
- 윈터스쿨
 - 2016년 12월 26일~12월 31일 “Towards A Better Future of Human Rights and Stronger Solidarity Among Young Human Rights Defenders in Asia” 주제로 광주에서 진행. 대상은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인권분야 학생 및 청년인권운동가, 전남대 GNMP 학생, 성공회대 MAINS과정 학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생이 참가
 - 2017년 12월 10일~12월 14일, 태국의 학생운동가 자투팻 분팻타락사의 광주인권상 수상을 계기로 아시아지역 학생운동 네트워크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GNMP 1기, 태국내 대학생, 네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 대학생 등 20명이 참가

○ 국제연대

- 거점회의

- 아시아 지역 인권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5년부터 아시아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거점회의를 개최. 아시아 각국의 인권현장운동가, 인권 전문가, 정부관료, 법조인, 학자 등의 600여 명의 인권관련 인사들이 모여 해당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및 분석 보고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인권유린사태에 대한 대응전략, 해당국의 헌법과 아시아인권현장에 비춘 인권활동의 지향점 및 제도적 개선책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
- 2016년에는 태국에서 9월 16일~9월 17일에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서의 인권상황: 도전과 지지” 라는 주제와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서의 인권상황 및 저해요소 검토”, “아시아인권현장을 기준으로 본 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검토”, “해당지역 인권옹호,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 를 목표로 7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일랜드, 네팔, 한국)이 참가.
- 말레이시아에서 10월 19일~10월 20일에 “동남아시아에서 축소일로의 민주적 공간: 비판적 분석과 연대호소” 를 주제로 12개국(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홍콩, 태국, 동티모르, 필리핀, 한국)이 참가. 인도에서 12월 10일~12월 12일에 “2018년 아시아인권현장 보조성명 선언을 준비하기 위한 인권운동가 및 핵심활동가 견해 통합” 을 목표로 8개국(인도, 한국, 스리랑카, 홍콩, 네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이 참가
- 2017년에는 네팔(남아시아)에서 10월 9일~10월 11일에 5·18항쟁 비디오클립 상영, 기초발제(아시아인권현장:Rights to Democracy and Justice), 남아시아 지역 인권현황 발표, 아시아인권현장 토론, 5·18친구들(재단행사참가경험자) 간담회, 현지 주최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인근 4개국 및 파푸아)에서는 11월 13~11월 16일에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

- 아시아인권현장

- 2017년 9월 14일~9월 16일에 아시아인권현장워크숍을 통해 아시아인권현장 개정 논의, 로힝야 성명서 채택, 5·18진상조사 성명서 채택 등을 논의
- 2018년 3월 유엔특별과정전문가 및 국제시민사회 전문가를 초청, 아시아인권현장에 대한 특별간담회를 유엔인권위원회행사의 일환으로 개최
- 1998년 5·18기념재단과 공동으로 아시아인권현장을 선언했던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함께 아시아인권현장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8년 광주아시아포럼에서 아시아인권현장 광주선언 20주년을 기념해 평화권(Right to peace), 문화권(Right to culture), 정의권(Right to justice) 세 개의 보조현장을 작성 선언

- 웹진 발행
 - 국제적인 네트워크 및 연대 강화와 5·18기념재단 사업성과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발행되며, 2014년까지 발매됐던 ‘아시아저널’ 이 중단되고, 2015년 8월 10월, 2017년 2월, 5월, 7월, 10월, 2018년 1월, 8월, 11월, 12월 발행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역대 광주인권상 수상자 인터뷰, SDMA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인권이슈 기사, SFSJ 현장의 목소리, 아시아인권 칼럼, AHRC 어젠트 어필 공유, 재단 사업 소개 등이 있음
- 국제행사 참가 및 개최
 - 국제적인 네트워크 및 연대 강화를 위해 국제5·18기념행사 참가와 네트워크 기관 연대행사 참석, 5·18국제사진전이 주를 이루고 있음
 - 2016년부터 독일, 네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 국제사진전을 개최

○ 국내연대(교육문화부에서 이관 2018.6.26.)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을 위해 전국적인 연대 및 공동사업을 추진. 각 지역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의 연대, 전국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오월정신 확산, 과거사 네트워크 기관의 5·18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내네트워크를 위한 ‘동아시아 네트워크’ 관련 단체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재단, 서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 워크숍 진행, 행사 참가 등을 하고 있음
- 5·18광역협의회 기념사업은 매년 5월 기념사업주간 부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지역에서 기념식 및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음
 - 2014년에는 수도권 1, 부산 5(단체 1 중복), 대구경북 8, 대전충남 2개의 단체가 16개의 사업으로 5·18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근현대사 강의, 축제, 올레길 만들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념식 및 문화제를 개최

<표 32> 2014 518 광역협의회 공동추진 기념사업

| 단체명 | 지역 | 사업명 |
|---------------------|-----|-------------------|
| 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 수도권 | 5·18민주시민교육강사 양성교육 |
| 부산울산경남 | 부산 | 민중미술의 지평과 전망 |

| | | |
|--------------------------|------|---------------------------------------|
| 5·18민주유공자회 | | ‘5·18민중항쟁 34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행사’ |
|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 | 근현대사 강사단 양성프로그램 |
| (사) 청춘멘토 | | 2014 부산평화나비콘서트 |
| (사) 청춘멘토 | | 5·18기념재단과 함께 하는 대학생 우리역사 바로알기 정기강좌 |
| 청춘의 지성 | | 5·18대학생 홍보대사 |
| 강과 습지를 사랑하는 상 주 사람들 | 대구경북 | 오월정신을 이어받는 상주사람들의 마음모 으기 |
| 안동 YMCA | | ‘열사여, 민주주의의 등불이어!’ |
| 대구문화연구소 | | 당신의 오월은 안녕하십니까? |
| 대구여성광장 | | 4회 우리동네 민주·평화축제 ‘민주주의 와 평화를 담다’ |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사) 반딧불이 | | 대구청소년 광주역사 자유기행 |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 터 | | ‘오월, 우리도 광주로 간다’ |
|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 리세상 | | 제2회 청소년 역사골든벨 ‘응답하라 7080’ |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 2014 대학생 5·18역사올레 |
| (사)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 충남운동본부 | 대전충남 | 대전지역 민주평화 올레길 만들기 |
| 대전·충청 5·18민주유공자회 | | 찾아가는 대전시민 민주평화교육 |

- 2015년에는 부산 5, 대구경북 6(단체 1 중복), 대전충남 1, 전북 1개의 단체가 13개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2014년과 유사한 형태의 문화제, 기념식을 진행하였으며 5·18왜곡에 대해 리플릿 배포 활동 등의 대응 활동을 진행

<표 33> 2015년 518광역협의회 공동추진 기념사업

| 단체명 | 지역 | 사업명 |
|---------|----|---|
| 나눔수레 | 부산 | 현대사산책 ‘5·18을 찾아가는 우리마을’ |
| 부산겨레하나 | | 부산시민강좌<광복70년, 민주주의와 통일> |
| 부산청년연대 | | 부산2030, 5월의 역사를 만나다 |
| 청춘멘토 14 | | 5·18왜곡 및 폄훼에 관한 리플릿 배포 활동 5·18역사 취재단 |

| | | |
|---------------|--------|----------------------------------|
| 청춘의지성 14 | | 5·18대학생 홍보대사 |
| 대구여성광장 14 | 대구경북 | 5회 우리동네 평화축제 ‘1945~2015시간여행’ |
| 상주 | | 2015 상주 5·18민중항쟁 35주년 기념사업 |
| 안동YMCA 14 | | 5·18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 및 정신계승 안동행사 |
| 우리세상 14 | | 제3회 청소년 역사골든벨 |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14 | | 5·18왜곡 및 폄훼에 관한 리플릿 배포 활동 |
| | | 5·18민중항쟁 35주년 광복70주년 특별대담 및 역사기행 |
| 대전충남협의회 | 대전충남지역 | 5·18민중항쟁 35주년 기념사업 |
| 전북협의회 | 전북 | 5·18왜곡 및 폄훼에 관한 리플릿 배포 활동 |

<표 34> 2016년 518광역협의회 공동추진 기념사업

| 단체명 | 지역 | 사업명 |
|--------------------------|------|--|
| 청춘의지성 (20대들의 희망공동체 대안대학) | 부산 | 5·18 대학생 홍보대사 |
| 디자인3040 | | 역사 시그널 - 80년 광주가 2016년 부산에 민주와 인권으로 말을 걸다 |
| 부산청년연대 | | 부산 청년 2030, 5·18 광주순례 |
| 청춘멘토 | | 5·18 역사 취재단 |
| 부산지역민주동문화연석회의 | | 잊지않기! 행동하기! 민주올레길걷기 |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 역사강좌 - 국가와 국가권력의 폭력, 국민들의 트라우마 |
| 나눔수레 | | 현대사산책Ⅱ ‘우리마을, 80년 광주에서 이어진 민주와 통일을 길을 찾다’ |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학술연구반 | 대구경북 | 5·18 광주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
| 강과 습지를 사랑하는 상주 사람들 | | 오월에서 통일로! 상주시민과 함께 오월의미 세기 |
| 안동시민연대(12단체) | |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 및 정신계승 안동행사 |

| | | |
|----------------------------|------|---------------------------------------|
| 살아있는 근현대사 역사동아리 '역동' | | 대학생 역사학교, 5·18역사기행 |
| 평화통일대구시민연 대 | | 5·18 36주년 인문학 역사교실 |
| 대구여성광장 (외 4기관) | | 우리동네 평화축제 '5월 광주-평화와 만나다!' |
| (사)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충남운동본부 | 대전충남 | 대학생 겨레하나 평화나비 활동 및 평화교육(강 좌4, 기행2) |
| 대전충청5·18민주 유공자회 (외 1기관) | | 민주주의 평화통일 리더십 강좌(4회) |

- 2017~2018년은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보다는 기념식과 문화제 형식의 행사가 주를 이룸

<표 35> 2017년 518광역협의회 공동추진 기념사업

| 지 역 | 사업명 |
|------|------------------------------|
| 서울 |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기념 추모음악회 |
| 강원 | 5·18기념식 및 문화제 - 마을마다 가슴마다 오월 |
| 대구경북 |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 및 시민문화제 |
| 성주김천 |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 및 군민문화제 |
| 부산 | 5·18민중항쟁 37주년 기념식 및 초청강연 |
| 전북 | 주먹밥 나눔으로 5월정신 이어가다 |
| 대전충청 | 5·18민중항쟁 제37주년 대전충청 기념식 |

<표 36> 2018년 518광역협의회 공동추진 기념사업

| 지 역 | 사업명 |
|----------|----------------------------------|
| 부산협의회 | 5·18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 및 5월 문화·예술한마당 |
| 서울협의회 | 5·18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 및 평화음악회 |
| 전북협의회 | 5·18민주화운동 제38주년기념식 및 5월문화제 |
| 강원협의회 | 5·18기념식 및 문화제-마을마다 가슴마다 오월 |
| 대구협의회 | 5·18민주화운동 제38주년 기념식 및 정신계승 시민문화제 |
| 대전·충남협의회 | 5·18민중항쟁 제38주년 대전충남 기념식 |
| 경북협의회 | 5·18민중항쟁 제38주년 기념식 및 군민문화제 |

- 국내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사업은 협력을 통해 오월정신을 확산코자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4년~2018 마을, 소수자, 인권, 해외, 평화, 국가폭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시, 교육, 답사, 구술기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5·18정신을 계승하고자 사업이 진행됨
 - 2014년 8, 2015년 7, 2016년 12, 2017년 14, 2018년 19개 단체가 참여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

- 고 있으며, ‘신명’, ‘민주언론시민연합’ 등과 같이 몇몇 단체는 지속적인 참여를 이룸
- 공동추진은 주로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을 제외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2016년에는 강원도 1, 대전 1, 2017년에는 경북 1곳 등으로 나타남

<표 37> 2014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 공동추진 공모사업

| 2014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 공동추진 공모사업 | |
|-----------------------------------|--|
| 단체명 | 사업명 |
| ·광주시민정책연구소 | 동네를 바꾸는 정책공약-기초의원 모범 정책, 공약집 제작사업 |
|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권익옹호활동 |
| ·홀리스행동 | 인권, 배움으로 맛보다-아랫마을 홀리스 야학 |
| ·생태지평 | 생명과 평화를 논하는 ‘DMZ’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
|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 판타스틱 평화교육 |
| ·김은주(사진작가) | 아르헨티나, 오월광장어머니 |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라오스 문맹, 소수민족 학생과 주민을 위한 재생에너지 교재개발 사업 지원 |
| ·강원사민사회연구원(중기연속) | 지학순 주교와 민주화운동 그리고 원주 |

<표 38> 2015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 공동추진 공모사업

| 2015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 공동추진 공모사업 | | |
|-----------------------------------|----|------------------------------------|
| 단체명 | 지역 | 사업명 |
| 광주전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광주 | 2015년 제3회 대학생 청년평화아카데미 ‘평화 GO함’ |
|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 | 들에 번지는 불처럼 |
| 광주전남작가회의 | | 문학작품으로 읽는 5·18정신 |
| 민주언론시민연합 | 서울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민주화 왜곡을 잡아라 |
| 해바라기 프로젝트 | 부산 | 서울프랑스학교에 5·18민주화운동의 소개와 관련 미술작품 전시 |
|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 | 시민의제콘서트 2016 |
| 지금여기에 | | 국가폭력 피해자 구술기록 프로젝트 |

<표 39> 2016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 공동추진 공모사업

| 단체명 | 지역 | 사업명 |
|----------------|----|------------------------|
| 윤상원기념사업회 | 광주 | 5·18민주화운동과 시민활동 발제와 토론 |
| (사)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 | 한·일교류 합창제(오월을 노래하다) |
|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 | 오월 휴먼라이브러리 |
| 광주전남작가회의 | | 문학작품으로 읽는 5·18정신 |
| 민주언론시민연합 | 서울 | 5·18종편 모니터 및 보고서 발표 |
|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 | 청소년의 5·18민주화운동 바로알기 |
| 해바라기 프로젝트 | | “5·18 in 프랑스 파리” |

| | | |
|-------------------|----|----------------------------|
| 전주YMCA | 전주 | 평화·민주시민교육과 잠들지 않는 남도 |
| 전주대학교 및 한국고전문학연구원 | | 5·18민주화운동 오월길답사 그리고 역사와 치유 |
|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강원 | 5·18기념식 및 거리전시 |
|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 부산 | 민주의 시간:10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
|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 대전 | 평화인권 해설사 육성 프로그램 |

〈표 40〉 2017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 공동추진 공모사업

| 단체명 | 지역 | 사업명 |
|-----------------|----|---------------------------------|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 전국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5·18역사캠프 |
| (사)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 광주 | 합수 윤한봉 10주기 심포지움 |
| 놀이패 신명 | | 오월정신계승 학교순회공연 -언젠가 봄날에- |
|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 | 교정에 올려퍼진 그날의 함성 |
| 광주전남작가회의 | | 문학작품으로 읽는 518정신 |
| (사)광주민예총 | | 2017오월국제교류합창제 및 토론회 |
|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민주원로초청간담회 |
| (재)아시아커뮤니티문화재단 | | 한국-베트남 인권평화증진 교류사업 |
|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 강원 |
| 안동YMCA | 경북 | 5·18민주화운동 37주년기념 및 정신계승 안동행사 |
| 서강대학교 의기제 | 서울 | 2017년 의기제 |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 5·18정신 훼손과 지역감정 조장 종편 방송감시 |
| (사)청춘멘토 | 부산 | 5·18광주민주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교훈 강연회 |
| 디자인 3040 | | 5·18정신계승 민주시민을 위한 기획강좌, 캠페인&워크숍 |

〈표 41〉 2018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 공동추진 공모사업

| 단체명 | 사업명 |
|----------------|-------------------------------|
| The 1904 | 허철선과 5·18정신 |
| 공연예술창작터 수다 | 대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오월정신계승뮤지컬 <비망> |
|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 한글서예와 영상전 [님을 위한 행진곡] |
| 광주서석고 제5회 동창회 | 1980년 광주서석고 3학년생들의 5·18체험담 기록 |
|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 5·18과 6월항쟁 기념사업의 현황과 과제 |
| 광주·전남작가회의 | 문학예술작품으로 읽는 5·18정신 |
| 놀이패 신명 | 찾아가는 오월극장 ‘언젠가 봄날에’ 마당극 공연 |
| 동작공동체라디오 | 우리 동네 동작구에서 다시 부르는 5월의 노래 |
| 들불열사기념사업회 | 교정에 올려퍼진 그날의 함성 |

| | |
|-------------------|---|
| 목요사진 | 목요사진 “SOS풍경 ii ” (사진작품, 영상 설치) 전시 |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제38주년 5·18민중항쟁 기념식 및 기념사업 |
| 살레시오고등학교 | 5·18광주 민주화항쟁 기념행사 |
| 서강대 제38주기 의기제 기획단 | 제38주기 의기제 광주기행 |
|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청소년과 함께하는 역사교육네트워크 - “우리 모두 함께” |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518 역사캠프 |
| 청춘멘토 | 18학년 새내기들을 위한 <5·18 광주민주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교훈> 대중강연회 |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5·18 38주년 인문학 역사교실 |
| 풍물마실 | 오월의 진실, 그 날은 다시 살아! |
|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 한반도 평화 토론회 |

□ 국제교류 및 연대사업의 분석 및 시사점

○ 광주인권상

- 아프리카에서 예술로 사회운동을 이끈 2017년 특별상 수상자인 세르지 밤바라를 제외한 수상자들이 아시아 지역의 국가 폭력에 대항한 민주주의, 인권 활동가, 단체들임. 광주 인권상의 취지인 인권, 인류 평화 등에 부합한 인사들이나 5·18정신의 확장과 광범위한 국제적 연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수자, 이주자, 여성 등 다양한 이슈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인권상 시상이 요구됨
- 수상자 선정 절차는 2017, 2018년 기준으로 크게 후보자 접수→사전검증→수상자 검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 검증위원으로 2017년 5인, 2018년 3인, 수상자 검증은 2017년 5인, 2018년 3인으로 사전 검증위원과 수상자 검증에서 2인이 동일

○ 광주아시아포럼

- 2014년~2018년 광주아시아포럼은 마을, 청년, 풀뿌리 지원 등의 주제를 통해 변화를 도모하기도 했으나 주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인권 등 5·18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주제와 기존의 5·18기념재단이 축적해 왔던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방식의 포럼을 진행
- 5·18 국제교류연대를 주도했던 기념재단의 아시아포럼과 광주광역시 주최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인권, 국가폭력, 트라우마

우마, 네트워크 등 내용, 키워드 측면에서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을 확인

- 반면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인권’ 과 ‘도시’ 에 대해 이를 구성하는 주체들과 정책의 관점에서 제도적 측면의 정책에 주안점을 둔 포럼을 개최해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는 아시아포럼과 차별성을 둬, 또한 2016년부터는 5월이 아닌 하반기로 시기를 이동해 포럼을 진행

<표 42> 세계인권도시포럼 경과

| 개최 시기 | 주제 | 내용 및 구성 |
|-------------------|--|--|
| 2014. 5.15~18 |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들의 전지구적 연대(Towards a Global Alliance of Human Rights Cities for All) | 도시, 환경, 인권, 어린이, 청소년, 장애, 국가폭력, 도시권 등 주최: 광주광역시 공동주관: 광주국제교류센터, 한국인권재단,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 |
| 2015. 5.15~18 |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들의 전 지구적 연대 II (Towards a Global Alliance of Human Rights Cities for All II) | 인권, 국가폭력, 트라우마, 사회적경제, 장애, 이주민, 어린이, 청소년, 환경, 여성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광주국제교류센터 |
| 2016. 7.21~24 |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서브주제 키워드 : 도시발전, 주거, 환경 | 도시, 환경, 여성, 장애, 인권, 노인, 주거, 사회적경제, 도시정책, 교육 등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광주국제교류센터, UCLG-CISDP |
| 2017. 9.14~17 |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서브주제 키워드 : 인권도시와 민주주의 그리고 실천 | 도시, 인권, 노인, 어린이, 청소년, 이주민, 난민, 환경, 국가폭력, 사회적경제 등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광주국제교류센터, UCLG-CISDP 협력주관: UNITED NATIONS, 한국인권재단, Infid, 5·18 기념재단, |
| 2018. 10.18~21 |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 도시, 인권, 노인, 어린이, 청소년, 이주민, 난민, 환경, 국가폭력, 사회적경제, 해외사례(터키), 공무원 네트워크 등 주관 : UCLG-CISDP, 광주전남연구원, 광주국제교류센터 |

○ 인재양성

- 인재육성은 교육과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념재단의 교류연대 사업 초기

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단기간의 파견과 연수, 교육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해외 인턴 파견은 2001~2016년까지 총 15개국 122명이 파견되었고, 2017년은 3명이 선발되었으나 1명이 2017년 6월~2017년 10월까지 5개월 동안 파견, 중도 귀국 등 실효성과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8년 이후 사업 종료
- 국제인턴 채용은 기념재단의 국제 네트워크의 연속성과 확장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약 10개월이라는 활동 기간 동안 국제 네트워크 단체 관리, 영문 웹진, 영문 웹사이트 관리 등 기념재단 업무 지원에 한정돼 있음
- 5·18아카데미와 윈터스쿨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시민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위해 약 2주 동안 진행되는 일반 강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구성됨에 따라 국내의 단체, 활동가들과의 교류·협력의 장은 부족한 실정임
- GNMP는 국내, 국외 활동가들이 대상인 대학원 과정이지만 현재까지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은 국외 활동가들로 한정돼 있음

○ 국제연대

- 2016년부터 독일, 네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 진행된 국제사진전과 국외 네트워크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행사 참가 등은 5·18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지속하는 수단이나 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
- 2015년부터 아시아 각 나라의 긴급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거점회의는 2018년 <아시아인권현장>을 보완·개정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관련 개인, 단체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제연대부의 인력과 예산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상황임
- 웹진은 5·18과 기념재단을 국제에 알리는 주요한 홍보 수단 중의 하나로 2014년까지 발행되었던 ‘아시아저널’이 중단되고 2015년 2회, 2017년, 2018년 4회가 발행되었으나 발행 시기가 일정치 못하며 주로 5·18광주민중화운동과 기념재단의 사업이 주 내용임

○ 국내연대

- 국내연대 사업의 중심으로 ‘국내시민사회단체와의 5·18정신계승사업’과 ‘518광역협의

회 사업' 임

- 국내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추진 사업은 국내연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주요 사업이나 대부분 광주의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사업의 범위가 시기적으로는 5월에, 지역적으로는 광주 등 호남지역에 국한돼 있음
- 518광역협의회 사업은, 2014~2016년 사업의 경우 주제나 형식에서 518의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나 2017년 이후는 기념식, 문화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국내시민사회단체와의 5·18정신계승 공동추진 사업은, 내용이나 형식에서 다양해지고 사업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몇몇 단체가 계속해서 참가하고 있으며 주로 단발성 위주의 사업으로 제한돼 있음

□ 소결

- 기념재단의 주요 성과로 평가 받는 국제교류 및 연대사업은 연대의 확장과 경험의 축적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발전 방안(「5·18기념재단 사업 및 조직진단 컨설팅」,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보고서」, 「재단 20년사」)에서 지적된 전문 인력 및 예산의 부족, 교류연대 대상의 협소, 유사기관들과의 사업 중복, 제도적 고착화 등의 한계가 여전함
- 국제교류 연대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충과 배치, 직원 역량 강화, 조직 개편, 내부 사업추진체계의 정비 등의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기념재단의 국제교류 연대 사업의 목적 및 방향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며 국제사업 네트워크와의 연대 및 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해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최근 광주광역시가 주관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 기록관,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등의 유사기관들이 5·18을 주제로 한 교류연대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제 교류연대사업의 참여 주체와 내용의 다양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 내용 면에서 사업의 중복성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기념재단의 국제교류 및 연대 사업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그것에 비해 예산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재단 내 전담부서 및 실무인력의 여건 개선은 부족함에 따라 국제교류 업무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사업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4. 학술 및 연구

1) 학술연구 및 연구지원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과

□ 5·18 학술연구의 의의

- 5·18과 관련한 기록을 발굴·생산하고 보존하는 일은 곧 역사를 형성하고 기억을 보존하며, 기념의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5·18 관련 자료의 수집과 발굴 및 보존은 그 역사적 의의와 평가를 정당하게 내리기 위한 학문적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기념재단은 진실조사사업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5·18과 그 밖의 현국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관련한 기록들을 발굴·조사하고, 수집한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고자 노력해왔다. 또 5·18기록물의 해제와 분석, 검증을 통해 5·18에 대한 정리와 미해결 5·18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5·18의 폼페이·왜곡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그 결실로서 공안당국의 탄압을 극복하고 보존·관리한 5·18기록물은 학문적 연구와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 관철로 그 가치가 평가되었고, 마침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재단 20년사〕

□ 학술연구사업의 개요 및 경과¹⁵⁾

- 학술사업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지칭하며,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학술 연구와, 지자체와 5·18기념재단 및 기타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술 용역과 학술 행사들을 포함하고 있음
- 5·18학술사업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현재화하고, 5·18민주화운동의 객관적 진실의 창현과 5·18정신과 가치에 대한 재전유를 통해 5·18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시민의 삶속으로 내재화할 책무가 부여됨
- 5·18학술사업은 5월 항쟁이후 5월 운동의 차원에서 항쟁의 전 과정을 일지형식으로 정리하고 시민들이 체험했던 항쟁의 경험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출판 작업과 영상·사

15) 학술사업의 배경과 개요 및 전개과정은 최정기(2009)의 논문을 참조해 정리한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보고서」 내용을 참조.

진 자료집 발간으로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학술사업은 1988년 한국현대사료연구소(이하 현사연)가 설립되고 현사연이 전남대학교 학내 연구소로 자리 잡고 5·18기념재단이 출범하면서 5·18연구를 위한 기초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 학술연구의 흐름을 중심으로 과거 재단 학술사업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980년대]

- 1988년 5·18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학술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현사연이 설립되기까지는 ‘침묵의 시기’로 이 시기는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 때문만이 아니라 5·18로 인해 만들어진 희생과 고통, 분노 등의 감정이 얽히면서 학술연구를 수행할 정도로 5·18을 객관화하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학술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침묵의 시기에는 5월 운동이라는 저항의 큰 흐름에서 향후 학술연구의 토대가 되는 소중한 자료들이 수집 발간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광주지역의 사회운동세력들이 힘을 모아 항쟁의 전 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하고 황석영이 감수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출간』(1984년)과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진실규명운동차원에서 1985년 발간한 사진첩『5월 그 날이 다시오면』과 유인물 묶음 『5·18광주의거 자료집』을 들 수 있음

[1990년대]

- 1988년 발족한 현사연이 1996년 전남대학교 학내 연구소로 자리를 잡고 비슷한 시기에 5·18 기념재단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5·18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의 연구는 5·18의 진실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모색하는 방향에서 추진됨
- 진실을 규명하려는 학술연구의 성과는 현사연에서 만들어낸 『5·18민중항쟁사료전집』(1990)과 전남사회문제연구소가 발간한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이 있음, 특히 사료전집은 2년에 걸친 구술채록 끝에 발간된 사료전집은 향후 5·18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됨
- 역사적 의미를 모색하는 작업은 지역외부의 진보적인 저명인사들이 학술대회 등을 통해 5·18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1989년 광주민중항쟁9주년을 기념하여 현사연이 주최한 학술대회 ‘5·18광주민중항쟁과 한국민족민주운동’이 시초가 되었으며, 5·18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도 본격화되었음
-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상진(1998)과 최정운(1999), 정근식(2000)을 들 수 있는데, 한상진과 최정운은 극심한 폭력 하에서 형성된 투쟁자체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승인투쟁 혹은 절대적 공동체로 개념화했으며, 정근식은 5·18을 세계의 국면-저항, 공동체의 형성, 자기희생-으로 구별하면서 항쟁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자기희생의 국면의 중요성을 강조함

[2000년대]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및 5·18의 보편화를 시도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가장 활발하게 5·18연구가 진행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5·18연구의 보편화를 추구한 결과 연구의 주제가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의 문제들로 인식이 확장되었으며 공간적으로도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5·18연구의 범위가 확장된 시기임
- 이 시기에 5·18연구를 주도한 기관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지만, 그 외에도 광주시청과 5·18기념재단이 각종 지원 사업을 배경으로 다양한 5·18연구 동을 주도하면서 5·18연구자가 수적으로 크게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5·18과 관련된 연구물이 양산됨
-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된 5·18관련 학술논문(5·18연구소 학술대회 발표 논문, 민주주의와 인권 수록 논문, 5·18기념재단 연구지원사업목록, 각종 학회지 및 학술회의 발표집, 석·박사 학위논문)의 색인 분석에 따른 ‘시기별 발표 논문 수’ 에서 확인되듯이, 2000년대 중반인 2005년 이후부터는 5·18연구 논문의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2000년대 후반 5·18연구 논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기 발표된 논문의 상당 부분은 5·18기념재단의 연구지원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최정기, 2009), 2000년대 후반 5·18기념재단의 연구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5·18학술연구의 논문 편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민주주의와 인권』에서도 확인되는데 게재된 5·18연구 논문이 ‘2006년 4편, 2007년 5편, 2008년 7편, 2009년 5편, 2010년 6편, 2011년 5편, 2012년 4편, 2013년 7편, 2014년 3편’ 등으로 특정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5·18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의미하는 5·18주제 석·박사 학위논문 배출의 경우 전국적으로 ‘2010년 3편, 2011년 5편, 2012년 2편, 2013년 4편, 2014년 5편’ 등 총 19편에 그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박사논문은 3편에 불과함

<표 43> 시기별 발표 논문 수(1989~2008년)

| 연도 | 빈도 | 비중(%) | 연도 | 빈도 | 비중(%) |
|------|----|-------|------|----|-------|
| 1989 | 3 | 1.3 | 1999 | 6 | 2.7 |
| 1990 | 9 | 4.0 | 2000 | 6 | 2.7 |
| 1991 | 5 | 2.2 | 2001 | 41 | 18.1 |
| 1992 | 1 | 0.4 | 2002 | 17 | 7.5 |
| 1993 | 0 | 0 | 2003 | 19 | 8.4 |
| 1994 | 2 | 0.9 | 2004 | 21 | 9.3 |
| 1995 | 4 | 1.8 | 2005 | 21 | 9.3 |
| 1996 | 6 | 2.7 | 2006 | 8 | 3.5 |
| 1997 | 16 | 7.1 | 2007 | 16 | 7.1 |
| 1998 | 9 | 4.0 | 2008 | 16 | 7.1 |

□ 학술연구지원사업의 배경 및 개요

- 설립 이후 5·18기념사업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기념재단은 2005년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아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기념재단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우수한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5·18정신을 구체화시키고 전문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를 발굴 및 육성할 목적으로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함
- 이를 위해 기념재단은 학술연구사업 관련 위원회(학술연구위원회[2005]→학술연구기획위원회[2007]) 등 산하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학술연구지원정책의 생산 및 집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결정해왔음
- 현재 기념재단의 학술연구지원 사업은 크게 5·18관련 학술 및 연구 용역, 학술연구논문 지원, 소규모연구회 및 공부모임 지원, 신진연구자 지원, 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음
- 2011년 진술조사팀 신설. 연구역량 및 전문연구자 부재로 왜곡 이슈 대응 및 DB 정리에 치중
- 2015년 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진실조사업무가 연구소로 흡수됨

□ 재단 연구소(학술연구) 업무 분장과 조직

〈표 44〉 2018.12월 재단연구소운영규정에 따른 업무

| | | | |
|---|--------------------------|---|-------------------------------|
| 1 |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사업 | 5 | 관련 연구보고서 등 출판 및 학술대회 개최 |
| 2 | 5·18민주화운동의 학술연구사업 | 6 |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교류 협력사업 |
| 3 | 5·18민주화운동의 왜곡대응사업 | 7 | 5·18기록정보관의 관리(개정 2018. 3. 22) |
| 4 | 5·18민주화운동 이후의 계승투쟁 정리 사업 | 8 |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 설립 이후 연구소는 진상규명, 왜곡대응, 정신계승, 기록물 관리, 학술연구 지원 사업 등 역할을 수행. 기념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책생산의 기능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조직 및 인적 구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표 45> 재단 연구소의 인적 구성과 담당업무

| 이름 | 직책 | 담당업무 |
|-----|----|---|
| ○○○ | 실장 | 연구소 업무 총괄 |
| ○○○ | 부원 | 재단 소장기록 관리, 자료실 운영 및 관리, 자료DB화, 기록 수집 및 기증 대응, 기록 열람·제공 |
| ○○○ | 부원 | 학술연구사업, 출판 및 학술대회 개최, 연구기관 및 단체의 교류 협력사업 |

2) 기존 사업의 분석 및 진단

□ 여론조사를 통한 5·18학술연구에 대한 기존 평가¹⁶⁾

○ 기존 5·18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서베이 리서치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1~2015)간의 학술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련된 질문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5·18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 26.6%, 보통이다 54.0%, 그렇다 19.5%로 응답하여, 보통이라는 판단 유보적 입장이 가장 높은 가운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가 5·18단체(32.2%), 학계(30.4%), 시민사회단체(30.0%), 공공기관(19.3%) 순으로 나타남
- ‘5·18연구는 양적으로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 31.0%, 보통이다 50.4%, 그렇다 18.7%로 응답했으며,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8단체(40.3%), 시민사회단체(31.3%), 학계(30.4%), 공공기관(25.0%) 순으로 나타남
- 한편 ‘5·18연구는 질적으로 수준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34.7%, 보통이다 51.4%, 그렇다 13.9%로 나타나 양적연구에 비해 질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는 더욱 낮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경우 5·18단체(39.7%), 시민사회단체(38.0%), 학계(30.4%), 공공기관(32.2%) 순으로 조사됨

16) 기존 학술연구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는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2016) 내용을 참조.

○ 5·18학술연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

- ‘자료가 부족하고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 21.4%, 보통이다 37.9%, 그렇다 40.7%로 응답했는데,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5·18단체(50.9%), 시민사회단체(42.5%), 공공기관(36.6%), 학계(26.0%) 순으로 나타나 5·18단체의 경우 부정적 의견 높은 반면에 학계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낮음
- ‘5·18 학술연구의 현실적 여건(재정 지원 등)이 열악하다’ 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 7.9%, 보통이다 27.7%, 그렇다 64.4%로 나타나 재정 지원 등의 현실적 여건이 열악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별 차이를 보면 열악하다는 의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76.3%), 5·18단체(70.2%), 학계(69.5%), 공공기관(58.0%) 순으로 응답함
- 5·18학술연구의 현실적 여건이 열악하다는 의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학계의 경우 그렇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다른 집단에 비해 동의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연구소재가 고갈되었다고 생각한다’ 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 47.1%, 보통이다 32.7%, 그렇다 20.3%로 응답했는데,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공공기관(25.0%), 시민사회단체(21.5%), 5·18단체(17.5%), 학계(4.3%) 순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경우 연구소재가 고갈되어 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에 5·18학술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학계는 상대적으로 동의의 정도가 낮게 나타남

○ 5·18학술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

- ‘5·18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는 질문에 대해 5·18자료 발굴과 공유(26.8%), 새로운 5·18연구 주제의 발굴(23.6%), 충분한 재정지원(16.4%), 학문 후속세대 양성(16.4%), 연구자들의 교류와 협력(12.4%), 연구자들의 헌신적 노력(4.0%) 순으로 나타남
- 5·18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5·18자료 발굴과 공유’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새로운 5·18연구 주제의 발굴’ 이 두 번째 우선 순위로 선택되었는데,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학계는 충분한 재정지원을 거론하여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음

○ 소결

- 학술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5·18연구가 다양한 학문분야는 물론 양적·질적으로 풍부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 5·18학술연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 5·18학술연구의 현실적 여건(재정지원 등)이 열악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소재가 고갈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낮았음
- 5·18학술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 5·18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5·18자료 발굴과

공유, 새로운 5·18연구 주제의 발굴, 충분한 재정지원, 학문 후속세대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됨

□ 2018년 재단 연구소 중장기 전략 및 실천 방향에 대한 검토

○ 학술연구사업

- 사업 방향

- 학술대회, 학술논문지원, 연구용역을 통한 5·18연구기반 구축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5·18연구와 학술대회 병행, 성과물 학술집 발간
- 진상규명 등 5·18 과제에 대한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 통해 연구기반 구축
- 5·18진상규명특별법시행에 따른 이슈 대응 집담회, 세미나 진행

- 세부 계획

- 학술대회: 2019년 5·18 40주년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추진 예정.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사전 논의를 통해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1년 전부터 내용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진행
- 논문지원: 조선대, 전남대와의 연간 지원 사업 유지, MOU체결 단체 이외에 개별적으로 논문 선발 방법 고려, 시민사회단체, 대학 학부, 석·박사 단위의 소규모 연구 지원모색
- 대학교재: 2019년 자문 및 편집과정 완료 후 출판 예정, 활용 방안 및 지속적 홍보 진행, 활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하여 필요시 보완
- 연구용역: 안정된 사업기간을 갖고 준비, 구체적인 주제 및 사업 내용 선정
- 구술 및 학술집 발간: 『구술생애사 5·18의 기억과 역사』 9권 출판 예정. 『5·18연구의 현황』 2 발간 예정(2006~2019년 기간)

→ 학술연구지원사업의 방향성을 보다 선명하게 하는 가운데, 기존 사업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향후 추진될 사업이 재단 학술연구의 비전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5·18정신의 현재화와 세계화, 새로운 세대의 참여와 신진 연구자의 육성 등과 같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2019년 학술대회를 별개의 행사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2020년 40주년 학술행사의 의제 및 기조를 만들어가는 사전 준비 단계로 접근해서 기획·실행하는 방안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기록물 수집 및 기념사업자료 DB화

- 사업 현황

- 기록보유 현황: 약 34,000여건의 기록 소장, 5·18관련 기록, 재단 기념사업 문서, 일반 문서로 구성
 - 5·18기록정보관 현황: 연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고 기간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없어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짐
 - 기록 보유 관련: 전수조사 실시 후 기록 보유 현황 파악 및 부정확한 목록 정보를 보완
 - 관리 관련: 기록 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해 기록관리 효율성 향상
 - 서비스 관련: 절차와 양식을 구비하고 창구를 단일화하여 서비스 요청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중장기 계획
- 소장기록 정리 사업 실시: 소장기록 전수조사(디지털 변환 과정 제외한 나머지 전체 정리 사업), 디지털 변환 실시, 시스템 업로드, 컬렉션 별 기록 등록, 기념사업 문서 등록
 - 2020년 기록물 전시: 우리 재단 기록의 독자성 부각, 5·18 40주년과 비엔날레 연계 고민
- 재단 소장 기록물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임시채용을 통해서라도)인원 충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당위적 필요성만 강조할 뿐 실제 정리 사업을 수행할 구조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면 실행 불가능함. 동시에 전문가 컨설팅이나 용역 발주 등을 통해 기록물 조사 및 관리 매뉴얼을 리뉴얼(renewal)할 필요가 있음. 틀 자체에 대한 정비를 통해 기록물 정리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소장 5·18 기존 기록물·자료 전수조사 및 DB작업 우선. 내부 기록관리자와 외부 연구전문가를 통해 소장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고 연구자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유사기관 네트워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제주 4·3연구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전남대 5·18연구소,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등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학술연구와 기록관리 활용 공유
- 협력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분명한 자기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립을 전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5·18학술연구 및 기록 관리 전반에 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 직원 역량 강화

-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
- 기록과 학술 관련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

3) 학술연구 및 연구지원사업의 현황(2014~2018년)

□ 2014~2018년 학술연구 및 지원사업의 현황¹⁷⁾

<표 46> 2014~2018년 학술연구 및 지원사업의 현황

| 연도 | 구분 | 연구과제 | 연구자 |
|------|--------------|--|--|
| | 연구용역 | 5·18기념재단 창립20주년기념 20년사발간연구 용역 | 전남대학교 5·18연 구소 |
| | 논문연구지원 | 매체서사(media narrative)로서의 5·18과 집합 기억의 재현 | 주재원(동의대) |
| | | 세대균열과 5·18에 대한 집합기억 | 허석재(목포대) |
| | | 5·18과 시민주도적 자치공동체: 『오월의 사회 과학』의 ‘절대공동체’ 논의를 중심으로 | 서유경(경희 사이버대) |
| 2014 | 학술대회 개최지원 | 5·18기념재단 창립 20주년기념 학술대회 및 학 술논문집 발간 「광주 5·18 민중항쟁의 성과와 역사적 위상」 (안병욱, 가톨릭대) 「자스민 혁명과 아랍 민주주의의 미래」(이희수, 한양대) 「동유럽 민중운동과 사회주의권 붕괴」(정재원, 국민대) 「5·18이후 동아시아 민중운동」(이창언, 성공회 대) 「1979~87년 민주화운동과 군중의 동향」(이재유, 건국대) 「열흘간의 항쟁 체험과 시민의식의 변화」(김희 송·최정기, 전남대)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시민참여를 중심으로」(지 주형, 경남대) 「보수세력의 5·18광주항쟁 타자화」(배성인, 한 신대) | 5·18기념재단 |
| | | 5·18민주화운동 제3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5·18과 언론-민주주의와 ‘기억의 장’ 에 대한 성찰 | 5·18기념재단 |
| | | 시민 참여 행정과 시민자치 공동체 학술대회 | 5·18기념재단, 한국NGO학회 |
| | | 부마민주항쟁 35주년 기념학술대회: “부마에서 광주로” | 5·18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 업회 민주연구단체협의회 |
| | | ‘님을 위한 행진곡’ 학술세미나 | 5·18기념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 | | 5·18 왜곡편해 대응을 위한 지역내 학회 공동 | 5·18기념재단 |

17) 이 기간 학술연구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은 5·18기념재단의 업무 일지 및 내부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 | | | |
|-----------|---|---|-------------------------------|
| | | 학술세미나: 글로벌시대와 호남발전의 과제 | 호남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호남정치학회 |
| 2015 | 연구용역 | 5·18서울기념사업회의 오월운동 구술기록 조사 및 수집 용역 | 임왕택, 5·18서울 기념사업회장 |
| | | ‘상황일지 해제’ 용역 | 노영기, 조선대 |
| | | ‘5·18특별법 제정 20주년 구술기록 수집·연구’ 용역 | 정호기, 전남대 |
| | | ‘오월음악가 구술기록 조사 및 수집’ 용역 | 이은아, 광주문화예 술서비스센터 |
| | | ‘불교계 5·18민주화운동 구술기록 조사 및 수집’ 용역 | (사)광주연구소 |
| | | 5·18민중항쟁 기록물의 협력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 김익한, 한국국가기 록연구원 |
| | | 넘어넘어 개정판 발간을 위한 DB자료 집필용역 | ‘넘어넘어’ 증보 판 간행위원회 |
| | | 5·18웹툰 사례조사 연구용역 | 박경철(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 | | 김영철 유고집 정리 및 집필용역 | 전용호, 소설가 광 주스토리텔링작가 협회장 |
| | 논문연구지원 | 사진은 어떻게 진실을 드러내는가: 광주항쟁 속에서 언론사진의 목격자역할(Bearing Witness)을 중심으로 | 김상덕 |
| | | 아우슈비츠 부인에 대한 독일형법의 대응 | 김재운 |
| | | 5·18왜곡의 현황과 실제: 지만원 사례를 중심으로 | 유경남 |
| | | 2012년과 2015년 민주화혐오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 대구지역 시민단체 5·18혐오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 장지은 |
| | | 반인도범죄 부인과 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 연구: 독일 및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명순·박학모 |
| | | 5·18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통일조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 최양근 |
| | 소규모연구회·공부모임지원 | 학술세미나: 지금 여기 5·18 |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철학과 |
| | | 소규모 연구활동: “5·18교육연구 1, 2차 학술 집담회 | 5·18기념재단 |
| 학술대회 개최지원 | 5·18 35주년 기념 학술대회: 5·18의 진실과 민주적 가치의 수호 | 5·18기념재단 | |
| | 역사바로세우기 20주년 학술대회 | 5·18기념재단 | |
| | 부마민주항쟁 개요 및 부산지역 5·18운동 전개 학술대회 및 전시 | 5·18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 업회 민주연구단체협의회 | |
| 2016 | 연구용역 | 5·18대학교재 집필 연구용역 | 은우근(연구책임자) 광주대학교 산학협 력단 |
| | | 『5·18정사』 편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전남대학교 산학협 력단 |

| | | | |
|---|---------------|--|-------------------------|
| | | 5·18국민성금 및 상무대 등 무상양여지 사업 경위 및 쟁점 연구용역 → 관련자료 미확보로 인한 미완수 | 김희승 (전남대 5·18연구소) |
| | |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 구축 연구용역 |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
| | | 5·18민주화운동 웹 교육자료 개발 용역 사업 | (주)포디자인 |
| | 소규모연구회·공부모임지원 | 제11회 5월 학술세미나 “민중들의 민주화” |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철학과 학생회 |
| | | ‘역사 해석과 역사 왜곡’ 학술 세미나 | 5·18기념재단 |
| | 학술대회 개최지원 | 36주년 학술대회: 5·18과 역사를 둘러싼 정치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 2016년 여순사건 68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여순사건 새로운 모색과 시작 | | 5·18기념재단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 |
| 2017 | 연구용역 | 5·18우수 학술논문 지원 사업 업무제휴협약 체결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와 문학적 항쟁: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가 놓인 자리」(김미정) 「기억과 증언, 그리고 새로운 저널리즘의 시도」(박진우) 「누구의 경험으로서 들을 것인가: ‘집단지결’과 증언」(심정명) 「무젤만과 증언의 윤리: 아감벤의 오리엔탈리즘」(임경규) 「레비나스와 증언의 딜레마: 한나 아렌트와 프리모 레비를 경유하여」(이은정)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 | | 오월민중미술사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 부국문화재단 |
| | | 5·18 우수 학술논문 지원 사업: 전남대 5·18연구소 정기 집담회 지원-5·18연구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집담회-5·18연구의 쟁점 및 방향 모색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 | 학술대회 개최지원 |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20주년 학술대회: 사법판결과 정치적 사면에서 본 한국 민주주의의 현 단계 | 5·18기념재단 |
| | | 광주다이어리 발간 기념 UN 5·18국제학술대회: “광주 다이어리 민주주의와 집단기억(Gwangju Diary: A Collective Memory of Democracy and Freedom)” | 5·18기념재단 |
| | |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 한국서양사학회·5·18기념재단 공동학술회의 개최: 역사 속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 | 5·18기념재단 한국서양사학회 |
| 2018 (11월 현재) | 연구용역 | 5·18우수 학술논문 지원 사업 업무제휴협약 체결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 | | 5·18우수 학술논문 지원 사업 업무제휴협약 「공동체 만들기의 정치: 이념, 담론, 실천」(박경섭) 「네이션 안에서 네이션을 벗어나기: 『상상의 공동체』를 둘러싼 물음들」(이영진)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 | | | |
|-----------------------|--|---|-------------------|
| | | 「1980년대 “죽음”의 재현양상 연구」(강소희) 「임철우 초기 중·단편 소설 연구」(김주선) 「내전과 현대 민주주의 상황」(김향) | |
| | | 오월민중미술아카이브 구축 사업(1차) 용역 5·18기념사업 및 5·18기념재단 발전방안 연구 용역 | 전남대학교 5·18연 구소 |
| 소규모연구회 ·공부모임지 원 | | 5·18과 여성 성폭력 학술세미나 | 5·18기념재단 |
| | | 505보안부대 1차 집담회: 1980년 당시 505보안 부대의 조직화 활동, 그리고 증언 | 5·18기념재단 |
| 학술대회 개최지원 | | 5·18민주화운동 38주년 및 광주청문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 5·18기념재단 |
| | | 5·18기념재단 국제학술대회: 횡단하는 5·18, 세대와 경계를 넘어 | 5·18기념재단 |

4)

최근 5년간(2014~2018) 학술연구 및 지원사업의 분석 및 진단

□ 학술대회 분석 및 진단

[2014년]

〈표 47〉 5·18민주화운동 제3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5·18과 언론: 민주주의와 ‘기억의 장’에 대한 성찰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주제 발표 1 | 역사적 고통의 재현: 관람행위 (spectatorship)로서의 5·18기억하기와 소 비하기 | 주재원 |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
| 주제 발표 2 | 사이버공론장에서의 5·18담론과 그 변화: 일베저장소를 중심으로 | 김학준 · 정근식 | 서울대 사회학과 |
| 라운드테이블 | 5·18과 한국 언론 | 사회: 강상현 패널: 고승우 구길용 김세은 김주명 안영춘 정필모 |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광주전남기자협회장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CBS해설위원장 월간 <나·들> 편집장 KBS 논설위원 |

**<표 48> 5·18민주화운동 제3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5·18민주화운동과 오월운동, 그리고 그 현재성**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1부 영남·호남 지역에서의 5·18과 오 월운동 | 5월 운동과 1980년대 대구 학생운동 | 김상숙 | 고려대 강사 |
| | 5·18항쟁과 부미방사건: 문부식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 차성환 | 부산대 사회교육연구소 연구교수 |
| | 5·18이 전북지역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과 특성 | 김수돈 | 열린전북 기자 |
| 2부 공동체운동의 이론적 모색 | 봉기와 애도: 5·18과 세월호 사이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다 | 한보희 | 연세대 비교문학 강사 |
| | 한 현대농촌일기에 나타난 촌락사회의 계조식과 공동체 원리 | 안승택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
| | 공동체의 경계와 여백에 대한 탐색: 공동체를 다시 사유하기 위하여 | 김형주 | 전남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
| | 79·80 항쟁 이후 공동체 되기 | 유경남 | 전남대 사학과 박사수료 |

<표 49> 시민참여 행정과 시민자치 공동체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주제발표 1 | 5·18과 시민주도적 자치 공동체 | 서유경 | 경희사이버대 교수 |
| | 5·18과 지방의제 21: 저항에서 거버넌스로 | 이창언 | 성공회대 연구교수 |
| 주제발표 2 | 5·18정신과 마을 자치 공동체 | 김성균 | 성결대 교수 |
| | 5·18과 공공인재 육성을 위한 시민교육 | 이정옥 | 대구가톨릭대 교수 |

**<표 50> 5·18기념재단 창립 2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민주주의와 대중의 역할**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제1세션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 One Past. Two Futures: Human Rights in East Asia | Jennifer M. Lind | Dartmouth College, USA |
| | Possibility of Northeast Asian Community and Peace in the Region | TAGA, Hidetoshi | Waseda University, Japan |
| 제2세션 5·18민주화 운동과 지구 적 공감 | 자스민혁명과 아랍민주주의의 미래 | 이희수 | 한양대 |
| | 5·18민주화 운동 체험과 시민의식의 성장 | 최정기 | 전남대 |
| | 5·18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와 시민의식의 변화 | 배성인 | 한신대 |

〈표 51〉 부마민주항쟁 35주년 기념학술대회: 부마에서 광주로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제1부 | 부마민주항쟁과 운동의 주체 | 차성환 | 정치학 박사 |
| | 부마민주항쟁과 민주화운동 | 이은진 | 경남대 교수 |
| 제2부 |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와 시민주권 | 김형태 | 법무법인 덕수 대표 변호사 |
| | 과거사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 | 이영일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 제3부 | 부마에서 광주로 | 나간채 | 전남대 명예교수 |

〈표 52〉 ‘님을 위한 행진곡’ 학술세미나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1부 | ‘님’에 대한 고찰 | 정근식 | 서울대 사회학과 |
| | 5·18민주화운동 관련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 민병로 | 전남대 법학과 |
| 2부 | 종합토론 | | |
| 3부 | 5·18 당시 방송관련자 조사결과 발표 | 5·18 기념재단 | 5·18 기념재단 |

〈표 53〉 5·18왜곡편취 대응을 위한 지역내 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 글로벌시대와 호남발전의 과제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1부 호남 정치 연구의 방향 모색 | 북중동맹에 관한 소고 | 김순옥 | 전남대 |
| | 중국의 성과관리제도 | 소 의 | 전북대 |
| | 국회의원 재공천 요인 분석 | 소호영 | 전북대 |
| | 선거 관련 규제 및 처벌의 제도적 변화 | 박정민 | 조선대 |
| 2부 5·18정신과 호남정치 |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 그리고 호남정치의 맥락 | 김홍길 | 전남대 |
| | 6·4지방선거를 통해 본 호남정치의 현주소 1 | 신기현 | 전북대 |
| | 6·4지방선거를 통해 본 호남정치의 현주소 2 | 지병근 | 조선대 |
| 3부 지방 발전과 국제 교류 | 광주광역시 국제교류 비전과 친중국 접근 | 윤영덕 | 전남대 |
| | 동북아 지역통합과 지방외교 | 양기호 | 성공회대 |

[2015년]

<표 54> 5·18 35주년 기념 학술대회: 5·18의 진실과 민주적 가치의 수호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주제 1 | 기억과 왜곡 사이의 5·18: ‘기억의 형법’을 위한 시론 | 박학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주제 2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관리 전략: 기록의 특성에 따른 아카이브관리 | 이상민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 |
| 주제 3 | 계엄군의 광주봉쇄: 북한군침투는 가능했는가? | 안길정 | 5·18재단 전임연구원 |

<표 55> 역사바로세우기 20주년 학술대회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1부 | 역사바로세우기의 경과와 의의 | 홍순권 | 동아대학교 사학과 |
| | “5월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의 사법적 처리 | 정호기 |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
| | 갈등대체전략으로서 5·18특별법 | 오승용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 |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5·18특별법 | 이영재 |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
| 2부 |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와 전망 | 곽노현 | 전 서울시교육감 |
| | 과거사 관련법의 제정·개정을 위한 노력 | 김동철 | 국회의원 |
| | 과거사 관련 입법사례와 통합 과거사법의 제정 방향 | 정구도 |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
| | 제주4·3의 현안과 과제 | 이문교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

<표 56> 부마민주항쟁 개요 및 부산지역 5·18운동 전개 학술대회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발표 1 | 5·18항쟁과 부산의 민주화운동 | 차성환 | |
| 발표 2 | 부마민주항쟁 항쟁지도와 항쟁일지 작성 보고 | 김성선 | 민사연 연구원 |

[2016년]

<표 57> 5·18민중항쟁 36주년 기념학술대회: 5·18과 역사를 둘러싼 정치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리운드테이블 5·18연구 소 설립 20 주년 기념 -5·18학술 연구의 현 재와 5·18 연구소 | 국내 5·18학술연구 동향 | 최정기 | 전남대 사회학과 |
| | 해외 5·18학술연구 동향 | George Katsiaficas | |
| 1세션 5·18과 역 사왜곡 |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심화: 분석과 대안 | 오승용 | 전남대 5·18연구소 |
| | 5·18민주화운동 진실부인에 대한 형사 법적 규제방안 | 김재운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 | 1980년 5월 광주 그리고 북한 | 김희송 | 전남대 5·18연구소 |
| | 님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 홍콩, 대 만, 중국을 중심으로 | 정근식 | 서울대 사회학과 |
| 2세션 현 대 사 와 역사왜곡 | 보수정권 이후 한국 근현대사 왜곡의 실태와 분석 | 이준식 | 연세대, 역사정의실천연 대 집행위원장 |
| | 굴절된 역사, 시민들에 의한 역사의 진 실 찾기: 근로정신대 문제와 한일 시민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 이국언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
| | 역사의 전복: 반(反)헌법 열전 | 오유석 |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

<표 58> 여순사건 68주기 학술토론회: 여순사건 새로운 모색과 시작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1부 | 통일을 위한 한국사회의 대중운동 | 이재봉 | 원광대 교수 |
| | 10월항쟁과 근현대사 | 함종호 | 4·9인혁재단 부이사장 |
| |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 | 이영일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 | 안종철 | 윤상원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 2부 | 여순사건 특별법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 | 장완익 | 해마루법인 대표 변호사 |
| | 5·18특별법 제정 운동 | 박강배 |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장 |
| | 여순사건의 소송 현황과 미신청 사례 | 황순경 | 여순사건여수유족회 회장 |

[2017년]

**<표 59>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20주년 학술대회:
사법판결과 정치적 사면에서 본 한국 민주주의의 현 단계**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기초발표 |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이 한국현대사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와 평가 | 안병욱 | |
| 본 발표 | 1·2·3심에서의 주요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 김성천 | |
| | 정치적 사면과 사법정의 | 김재윤 | |
| | 전두환·노태우 유죄판결을 끌어내기까지의 시민사회의 투쟁과 민주주의 역량의 진전의 진전 | 곽노현 | |
| | 동아시아에서의 이행기 정의와 역사화해 | 우메모리 나오유키 | |

**<표 60>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 한국서양사학회·5·18기념재단 공동학술대회:
역사 속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1부 서양사 연구와 한국 민주주의: 회고와 전망 I | 서양사 역사교육 연구 회고와 전망 | 김원수 | 서울교대 |
| | 서양 역사이론 연구 회고와 전망 | 김택현 | 성균관대 |
| | 서양 고대사 연구 회고와 전망 | 최혜영 | 전남대 |
| | 미국사 연구 회고와 전망 | 손세호 | 평택대 |
| 2부 서양사 연구와 한국 민주주의: 회고와 전망 II | 서양 중세사 연구 회고와 전망 | 차용구 | 중앙대 |
| | 영국사 연구 회고와 전망 | 설혜심 | 연세대 |
| | 프랑스사 연구 회고와 전망 | 이용재 | 전북대 |
| | 독일사 연구 회고와 전망 | 권형진 | 건국대 |
| | 러시아사 연구 회고와 전망 | 김남섭 | 서울과기대 |
| | 남유럽사 연구 회고와 전망 | 장문석 | 영남대 |
| 3부 우 리 에 게 서 양 사 란 무엇인가? | 서양사학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및 서양사학회 역사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발표 | 정대성 신동혁 | 부산대 경희대 |
| 4부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 식민지 보수주의: 19세기 말 알제리 반유대주의 폭동을 중심으로 | 문종현 | 세종대 |
| |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우익들: 분열과 논거 약화 | 박상철 | 전남대 |
| | “트럼프 민주당원”의 탄생: 2016년 미국 대선과 백인 노동계급 | 이찬행 | 성균관대 |

| | | | |
|------------------------------------|--|-----|-------------|
| 5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 프랑스혁명기 수동시민과 민주주의 | 박윤덕 | 충북대 |
| | 최초의 러다이트운동과 기계파괴의 정치경제학: “기계파괴”와 “기계규제”의 정치적 역설 | 박찬영 | 명지대 |
| |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포퓰리즘의 출현: 아르헨티나의 사례 | 박구명 | 아주대 |
| 6부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 |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독일 68의 구심점 APO(의회외부정향운동)의 ‘위대한 거부’ | 정대성 | 부산대 |
| | 세기전환기 반자본주의 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딜레마: 탈물질주의와 문화주의 이론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의 변질 | 박우룡 | 한국외대 |
| | 아렌트와 소렐의 폭력론 비판: 대안으로서의 고대 그리스 시민사회 | 최자영 |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
| 7부 서양사의 거울로 본 한국 민주 주의 | 5·18광주행쟁의 성격과 세계사적 위상 | 최영태 | 전남대 |

〈표 61〉 광주다이어리 발간 기념 UN 5·18국제학술대회:

광주 다이어리 민주주의와 집단기억(Gwangju Diary: A Collective Memory of Democracy and Freedom)

| session | 발표내용 | 발표자 | 소속 |
|---------|---------------------------------|-------------------|---------------------|
| 본 발표 | 5·18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의 대응 | Donald P. Gregg | 전 주한미대사 |
| | 미국의 군사정권 지원과 5·18, 그리고 반미주의의 확산 | Bruce Cumings | 시카고대학 교수 |
| | 광주 시민공동체와 진압작전의 양상, 그리고 미국의 책임 | Terry A. Anderson | 전 AP통신 기자 |
| | 광주의 대동정신을 통한 분단문제의 해결 | Yiombi Thona |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 네트워크 의장 |

[2018년]

〈표 62〉 5·18민주화운동 38주년 및 광주청문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5·18기념재단 국제학술대회: 횡단하는 5·18, 세대와 경계를 넘어

| session | 발표주제 | 발표자 | 소속 |
|-----------------------|--|-------------|----------------------|
| 1부 기조강연 | 이행기정의와 민주주의 | 문경수 |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
| | 촛불로 비춘 1980년 오월 광주 | 한홍구 | 성공회대학교 |
| 2부 세계의 경계를 넘어 | 동아시아 탈식민주의 사상의 계보와 박 현재의 민족주의론: 광주 5·18의 재역 사화를 위한 사상자원을 찾아서 | 연광석 | 대만 국립교통대학 |
| | 어떻게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민주주의 를 유지할 것인가 | 케네스 루오프 | 미국 포클랜드 대학교 |
| | 정확와 인권 과제, 그리고 더 나은 세 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찰과 생각 | 루이스 빈치게러 | 前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
| 3-1부 세대의 경계를 넘어 | 임철우 『봄날』 다시 읽기: 재현 형식을 중심으로 | 김주선 | 조선대학교 |
| | 나의 광주 현대사(1989-2018): 전대협· 광주비엔날레·5·18기록관이 만들어 낸 세 가지 풍경 | 김태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
| 3-2부 세대의 경계를 넘어 | 민중미술, 실패로 정의할 수 없는 다중 의 힘 | 서다솜 | 시각예술작가 |
| | 5·18기억투쟁의 복원: 연속과 분절 사 이에서 | 유경남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 최근 5년간 재단이 개최 및 지원한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대별됨

- 첫 번째는 ‘일간베스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비롯한 사이버공론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5·18 왜곡 및 폄훼 현상에 대한 다각적 비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거나, 문재인 정부 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근거와 논리를 마련하는 학술대회가 진행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5·18민주화 운동이 갖는 의의와 위상을 확고히 하려함
- 두 번째는 5·18민주화운동 및 5월운동의 전국화·세계화를 지향하며 5·18민주화운동이 국 내외의 다른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하는 가운데, 타 운동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5·18 및 5월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재정립하려는 학술대회가 개최됨.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인권과 평화의 문제는 물론 새로운 공동체 건설의 모델 또는 이론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음. 이와 같은 학술대회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5·18을 소재로 한 다양한 주제와 문제 의식을 자극해 5·18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하는데 유의미한 장을 마련함

- 세 번째는 ‘5·18특별법 제정 20주년 학술대회’ (2015),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확정판결 20주년 학술대회’ (2017), ‘Kwang Diary 개정판 출판 기념 학술대회’ (2017)와 같이 5·18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거나, ‘부마항쟁’, ‘여순사건’, ‘제주4·3’ 등과 같이 한국현대사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 경험을 공유한 이웃한 기념사업단체나 민주연구단체협의회(민연협)와의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함. 이와 같은 학술프로그램은 5·18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해 5·18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5·18 왜곡 및 폄훼에 대응하려는 취지 속에서 개최됨. 민연협 등에 유관단체와의 학술행사 역시 국가폭력에 저항한 공통의 경험에 기초해 민주주의, 인권, 평화, 공동체 등에 현재적 의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5·18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5·18 정신의 보편화를 추구함
- 다양한 계기와 의제 속에서 진행된 학술행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재단이 개최 및 지원한 학술행사의 상당 부분이 충분한 사전 준비 속에서 실행되지 못한 결과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한 채 대중적 참여가 미흡하였음. 일부 학술행사는 그 주제 및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되기도 함
- 향후 재단이 주관 및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5·18 연구를 확장·심화시키는 동시에, 5·18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5·18의 현재적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5·18민주화운동 및 5월운동 자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심화할 수 있는 학술대회의 기획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매년 진행되는 재단의 국내·국제 정기적 학술대회는 5·18연구의 현재적 의제와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위상과 역할의 성격이 담보되어야 함
- 현재의 혼종적인 성격이나 파편적인 일회성 행사를 탈피해 학술대회의 내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의 기초 및 성격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기획 의도에 맞는 준비 및 실행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 가령 매년 초에 한 해 학술대회를 시민참여, 전문 학술연구, 국제교류, 이슈 대응 등으로 구분해서 기획안을 확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한다면 대중성과 학술적 성과 모두를 확보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연구용역 분석 및 진단(2014~2018)

<표 63> 연구용역 분석 및 진단(2014~2018)

| 연도 | 연구용역 주제 | 연구책임자 |
|------|-----------------------------------|--------------------|
| 2014 | 5·18기념재단 창립20주년기념 20년사 발간 연구용역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 2015 | 5·18서울기념사업회의 오월운동 구술기록 조사 및 수집 용역 | 임왕택(5·18서울기념사업회장) |
| | ‘상황일지 해제’ 용역 | 노영기(조선대) |
| | ‘5·18특별법 제정 20주년 구술기록 수집·연구’ 용역 | 정호기(전남대) |
| | ‘불교계 5·18민주화운동 구술기록 조사 및 수집’ 용역 | (사)광주연구소 |
| | 5·18민중항쟁 기록물의 협력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 김익한(한국국가기록연구원) |
| | 넘어넘어 개정판 발간을 위한 DB자료 집필용역 | ‘넘어넘어’ 증보판 간행위원회 |
| | 5·18웹툰 사례조사 연구용역 | 박경철(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 2016 | 김영철 유고집 정리 및 집필용역 | 전용호(광주스토리텔링작가 협회장) |
| | 5·18대학교재 집필 연구용역 | 은우근(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 | 『5·18정사』 편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 |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 구축 연구용역 | 오승용(전남대 5·18연구소) |
| 2017 | 5·18민주화운동 웹 교육자료 개발 용역 사업 | (주)포디자인 |
| | 오월민중미술사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연구 용역 | 부국문화재단 |
| 2018 | 오월민중미술사아카이브 구축 사업(1차) 용역 | 진행 중 |
| | 5·18기념사업 및 5·18기념재단 발전방안 연구용역 | 진행 중 |

- 최근 5년간 재단의 연구용역은 크게 ① 「재단 20년사」 발간이나 「재단 기념사업 및 발전방안 연구」와 같이 재단의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 비전(vision)을 정립하려는 연구, ②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5·18민주화운동 및 5월운동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해제에 관한 작업, ③ 5·18민주화운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교재발간사업 및 홍보사업이 진행됨
- 현재 재단의 연구용역 사업은 5·18학술연구의 토대 구축 및 대중화를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작업임. 하지만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단기간에 그것도 각 연차의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됨. 이와 같은 사업 집행의 양상은 그간 연구용역이 재단의 주도 아래 장기적인 로드맵(road map) 속에서 단계별로 진행되기보다는 외부의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존재했음을 보여줌. 그 결과 양질의 연구용역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게 됨
- 최근 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구술 사업을 중심으로 5·18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용역이 실행됨. 이는 진상규명과 학술연구의 토대작업으로서 중요함. 하지만 현재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 기존 발굴 자료의 정리 및 활용을 위한 작업이 시급함.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류 및 정리해서 DB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과 실행 방안 수립이 절실함

- 향후 지속적인 조사 및 수집 작업을 위해서도 그것의 가공과 처리에 용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초 조사사업의 매뉴얼을 만들고, 그 틀에 따라 조사 및 수집 작업을 실행해야 함. 현재 무질서하게 수집된 구술자료가 많은 상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 작업 전에 어떻게 각 자료의 성격에 맞는 조사 및 수집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 및 용역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논문연구지원 분석 및 진단(2014~2018)

〈표 64〉 논문연구지원 분석 및 진단(2014~2018)

| 연도 | 연구주제 | 연구자 |
|------|--|-------------|
| 2014 | 「매체서사(media narrative)로서의 5·18과 집합 기억의 재현」 | 주재원(동의대) |
| | 「세대균열과 5·18에 대한 집합기억」 | 허석재(목포대) |
| | 「5·18과 시민주도적 자치공동체: 『오월의 사회과학』의 ‘절대공동체’ 논의를 중심으로」 | 서유경(경희사이버대) |
| 2015 | 「사진은 어떻게 진실을 드러내는가: 광주항쟁 속에서 언론사진의 목격자역할(Bearing Witness)을 중심으로」 | 김상덕 |
| | 「아우슈비츠 부인에 대한 독일형법의 대응」 | 김재윤 |
| | 「2012년과 2015년 민주화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 대구지역 시민단체 5·18현오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 장지은 |
| | 「반인도 범죄 부인과 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 연구: 독일 및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명순 · 박학모 |
| | 「5·18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통일조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 최양근 |
| 2017 |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와 문학적 항쟁: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가 놓인 자리」 | 김미정 |
| | 「기억과 증언, 그리고 새로운 저널리즘의 시도」 | 박진우 |
| | 「누구의 경험으로서 들을 것인가: ‘집단지결’ 과 증언」 | 심정명 |
| | 「무절만과 증언의 윤리: 아감벤의 오리엔탈리즘」 | 임경규 |
| | 「레비나스와 증언의 딜레마: 한나 아렌트와 프리모 레비를 경유하여」 | 이은정 |
| 2018 | 「공동체 만들기의 정치: 이념, 담론, 실천」 | 박경섭 |
| | 「네이션 안에서 네이션을 벗어나기: 『상상의 공동체』를 둘러싼 물음들」 | 이영진 |
| | 「1980년대 “죽음”의 재현양상 연구」 | 강소희 |
| | 「임철우 초기 중·단편 소설 연구」 | 김주선 |
| | 「내전과 현대 민주주의 상황」 | 김향 |

- 최근 5년간 재단은 문학, 역사, 철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법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문제의식의 연구논문을 지원했음.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집합)기억, 매체, 재현, 정동, 증언, 죽음, 공동체, 인권, 평화 등 다양한 주제 및 문제의식의 횡단

- 속에서 새롭게 조망됨. 동시에 재단은 5·18 왜곡 및 폄훼에 대한 대응 논리나 특별법 제정 등 5·18을 둘러싼 정치 현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연구논문 지원 사업을 진행함
- 과거 학술연구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집중되던데 반해 최근 재단이 우수논문으로 선정한 연구 성과들은, 5·18 이후 5월운동은 물론 5·18을 둘러싼 (집합)기억, 정동, 증언, 재현의 정치 등 다양한 주제와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재단은 2017년부터 전문적인 대학의 학술연구기관(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18우수 학술논문 지원 사업’을 통해 신진연구자들의 참신한 연구를 촉발시킴. 그 결과 5·18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킨 동시에 5·18민주화운동을 공동체, 인권, 평화 등 현재 한국사회가 마주한 의제들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함
 - 재단의 논문지원사업이 5·18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지만, 5·18민주화운동 및 5월운동 자체에 관한 연구는 오히려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이와 같은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 연구자들이 자신의 관심 주제 및 문제의식을 5·18과 접속시켜 창의적 연구를 생산하지만, 지속적으로 5·18에 천착해서 연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5·18민주화운동 및 5월운동 자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단이 장기적 계획 속에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연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5·18 연구의 외연 확장과 5·18 정신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5·18 자체에 대한 풍부한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소규모연구회·공부모임지원 분석 및 진단

- 재단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연구회 및 세미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옴. 2016년 11회를 맞이한 전남대와 부산대 학생들 간에 정기적 학술교류 및 답사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영호남 대학생들이 함께 주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성찰하고 5·18 정신의 전국화를 꾀함
- 이 밖에도 ‘5·18교육 및 연구에 관한 학술집담회’나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정기 집담회’와 같은 프로그램은, 5·18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문화사업의 방안을 모색하

거나 5·18연구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제반 현황 및 쟁점에 대한 별도의 학술토론의 장을 제공함

- 재단은 정치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 학술세미나 역시 지원함. 재단은 최근 5년간 5·18의 왜곡·편취 현상에 대한 비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와 ‘역사해석과 역사왜곡’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였고, 2018년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가 사회적 이슈로 재차 부상하면서 계엄군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건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및 505보안부대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진행함
- 최근 5년간 재단의 소규모연구회 및 공부모임 지원 사업은 5·18연구의 심화 및 5·18정신의 보편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남학생들 간에 정기적 학술교류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가령 신진연구자들의 학술소모임이라든가 5·18연구의 쟁점을 둘러싼 정기 집담회 등은, 연속적 기획을 통해 그 성과를 누적하고 5·18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간행물(2014~2018) 분석 및 진단

<표 65> 간행물(2014~2018) 분석 및 진단

| 연도 | 제목 | 구분 | 형식 |
|------------------------------------|---|-------------|-----------|
| 2014 | 5·18기념재단 브로슈어 | 홍보 | 단행본 |
| |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인식 조사 -2014 전남대·부산대 신입생 대상 | - | 보고서 제본 |
| | 5·18민주화운동의 국제적 비교와 시민의식 | 연구지원 | 단행본 |
| | 구술생애사를 본 5·18의 기억과 역사6-사회활동기2편 | 구술채록 | 시리즈 |
| 2015 | “님을 위한 행진곡“ 학술세미나 | 학술대회 자료집 | 단행본 |
| | 2015 광주아시아포럼-사회정의를 위한 연대: 5·18과 역사교육, '오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학술대회 자료집 | 단행본 |
| | 5·18 제35주년 학술대회-5·18의 진실과 민주적 가치의 수호 | 학술대회 자료집 | 단행본 |
| | 5·18민주화운동 중·고등학생 교재 | 발간사업 | 단행본 |
| | 5·18민주화운동과 언론투쟁 | 발간사업 | 단행본 |
| | Great Heritage of Democracy-위대한 유산 | 발간사업 | 단행본 |
| | 구술생애사를 본 5·18의 기억과 역사7-개신교편 | 구술채록 | 시리즈 |
| | 김영철 열사 유고모음-못 다 이룬 공동체의 꿈 | 발간사업 | 단행본 |
| | 논문집-가톨릭과 5·18 | 연구지원 | 단행본 |
| | 당신은 아는가?-5·18, 그 위대한 연대: May 18 The Great Solidarity | 발간사업 | 시리즈 |
| 역사바로세우기학술대회-특별법 제정으로 본 민주화의 진전과 과제 | 학술대회 자료집 | 단행본 | |

| | | | |
|------|---|-------------|-----|
| | 제2회 100인의 릴레이아트-815·18 민주의 꽃 | 발간사업 | 시리즈 |
| | 초등활동지1-놀면서 배우는 오월이야기 | 발간사업 | 단행본 |
| | 초등활동지2-생각하며 활동하는 오월이야기 | 발간사업 | 단행본 |
| | 초등활동지3-우리가 만들어 가는 오월이야기: 인물과 노래, 기록물과 그림으로 살펴보는 5·18민주화운동 | 발간사업 | 단행본 |
| 2016 | 2016 광주아시아포럼-국가폭력과 역사왜곡 | 학술대회 자료집 | 단행본 |
| | 5·18아카이브-5·18, 위대한 유산/연대; The May 18 Uprising: The Great Heritage and Solidarity | 발간사업 | 시리즈 |
| | 5·18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 | 학술대회 자료집 | 단행본 |
| | 5·18민중항쟁 제36주년 기념학술대회-5·18과 역사를 둘러싼 정치 | 학술대회 자료집 | 단행본 |
| | 광주의 오월을 건자 Ver.3 | 홍보자료 | 시리즈 |
| | 당신은 아는가? - 5·18, 그 위대한 연대: May 18 The Great Solidarity | 발간사업 | 시리즈 |
| | 제3회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 아트-오월정신과 평화통일의 꿈 | 발간사업 | 시리즈 |
| 2017 | 5·18. Mai-Sudkoreas Demokratiebewegung-eine Chronik | 발간사업 | 단행본 |
| | 5·18 열흘 간의 항쟁 | 발간사업 | 단행본 |
| | GWANGJU DIARY-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 발간사업 | 단행본 |
| | 저항과 명상 | 발간사업 | 단행본 |
| |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20주년 학술대회 | | |
| 2018 | 2018 광주아시아포럼 개막식 자료집 | | |
| | 2018 광주아시아포럼 아시아인권헌장세션 자료집 | 학술대회 자료집 | 단행본 |
| | 2018 광주아시아포럼 아시아풀뿌리단체 지원 워크숍 | 학술대회 자료집 | 단행본 |
| | 2018 민주인권평화 <세계민중판화>전 | 발간사업 | 단행본 |
| | 5·18민주화운동 38주년 및 광주청문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 학술대회 자료집 | 단행본 |
| | 제5회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아트 - 2018 메이피플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 발간사업 | 시리즈 |

- 최근 5년간 재단 간행물은 ①각종 학술행사 자료집 ②재단 홍보 자료 ③구술채록 시리즈 ④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5·18교육 교재 ⑤5·18 관련 각종 학술연구 논문집 및 저술 등으로 대별됨
- 기념재단은 최근 5년간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5·18교육 교재 개발, 5·18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5·18관련 국내외 연대운동사례 조사, 다양한 분야의 5·18경험 및 운동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의 결과 등을 발간해 그 성과를 대중화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8학술연구의 기초라 할 수 있는 5·18진상규명 및 5월운동에 관한 1차 자료에 대한 해제 및 정리 간행물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특히 최근 5년간 1차 자료의 정리 및 해제 관련 간행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5·18과 5월운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교재와 같이 5·18의 대중화, 세계화를 지향한 간행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5·18학술연구의 근간이 되는 원천 자료의 정리 및 해제에 대한 지속적인 간행사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 5·18 관련 간행물은 일부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호응 및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회성에 그치는 개별적 성격의 발행물이 적지 않음. 향후 5·18유관기관 및 전문가집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로드맵을 세워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만족할 만한 질적 수준을 담보한 학술연구 간행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소결

- 지난 14년(2005-2018) 동안 재단 연구지원사업은 크게 ① 5·18 및 5월운동 관련 구술 ② 5·18 관련 (비)정기적 기념사업에 대한 학술대회 ③ 학술논문 공모 및 지원 ④ 소규모 연구활동 지원 ⑤ 5·18 유관/유사운동 학술연구 지원 ⑥ 5·18관련 정치현안에 대한 대응 차원의 학술지원 등으로 대별됨
- 특히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 들어 5·18에 대한 왜곡 폄훼가 주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된 이후 2014년부터 2018년 최근까지 ⑥ 5·18관련 정치현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용역이 집중적으로 진행됨
- 5·18 왜곡 폄훼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연구지원사업에 근간인 5·18과 5월운동 자체에 대한 학술연구 지원이 양·질적 측면 모두에서 주변화 된 점은 안타까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③ 학술논문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5·18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임. 다만 5·18과 5월운동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는 각 분과 학문 영역에서 5·18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차원의 연구가 대중을 이룸

-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난 10년간 재단 연구지원사업의 혜택을 중복지원 받거나, 장기적 과제 수행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거의 없음.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5·18연구를 촉발시키는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재단의 연구지원사업이 장기적 차원에서 기획·실행되지 못하고 매년 즉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머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그 결과 자연스럽게 5·18은 기존 연구자집단이 일회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소재 정도가 된 채 전문적인 신진연구자의 양성이 되고 있지 못함
- 1990년 무렵부터 2000년 전후까지 학술연구의 초점은 5·18진실규명에 맞추어져 있었던 데에 반해, 2000년대 중반 이후 5·18의 의미 및 성격, 기억, 공동체, 문화예술 및 문화운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학제 간 국가 간 통섭 및 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다채로운 관련 연구를 파생시키는 원천으로서 5·18 사건 및 5월운동 자체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음
- 운영 측면에서 재단 연구지원사업의 특징 중 하나가 대부분의 연구용역 발주가 매년 8월에서 9월에 진행되고 있는 점임. 사업 자체가 늦게 시작됨에 따라 실제 연구를 진행할 시간은 3~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양질의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 역시 사업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즉흥적 임의적으로 집행된 결과임
-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재단의 연구지원사업은 장기적 프로그램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5·18연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문어발식 확장 현상을 보이면서도, 그 일회적이고 파편적인 지원사업으로 인해 양질의 연구 성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음

IV. 국내외 사례 검토

1. 국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¹⁸⁾

□ 개요

- 설립목적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 설립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
- 미 선 :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 비 전 :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동반자
- 핵심가치 : 참여, 협력, 자긍심
- 전략목표 : 1.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기반 강화
2. 민주주의 확산 삼화의 기반 조성
3. 민주주의 지식정보 허브 구축
4. 유능하고 활기찬 조직
- 연 혁 : 2001년 11월 12일
 - 2000.07. 여·야의원 82인의 명의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발의
 - 2001.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공포
 - 2001.09. 법인 설립위원 위촉(대표 성유보 외 9명)
 - 2001.10. 초대 이사장 박형규 임명
 - 2001.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공포
 - 2001.11. 법인 설립 허가, 임원 임명

18) 주소: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7층
연락처: 02-3709-7500 (임원실 02-3709-7507)
인터넷 사이트: <http://www.kdemo.or.kr/>

- 2004.11. 제2기 이사회 출범 - 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2명, 감사 2명
- 2006.08. (가칭)민주화운동 기념관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
- 2007.05. 6·10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 2007.12. 제3기 이사회 출범 - 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2명, 감사 2명
- 2010.12. 제4기 이사회 출범 - 정성현 이사장 외 이사 8명, 감사 2명
- 2014.05. 제5기 이사회 출범 - 박상증 이사장 외 이사 7명, 감사 2명
- 2017.06 제6기 이사장 지선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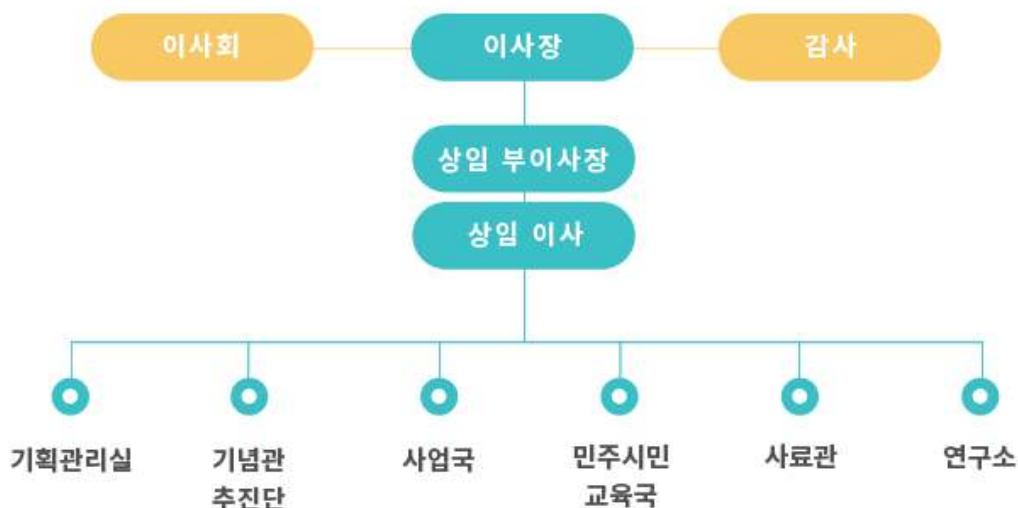
○ 관계기관 : 행정안전부

○ 주요기능 :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및 운영
-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홍보·조사 및 연구
-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조직 및 인력

<그림 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도



○ 인력현황

<표 66> 인력현황

| 구 분 | | 2015 | 2016 | 2017 | | |
|-------------|--------|-------|------|------|----|---|
| 임원 | 합계 | 상임 | 2 | 2 | 1 | |
| | | 비상임 | 9 | 8 | 11 | |
| | 기관장 | 상임 | 0 | 1 | 0 | |
| | | 비상임 | 1 | 0 | 0 | |
| | 이사 | 상임 | 2 | 1 | 1 | |
| | | 비상임 | 6 | 6 | 9 | |
| 감사 | 상임 | 0 | 0 | 0 | | |
| | 비상임 | 2 | 2 | 2 | | |
| 합계(A+B+C+D) | | 42 | 36 | 35 | | |
| 직원 | 일반 정규직 | 정원 | 40 | 40 | 40 | |
| | | 현원(A) | 36 | 34 | 34 | |
| | 무기 계약직 | 정원 | 3 | 3 | 3 | |
| | | 현원(B) | 0 | 1 | 1 | |
| | 비정규직 | 합계(C) | | 6 | 1 | 0 |
| | | 기간제 | 전일제 | 5 | 1 | 1 |
| 단시간 | | | 1 | 1 | 0 | |
| 기타 | | 0 | 0 | 0 | | |
| 소속 외 인력(D) | | 0 | 0 | 0 | | |
| 임직원 총계 | | 45 | 45 | 45 | | |

자료 : www.cleaneye.go.kr

- 2015년 총 37.5명의 1인당 평균임금(기본급,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수당(수당, 초과근무수당), 성과급(인센티브성과급))은 54,599천원, 2016년 총 35.8명의 1인당 평균임금은 59,985천원, 2017년 총 34.6명의 1인당 평균임금은 64,027천원임
- 신입사원 평균임금은 2015년(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 28,057천원, 2016년 28,864천원, 2017년 29,601천원이며, 2015년 3명, 2016년 0명, 2017년 2명을 일반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채용함

○ 결산현황

<표 67> 결산현황

(기준일 : 2017.12.31;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인건비 | 1,993(31.6%) | 2,081(37.9%) | 2,242(30.3%) |
| 경상경비 | 1,673(26.5%) | 1,688(30.7%) | 1,654(22.4%) |

| | | | |
|-----------|--------------|--------------|--------------|
| 사업비 | 2,503(39.7%) | 1,660(30.2%) | 3,422(46.25) |
| 기타(예비비 등) | 136(2.2%) | 68(1.2%) | 81(1.1%) |
| 계 | 6,305 | 5,497 | 7,399 |

자료 : www.cleaneye.go.kr

○ 자본금 및 기본재산 현황

<표 68> 자본금 및 기본재산 현황

(기준일 : 2017.12.31;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보조금 | 6,238 | 5,324 | 7,193 | 12,412 |

자료 : www.cleaneye.go.kr

□ 주요사업

<그림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개요

KDF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사업개요



○ 기록물 수집, 보존, 관리

- 최근 ‘해외민주화운동 구술채록사업’, ‘해외민주화운동 사료 등록 사업’, ‘민주화 운동 사료 DB구축사업’ 등 진행

○ 기록물 조사 및 연구

- 부설기관인 한국민주주의연구소를 중심으로 학술연구, 학술교류, 학술지발간, 홍보·정보

화 사업 등을 운영 중. 현재 소장 1인, 연구원 6인으로 구성됨

- 매년 6월 「6월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학술토론회 개최
- 학술지 『기억과 전망』 연 2회 발간
- 2016년 연구보고서 발간
 -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1980년대 개헌운동과 6·10민주항쟁>, <지역민주주의의 이론과 현황>,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과정 연구>
- 2016년 도서 발간
 - 『3선개헌반대운동』 사료집, 『대전·충남민주화운동사』,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 기타, 기록학 연구와 관련하여 『기록의 힘』 발간
- 리포트 『ISSUE&REVIEW ON DEMOCRACY』 발간
- 기관지 『민주누리』 격월 발간

○ 교육

- 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현대사 이야기” 2016년 상·하반기 2회
- 대학생 민주주의 현장탐방 “민주야 여행가자”
- 초등학생 민주주의 현장체험 “민주야 소풍가자”
- 2016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선정
- 2016년 하반기 서울교육인증기관 선정
- 서울지역 민주화운동 역사지도 발간

○ 전시와 콘텐츠 개발

- 2015~2016년, 오픈아카이브즈 개선사업 “큐레이션” 을 진행하여 2016년 2월 완료함
- 사료콘텐츠를 직접 제작, 유통, 관리할 수 있는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도구 개발에 주력하여 개선. 이를 통해 구술아카이브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모바일 이용자를 위한 반응형 웹 적용과 이용자 참여를 위한 사료 트랜스크립션 공간을 마련함

- 오픈 아카이브즈 : 사료 컬렉션, 사진 아카이브, 사료 콘텐츠, 구술 아카이브로 구성

<그림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예시(1)



-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 사료를 직접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와 함께 풀어 설명, 자료집 제공

<그림 1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예시(2)



- OPEN API : 공개된 API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산

<그림 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OPEN API 예시



○ 교류 및 네트워크

- 뉴스레터 월 2회 발간
- 2016년 5월 19일,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참가단’ 방문프로그램 진행
- 2016년 6월 8~10일, ‘민주주의 국제연대 세미나’ 개최
- 2016년 8월 25~26일, ‘2016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국내단체 워크숍 참가

□ 분석 및 시사점

- 민주화운동 관련 아카이브를 가장 먼저 구축한 선형기관이라는 점에서 5·18 관련 아카이브 구축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중복을 피할 수 있음
-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로서 가장 모범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대상별, 수준별 맞춤 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실제 교육 수행시의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5·18기념재단의 교육 기능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2) 제주 4·3 평화재단¹⁹⁾

□ 개요

- 설립목적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제주 4.3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인류평화의 증진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비 전 : 4.3평화정신의 세계화
- 목 표 : 4.3 해결을 통한 인권신장, 민주발전, 국민통합
- 설립근거 : 민법 32조
 - 조 례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등에 관한 조례
- 연 혁 : 2008. 10. 16 : 제주4·3평화재단 설립
 - 2008. 11. 10 : 제주4·3평화재단 출범식
 - 2009. 04. 04 : 시민4·3아카데미 개설
 - 2009. 10. 27 : 4·3행방불명 희생자 표석 설치
 - 2010. 07. 29 : 전국청소년4·3평화캠프 개설
 - 2010. 09. 15 : 제주4·3평화재단 기관지 「4·3과 평화」 창간
 - 2011. 12. 08 : 제1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
 - 2012. 01. 09 : 전국교원4·3직무연수 개최
 - 2012. 05. 17 :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네트워 협약체결(국내5·국외4개 기관)
 - 2014. 04. 03 : 제66주년 4·3희생자추념식 봉행 (법정기념일 지정 원년)
 - 2014. 10. 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4·3평화교육업무협약 체결
 - 2015. 01. 15 :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업무인수
 - 2015. 01. 26 : 기관지 「4,3과 평화」 일본어판 발간협약 (新刊社)
 - 2015. 03. 24 : 「제주4,3의 노래」 전국공모 및 발표

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연락처: 064-723-4344

인터넷 사이트 <https://jeju43peace.or.kr/>

- 2015. 04. 01 : 제주4,3평화상 제정 제1회 시상식
 - 2015. 05. 06 : 전도학생4,3문예백일장 개최
 - 2015. 08. 19 : 국제대학생 4·3아카데미 개설
 - 2016. 09. 23 : 제주4·3사진 해외전시(대만)
 - 2016. 10. 20 : 제6회 4.3평화포럼 개최
 - 2017. 03. 11 : 제주4.3 광주사진전 개최
 - 2017. 03. 15 : 제5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상
 - 2017. 04. 02 : 제69주년 4.3희생자추념식 전야제 개최
 - 2017. 06. 09 : 제2회 제주4.3평화상 시상(수상자: 브루스 커밍스)
 - 2017. 06. 16 :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출판기념회
 - 2017. 08. 01 : 전국민 4 | 3인식조사(전국민 1500명, 도민500명)
 - 2017. 08. 20 : 제주4.3 해외사진전 개최(대만 가오슝)
 - 2017. 09. 20 : 제주4.3디지털아카이브 공개서비스
 - 2017. 11. 09 : 제7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
 - 2017. 12. 01 : 4.3평화교육센터 어린이체험관 운영
- 관계기관 : 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
- 주요기능 :
-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 운영
 - 4·3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 사업
 - 4·3추가진상조사
 - 4·3문화학술사업
 - 국내외평화교류사업
 - 평화교육사업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등

○ 조직도

<그림 16> 제주 4·3평화재단 조직도



○ 인력현황

<표 69> 제주 4·3재단 인력현황

| 구 분 | | | | 2015 | 2016 | 2017 | |
|-----|-------------|-------|---|------|------|------|----|
| 임원 | 합계 | 상임 | 남 | 0 | 0 | 0 | |
| | | | 여 | 0 | 0 | 0 | |
| | | 비상임 | 남 | 15 | 11 | 12 | |
| | | | 여 | 1 | 1 | 1 | |
| | 기관장 | 상임 | 남 | 0 | 0 | 0 | |
| | | | 여 | 0 | 0 | 0 | |
| | | 비상임 | 남 | 1 | 1 | 1 | |
| | | | 여 | 0 | 0 | 0 | |
| | 이사 | 상임 | 남 | 0 | 0 | 0 | |
| | | | 여 | 0 | 0 | 0 | |
| | | 비상임 | 남 | 12 | 10 | 10 | |
| | | | 여 | 1 | 1 | 1 | |
| 감사 | 상임 | 남 | 0 | 0 | 0 | | |
| | | 여 | 0 | 0 | 0 | | |
| | 비상임 | 남 | 2 | 0 | 1 | | |
| | | 여 | 0 | 0 | 1 | | |
| 직원 | 합계(A+B+C+D) | | | 21 | 22 | 26 | |
| | 일반 정규직 | 정원 | | | 19 | 19 | 22 |
| | | 현원(A) | | | 13 | 17 | 18 |

| 구 분 | | 2015 | 2016 | 2017 |
|------------|-------|------|------|------|
| 무기 계약직 | 정원 | 0 | 0 | 3 |
| | 현원(B) | 1 | 1 | 1 |
| 비정규직 | 합계(C) | 5 | 4 | 7 |
| | 기간제 | 5 | 4 | 7 |
| | 단시간 | 0 | 0 | 0 |
| | 기타 | 0 | 0 | 0 |
| 소속 외 인력(D) | | 2 | 0 | 0 |

자료 : www.cleaneye.go.kr

- 2015년 총 14명의 1인당 평균임금(기본급,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수당(수당, 초과근무수당), 성과급(인센티브성과급))은 35,454,985원, 2016년 총 17명의 1인당 평균임금은 33,333,468원, 2017년 총 18명의 1인당 평균임금은 42,913,954원
- 신입사원 평균임금은 2015년(기본급,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수당(수당, 초과근무수당)을 포함) 26,060,000원, 2016년 27,565,000원, 2017년 37,317,000원이며, 2015년 5명, 2016년 5명, 2017년 3명을 일반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채용함

○ 결산현황

<표 70> 결산현황

(기준일 : 2017.12.31; 단위 : 원,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인건비 | 729,850,700 (12.1) | 992,900,450 (15.4) | 1,317,446,000 (16.9) |
| 경상경비 | 775,639,475 (12.8) | 712,120,910 (11.0) | 273,228,000 (3.5) |
| 사업비 | 4,428,029,733 (73.1) | 4,322,487,401 (67.0) | 5,669,660,000 (72.8) |
| 기타(예비비 등) | 120,509,000 (2.0) | 423,014,000 (6.6) | 525,048,000 (6.7) |
| 계 | 6,054,028,908 (100.0) | 6,450,522,761 (100.0) | 7,785,382,000 (100.0) |

자료 : www.cleaneye.go.kr

○ 자본금 및 기본재산 현황

<표 71> 자본금 및 기본재산 현황

(기준일 : 2017.12.31; 단위 : 원,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제주4.3평화재단 | 158,038,000 | 173,768,000 | 173,768,000 |
| 행정자치부 | 2,100,000,000 | 2,500,000,000 | 2,500,000,000 |
| 제주특별자치도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 계 | 2,758,038,000 | 3,173,768,000 | 3,173,768,000 |

□ 주요사업

○ 자료(기록물) 수집·정리·보존·관리

- 자료현황 : 총 16,187개의 사료 소장·관리 중

- 도서 : 9,313권
- 일반문서 : 5,465점
- 증언채록 영상·음향 : 1,302건
- 사진 : 116장

- 2014 ~ 2015년 아카이브 구축

- 사업내용 : 4.3 관련 자료 영구 보존을 위한 디지털 변환 관리. 변환 콘텐츠의 웹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콘텐츠의 열람 및 활용을 위한 사용자 편의 제공
- 추진상황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완료, 관련자료 수집 및 변환, 웹서버 탑재

○ 조사연구

- 조사연구는 주로 4·3 평화재단이 담당

- 제주 4·3 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 제주 4·3 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그 일환으로 매년 4·3 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10월에 개최

○ 교육

- 교육은 제주 4·3 평화재단이 담당
- 전국 교원 4·3 직무연수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1회(방학기간)
 - 참가대상 : 전국 초·중등교원
 - 이수시간 : 30시간
 - 모집인원 : 40명(도내 20명, 도외 20명)
 - 이수학점: 2학점 부여
- 제주 4·3 평화재단 특수직무 연수기관 지정(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전시와 콘텐츠 개발

- 전시관
 - 위치 : 제주 4·3 평화공원 내
 - 총면적 : 11,455㎡
 - 주요시설
 - 상설전시실: 4·3의 원인, 전개, 결과, 진상규명과정을, 「프롤로그 - 해방과 좌절 - 무장봉기와 분단 거부 - 초토화와 학살 - 후유증과 진상규명 운동 - 에필로그」 순으로 전시. 또 1948년 11명의 민간인이 토벌대에 의해 질식사한 동굴인 다랑쉬를 그대로 재현하여 긴박했던 피난 생활과 당시의 학살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기획전시실: 4·3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기획전 개최
 - 도서자료실: 4·3도서자료 등 각종 자료를 열람
 - 영상관(대강당): 4·3 영상 상영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
- 홈페이지 현황 및 대책
 -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는 구축된 상태
 - 문헌자료 중 단행본은 85건(각종 4·3 관련 보고서나 자료집, 제헌 국회 속기록 등의 실물 자료), 신문자료는 7,122건이 pdf 형태로 서비스
 - 미디어자료 중 동영상은 문화/예술(17건), 방송/영화(138건), 증언/영상(572건), 기록영상(142건), 홍보영상(2건), 사진자료 433건이 서비스
 - 주소와 GPS, 유적지내력, 현장사진 등이 소개된 4·3 유적지는 50건이 서비스

- 평화에 관한 박물관 등과의 연대·교류
 - 제주 4·3 평화재단이 담당

□ 분석 및 시사점

- 제주 4·3 평화공원, 제주 4·3 평화재단, 4·3 아카이브가 비교적 유기 있는 연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5·18 재단과 5·18 기록관, 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 등 유사기관과의 연계를 모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음
- 내부에 위령, 기념공간과 더불어 전시관, 그리고 사료관을 갖추고 있고 자체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카이브의 현재적 의의와 기억의 계승을 연결시킬 수 있는 데 참조점이 될 수 있음
- 4·3 기념관의 경우 역사기술과 아카이브, 그리고 4·3 관련 예술가들의 작품 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시를 구현하고 있음

2. 국외: 대만 2·28 기금회

1) 대만 228사건기념 기금회

□ 개요

- 1947년 발생한 2.28사건의 처리 및 보상을 위해 1995년 만든 <2·28사건 처리 및 보상 조례>(이하 2·28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구. 2·28기금회는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위로를 병행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2·28사건 보상금 지급업무를 전담. 각종 관련 기념식을 개최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 진상 조사와 현장방문 등 활동을 실시
- 초기 계획에 따르면 2·28기금회는 ‘임무수행성 기구’ 였음. 즉, 2년의 보상기한이 끝나면 해산되는 임시기구. 초기 계획에 따르면, 보상신청기한은 1997년 10월6일이었으나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2·28사건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 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법개정을 거치며 보상신청기한이 총 4차례 연장. 2017년 12월 26일, <2·28사건 처리 및 배상 조례>를 개정해 2·28사건 배상금 신청업무 기한이 2022년 1월18일까지로 다시 연장하게 됨

□ 주요 사업

-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사 및 지급
 - 2·28 사건의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사 및 지급은 기금회 설립 초기 가장 중요한 업무. 이사회는 법률에 정해진 배상금의 신청과 지급의 기준에 따라 피해자 및 희생자들을 분류 및 지급.
 - 1995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기금회의 심리를 통과한 사건은 총 2792건으로, 사망 685건, 실종 1건, 감금, 부상 및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기타 사건은 1437건. 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수는 총 10,034명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된 보상금의 총 금액은 72억 3550만 대만달러
- 교육과 진상조사 연구

- 교육 보급 분야의 활동으로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 신문 배급, 교재 편집, <상흔 2·28>, <대만백합> 등과 같은 영상제작, 보조교재 및 이와 관련된 여러 교육활동 등을 실시. 이와 함께, 진상연구 분야의 활동으로는 『2·28사건문서사료총집』(2002), 『2·28사건책 임귀속연구보고』(2006)의 출판과 『2·28사건 사전』(2008년)의 편찬
- 199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적으로 학술토론회를 개최. 구술 인터뷰의 녹취와 함께 피해자 구분에 관련된 좌담회를 개최
- 타이베이시 대학과 공동으로 ‘2·28인권교육과정’을 개설. 2·28역사와 인권관련 전문가들을 기념관으로 초청수업, 타이베이시 교육국과 합작해 증강현실(VR) 교과서 제작

○ 역사적 상처의 치유와 명예의 회복운동

- 매년 2월 28일 중앙정부의 기념 의식을 진행하고, 총통을 초대하여 담화를 발표하도록 유도. 고령이거나 미망인이 된 피해자 및 유족과 저소득층의 유가족을 찾아가 위로금을 전달하고, 유족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해를 안치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
-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총통이 직접 <명예회복증서>를 피해자 혹은 유족에게 수여하고, 수난의 경위를 자세하게 적은 <처리보고서>를 정부공보(정부의 중앙 신문)에 게재

○ 연대활동 및 문화활동

- 비정기적으로 미술전시회, 역사자료전시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기념주화(50주년)과 기념우표(60주년)를 발행하는 등 여러 문화예술활동을 전개
- ‘인권영화제’의 경우, 주말 시간을 이용해 인권 관련 영화를 상영, ‘휴먼도서관’의 경우, 유족을 초청해 그들의 인생 경험을 함께 나누거나 학자나 전문가를 초청해 역사와 인권 관련 강연을 진행

○ 2·28국가기념관의 운영

- 2·28국가기념관은 개관 후 2·28기금회가 2·28역사를 알리고 인권교육을 하는 장으로 활용

〈표 72〉 2·28국가기념관 상설전시관 주요 전시 내용

| 구역 | 구역별 명칭 | 전시내용 |
|-------|---------------------|--|
| 제 1구역 | 사건의 배경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만은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처음에 대만인들은 모국에 기대하며 중국 동포들을 크게 환영하였으나, 곧 이들이 부패한 정부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부패한 정부가 대만에 집권한지 1년 여 만에 2·28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
| 제 2구역 | 2·28사건의 발생 | 1947년 2월 27일, 단속원이 밀수품 담배를 팔던 노파를 과도하게 단속하였고 다음날인 28일, 민중들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장관공서(현재의 행정원)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상규명 대신 무차별 총격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2·28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 |
| 제 3구역 | 사건의 시작과 끝 | 1947년 3월 1일부터 부패한 정부 관청의 척결을 요구하는 항쟁에 대만 전역이 참여하였고, '2·28처리위원회'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민주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나선다. 이 시기 타이중과 자이 지역에서는 무력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
| 제 4구역 | 유화책과 군대의 배치(양면적 수법) | 대만 행정장관이었던 천의는 민중들에게 민주적 개혁을 약속했으나, 동시에 그는 국민정부 주석인 장계석에게 대만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한 추가적인 군대 표파견을 요청한다. |
| 제 5구역 | 진압과 엄중탄압 | 1947년 3월 8일, 국민당 군대는 대만에 도착하였고, 곧 무력진압이 시작되었다. 제5구역에서는 상호작용 지도를 통해 '2·28사건처리위원회'의 피해와 더불어 당시 대만 전역에서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참극을 볼 수 있다. |
| 제 6구역 | 희생 당한 영령들 | 2·28 사건 동안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하여 커져갔으며, 개혁을 이끌었던 운동가들은 첫 번째 제거대상이 되었다. 그 외에도 민의대표, 법조계, 의학계, 언론계 등의 명사들 역시 제거대상으로서 탄압과 고초를 받게 된다. 제 6구역에서는 당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들을 볼 수 있다. |
| 제 7구역 | 수난자의 벽 | 대만에 밀어닥친 군대는 대만인들에게 끔찍한 죽음과 상처를 남겨주었다. 제 7구역에서는 흰 벽에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사진을 걸어두고, 그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인권폭력과 국가폭력 그리고 그를 통해 자행된 자유의 박탈을 보여준다. |
| 제 8구역 | 쉬루쩐의 벽 | 2·28 사건 이후 1950년대에는 백색테러(백색공포)가 전 대만을 휩쓸게 된다. 제 8구역에 설치된 가벽과 약 61cm 넓이의 공간은 2·28 사건에 가담했던 |

| | | |
|--------|------------|---|
| | | 썬루썬(施儒珍)이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숨어서 보내야만 했던 밀실을 재현하고 있다. |
| 제 9구역 | 상처의 기억 | 제9구역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억압 아래 은폐되었던 2·28 사건의 기억을 이야기 하고 있다. |
| 제 10구역 | 희생자 기록물의 탐 | 제 10구역에 설치된 탐은 희생자들과 2·28 사건의 피해자들의 기록물을 담고 있다. 1995년부터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가폭력이 인권에 미친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

- 국제인권정보구역과 전언(傳言)의 공간을 설치. 국제인권정보구역에서는 각 나라의 국가 폭력 역사와 각 국에 설치된 기념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분석 및 시사점

- 2.28사건기념기금회의 경우 국가폭력의 기원해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설립배경이 5·18기념재단과 가장 유사함.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법률(2·28조례)에 의해 설립되어 재원과 운영에 있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임
- 특히 정부차원의 진상규명보고서(1997년 가 작성되어 이에 대한 법률적인 시비가 가려진 이후로 한시적 기구였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 문화적 활동을 병행하여, 단순히 보상업무 전담기구가 아닌 기념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탈바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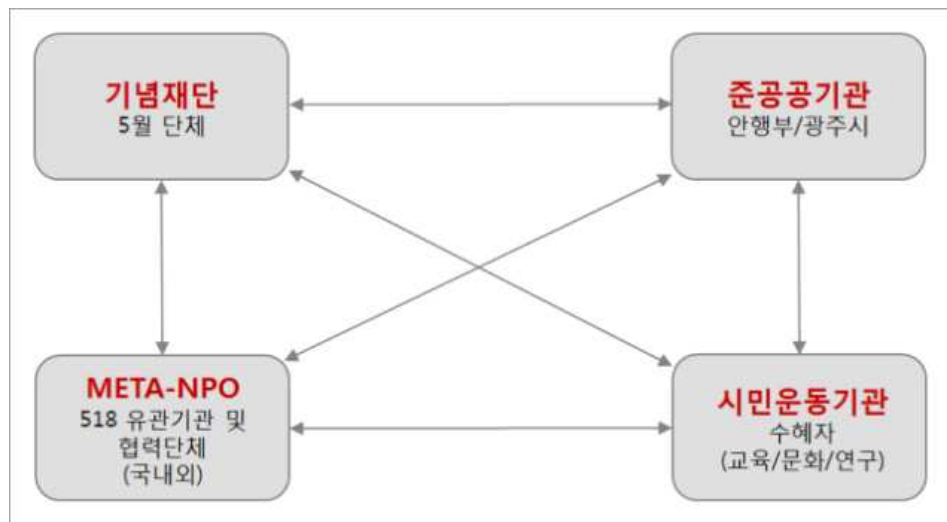
5·18기념재단의 발전방안

1. 위상과 비전의 재정립

□ 발전 환경 변화에 따른 5·18기념재단의 정체성과 위상

- 5·18기념재단은 기념시설 및 공간을 운영하는 유형적 기념사업이 아니라 기념활동, 교육, 교류 사업 등 무형의 기념사업이 중심으로 이루어짐
- 「5·18기념재단 사업 및 조직진단 컨설팅」(2015)에 따르면 재단은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준공공기관, 시민운동기관, META-NPO로서 정체성을 고루 가지고 있음. 이러한 다중적 정체성은 약점이 아니라 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려에서 가능성과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음

〈그림 17〉 5·18기념재단의 정체성(컨설팅 보고서 27쪽)



- 5·18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재단이 이전에 수행해왔던 5·18기념의 중심 기관으로서 위상이 변화하고 있기에 다중의 정체성에서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여 시민과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것인가가 관건임

- 현재 5·18기념재단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지역 내 기념사업 및 시설의 중복성과 경쟁 구도, 기념의 주체가 당사자 중심에서 다음 세대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기념을 넘어 기억의 실천 및 활동성에 대한 요청으로 정리할 수 있음. 따라서 5·18기념재단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단의 미래 정체성에 부합하는 비전 필요
- 재단의 안팎에서 제기되는 변화에 대한 요청은 첫째 재정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한 법상 법인화를 통한 준 공공기관화, 둘째 비영리법인으로서 시민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기념재단으로 압축할 수 있음

□ 5·18기념재단의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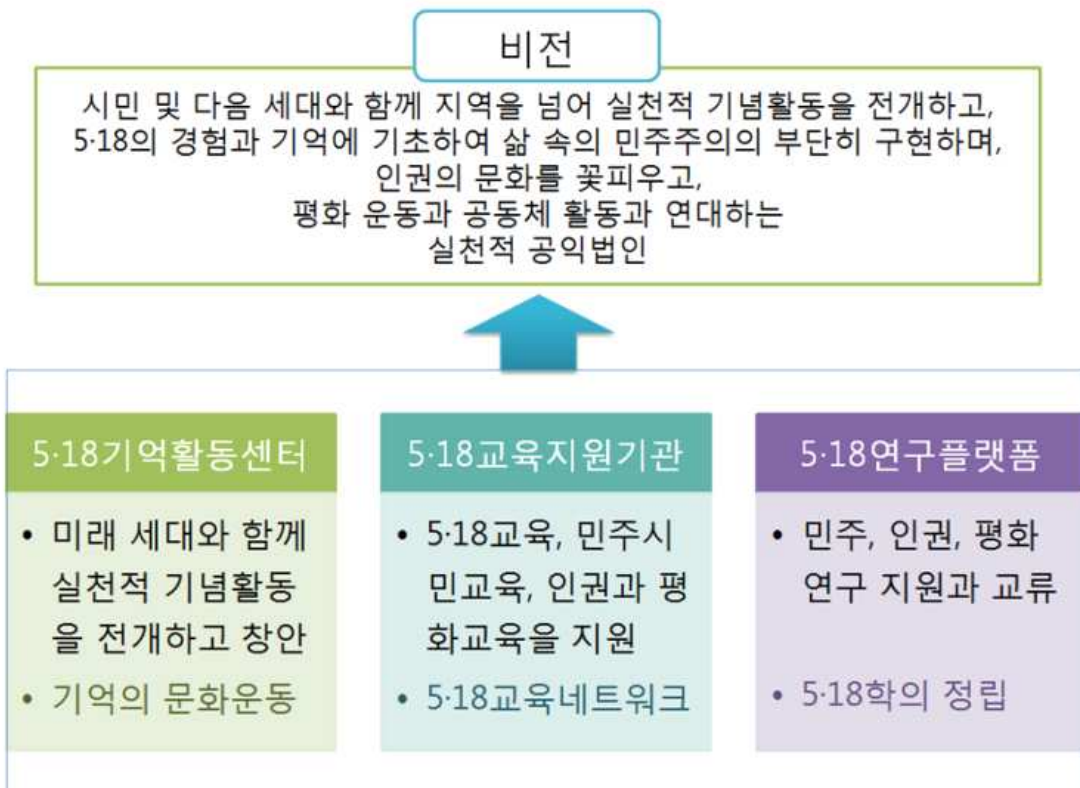
- 2018년 11월 26일 5·18기념재단 정책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재단의 발전 방향은 준 공공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법률상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는 재단의 공적 기관으로서 성격 강화가 아니라 법규에 기초한 재단의 재설립을 뜻할 수 있기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
- 재단이 법상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은 그동안 재단의 취약점으로 언급되어왔던 재정의 안정적 토대 마련, 조직 운영과 인력 구성의 안정성에 대한 요청으로부터 비롯됨. 재단이 법률에 기초한 공공기관이 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했을 때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체계화와 구조화가 가능해지며, 인력의 채용과 보다 안정적인 근로 조건 확보 가능
- 재단의 공공기관화는 재단의 창립취지와 가치, 비전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부터 검토되어야 함. 또한 그동안 민간재단으로서 재단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정치적 환경변화에 민감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공공기관화로 인해 사업의 경직성이 발생하고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에서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 특히 시민사회나 다음 세대와의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념재단이 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문제 중 하나는 현재 국고보조금 이외의 다양한 재원을 통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했던 것이 향후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해진 사업만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현재 보조금사업 내용이 고착화되어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실험과 창의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왜곡과 편취에 대한 대응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고, 교류 사업의 성과나 교육 사업 또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가능한 이유 또한 민간재단으로서의 위상에서 나온 것을 고려하여 법상 법인화는 그동안 재단의 성과와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비전과 목표 설정의 방향성

- 비전과 중장기목표(안)

<그림 18> 비전과 중장기목표



- 2014년 5·18기념재단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발전방향(비전)을 기념사업의 전문성 제고, 재정 안정화, 5·18기념사업의 브랜드화, 5·18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 등을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비전을 ‘5·18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실천하고 연대하여 대동세상을 구현하는 공익법인’으로 제시
- 재단의 비전에 대해 2015년 컨설팅 보고서에서는 미션과 비전과 중장기전략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미션과 비전이 표방하는 가치 중 일부(민주, 인권)에 치중된 사업이 수행하고 있으며, 기념과 계승 활동이 사건에 대한 기념에 치중하고 있음을 확인
- 2018년 발전협의회 자료집에 따르면 5·18기념재단의 비전을 5·18기념사업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5·18정신의 ‘현재화’를 위한 ‘운동능력’의 강화를 통해 ‘5·18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중심기관(컨트롤타워, 싱크탱크, 플랫폼)’으로 설정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의 계승과 5·18의 현재화라는 목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억의 문화, 활동성, 다음 세대를 키워드로 재설정 되어야 함
- 기억의 계승은 5·18의 부단한 현재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현재화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억하기, 문화예술적 재현 양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5·18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의 문화가 자리 잡는 것임. 5·18을 접촉하고 마음속에 새긴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삶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의 내포. 다음 세대로 정신과 가치의 계승은 가르침과 전달이 아니라 5·18을 경험하거나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념과 기억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어야 함
- 앞의 방향성과 관련된 키워드와 더불어 기존의 발전 방안에서 제시된 발전전략의 어휘는 컨트롤타워, 5·18 시민교육, 전문지원기관, 협동의 네트워크임

□ 조직의 재편과 사업 발전의 방향성(안)

- 이사회와 변화: 성별, 세대별, 계층별 고려에 입각한 이사회 구성
- 기념사업의 핵심 내용과 콘텐츠는 교육(문화) + 학술연구 분야에서 제시하고 인력양성 사업들은 교육과 연구 분야로 나누어 통합되어야 함
- 국제교류연대는 성과와 축적된 네트워크를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교육과 학술 분야의 내용에 기초해야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사무국은 이러한 각 핵심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간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관련 업무에서 생산되는 성과물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외부와 재단의 연결하는데 집중(혹은 사무국을 업무를 2분야로 쪼개어 분산배치하는 것도 고려)
- 상임이사 혹은 사무처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이사회는 외부와 재단을 연결하고 재단의 방향성과 기초를 유지하며, 사업의 중장기 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진행. 이사회는 소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핵심 업무를 지지하고 협력 필요 방향성 제시와 평가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2. 조직과 재정

□ 조직 운영의 단계별 전략

〈표 73〉 조직운영의 단계별 전략

| 구 분 | 1단계 실행전략 | 2단계 실행전략 | 3단계 실행전략 |
|-------------|--|---|--|
| 단 계 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재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 - 5·18기념재단 1.0 - 5·18기념재단 혁신의 내재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안정과 성장 - 5·18기념재단 2.0 - 5·18기념재단의 사회자본화 (내부와 외부의 소통, 신뢰자본 네트워크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도전과 확산 - 5·18기념재단 3.0 -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문화다양성 플랫폼 |
| 목 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역량과 핵심역량에 선택과 집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과 역할에 맞는 조직운영 전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문화다양성 정신의 확산 플랫폼 |
| 이 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운영의 효율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운영의 전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내셔널 거버넌스화 |

1) 조직운영 역량강화방안

〈표 74〉 국내·외 주요기관의 운영주체

| 재단 및 기관 | 운영주체 | 비고 |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先 민간, 後 관 지원 | 특수재단, 국고지원, 기념관 건립 운영 |
| 4.3평화재단 | 민간→관→산하기관 | 특별법 제정 후 중앙정부에서 지원과 제주도가 조례제정 후 지원하고 있음 |
| (사)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관 합동 | 2002년부터 민주공원 관리·운영 수탁 |
| (재)히로시마평화문화센터 | 관 |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 기념관, 국제회의장, 국립추도기념관 관리·운영 |
| (재)오사카국제평화센터 | 관 | 오사카시 직접 관리·운영 |
| 오키나와평화기념자료관 | 관 | 오키나와 지방정부 관리·운영 |

□ 조직역량 강화(제1안) : 민관협력형

- 상임이사와 사무처장의 역할 구분

- 상임이사 : 집행총괄감독, 대외적(정무적) 교섭 주력
- 사무처장 : 직원통솔, 사업과 프로그램 실무집행 책임

○ 기획, 국제·연대, 교육·문화와 연구소 재편 고려

- 팀제의 장점(전문성, 책임성, 신속성) 장점을 살리는 전략
- 상임이사 산하 기획팀 : 사업 기획 및 홍보
- 상임이사 산하 연구소 : 특별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독자적 연구 영역²⁰⁾
- 사무처장 산하 국제·연대팀 : 국내·외 국제, 연대사업
- 사무처장 산하 교육·문화팀 : 5·18 전국화와 바르기 알리기 위한 사업 진행

○ 시와 사업부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업무영역 축소 지향

- 5·18관련 시민사회단체 5·18기념재단의 보조금사업 배분
- 시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5·18관련 기념사업과 교류연대사업은 공모제로 전환하고, 이를 시와 기념재단이 다음의 배분절차를 통해 지원

20) 장기 로드맵을 통해 국가기관으로 독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연구의 독자성 확보)

<그림 19> 5·18 기념사업 및 교류연대사업 분배절차



- 재정적 어려움을 타결하기 위해 5·18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함
 - 5·18유관시설 관리권 확보(경상비와 추가사업비, 인건비 등 해결)
 - 광주시의 5·18 관련 사업 위탁 수행

- 장점 :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업무의 효율 극대화
 - 관의 행정 및 재정지원과 민간에서 주도하는 재단의 사업 내용이 적절히 결합될 경우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민과 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되었을 때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음

- 단점 : 민간주체들이 지나치게 관의 지원과 동원에 의존
 - 재단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민관이 서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진행 자체가 어려워지며, 5·18기념재단이 추구하는 대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민간주체들이 지나치게 관의 지원과 동원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단사업이 활력을 잃고 형식에 흐를 위험성이 존재함
- 진실규명과 이후 추구할 방향에 대한 관의 이해부족과 무관심 등이 해소되지 못하면, 5·18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관의 개입에 의해 갈등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5·18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에 따라 이익단체, 극우단체 등에 휘둘릴 수 있음

<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부산시의 '부산민주공원'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기념사업을 추진하다가 이후 부산시와 결합하여 함께 추진한 '민관합동모델'. 추진과정에서 민주공원 건립추진위원장은 부산시장이 맡고 집행위원장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맡는 등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면서 민주공원을 건립

건립 이후에는 '사업회'와 '부산시청'이 민주공원의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부산시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을 경유하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시설관리 및 운영 전체를 위탁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조직역량 강화(제2안) : 관(지방정부)주도형

○ 장점 :

- 법과 제도 및 재정이 밑받침이 되면서 사업이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추진
- 안정적인 재원과 인력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

○ 단점 :

- 관(행정)의 주도로 정치적 환경(집권 여당과 광주광역시장)에 따라 운영에 민간의 호응과 참여가 미약할 수 있음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편의주의로 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행정부의 특성상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교류 및 기획이 5·18기념재단 지향하는 목표와 핵심가치에 불일치할 수 있음

- 다음의 기사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에서는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전환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며, 그 이유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임

| < 제주4.3평화재단 출자출연기관 어쩌나 > |
|--|
| 2015.06.25. 제주의소리 |
| 원희룡 지사-평화재단 이사진 비공개 면담...입장차만 재확인 '깜깜' |
| <p>제주4.3평화재단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하는 방안을 두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만났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문교 평화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은 24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지사 집무실을 찾아 원 지사와 2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갖고 4.3평화재단 독립성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평화재단 이사진은 이 자리에서 4.3평화재단 출자.출연기관 전환에 따른 독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 지원이 법률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도 주문했다. 원 지사는 법률에 근거한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출자.출연기관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3평화재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에 근거해 4.3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인권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출범한 공익 법인이다. 최초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 발기인을 꾸렸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4.3특별법 제8조 2항(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을 재단 기금출연 근거로 삼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2014년 9월25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불거졌다. 평화재단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한 움직임 탓이다.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설립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평화재단은 민간에서 발족해 법률상 출연기관이 아니다. 때문에 평화재단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에는 '이 법은 지자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에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행정자치부도 4.3평화재단을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와 제주도가 재단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임원을 공개채용하고 경영평가도 받아야 한다. 4.3평화재단은 지정고시가 현실화 될 경우 재단의 인사권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청 산하기관장으로 취급돼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판단이다. 제주도는 해마다 20억원의 지방비를 평화재단에 지원하고 있지만 출연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일부 평화재단 이사진은 제주도 지원 없이도 재단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4.3특별법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법상 위배되는 일도 없다는 해석이다. 평화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원 지사의 면담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추가적인 해법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출처 : http://www.jejusori.net/?mod=news &act =articleView&idxno=163833)</p> |

< 제주 4.3평화재단 도민·유족이 출자해야 >

2015.07.03. 노컷뉴스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전략...재정 독립 고민해야

제주 4.3평화재단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의결했다.

독립성 훼손이 현실화 되면서 도민과 4.3 유족이 직접 출자·출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제주 4.3평화재단은 2일 이사회를 열고 재단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2014년 재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 4.3평화재단은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인사권은 물론, 경영평가와 공익적인 사업에서도 독립성을 잃게 됐다. 결국 현재 제주 4.3평화재단이사회가 재단 운영을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전략시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4.3평화 재단이 설립될 당시 도민 참여와 기금 마련 방안도 제시됐지만 그동안 행정기관 예산만 바라본 결과다. 이런 이유로 민주화의 상징인 5·18기념재단 설립 초기가 주목된다. 5·18 기념재단은 5·18 피해자 가운데 문민정부 들어 보상을 신청한 회원들이 보상금의 일부인 1백만 원 이상 기금을 출연하면서 설립됐다.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기금을 종자돈으로 일반 국민으로부터 국내외 후원금 등을 모아 시작했다. 제주 4.3평화재단도 설립 초기 자금조달방안으로 기금 모금이 제시됐지만 지금은 정부와 제주도의 예산 지원이 사실상 전부다. 때문에 제주도의 입김에 재단 인사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올해는 4.3 추념식에 불러진 노래까지 정부가 개입해 논란이 일어났다. 제주 4.3이 이념의 갈등을 이기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화재단 예산에서부터 독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민과 유족이 참여해야 할 때다.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신구범 후보는 4.3 희생자 유족 공제조합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438487>)

□ 조직역량 강화(제3안) : 민간주도형

-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관의 틀에 박힌 관행과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하고도 새로운 형식이 창출
 -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확산에 유리함
 - 민간자율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할 사업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에 시행할 사업을 구분함으로써 일정과 예산에 짜맞추는 식의 획일적 추진 우려가 없음
 - 광주시민과 전라도민의 설득력을 갖추기에 유리하며, 협의와 합의를 통해 운영되는 민주적 운영의 전형을 만들 수 있음

- 중점사업 선정을 통한 사업구조의 전략적 조정이 필요
 - 중점사업의 선정과 중장기 추진계획의 마련하고, 중점사업선정의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중점사업과 기타 기본사업들과의 연계방안도 제시되어야 함

- 선정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 기본사업의 축소, 역량의 회수보다는 중점사업과의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제사업이 함께 강화되도록 조정, 운용하는 전략을 마련
 - 기본사업을 중점사업과 연관성 속에서 설계하고 공동추진, 종합평가 하는 등 전체사업의 체계적 연계와 유기적 결합을 강화

- 사업계획의 체계성과 정확성을 강화
 - 사업별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명확히 하는 등 효과성 혁신적으로 제고
 - 목표와 내용을 보다 상세히, 보다 엄밀히 정리하고, 발전상과 목표를 동태적으로 기술하여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분명하게 제시

- 전략의 액션 플랜(Action Plan)화
 - 전략적 과제와 추진전략에 대한 중복, 모호성을 제거하고 보다 명확하고 목표 중심적인 전략의 개발이 필요

-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제도의 혁신이 필요
 -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 업무를 매뉴얼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실행과정의 효율의 극대화
 - 회의와 업무관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정비하는 등 일상적 업무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의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 단점 : 재원마련에 어려움과 한계 때문에 사업시행에 어려움 봉착

- 민간내부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 이를 중재할 수단이 미약함

- 유의미한 수입구조가 전혀 없이, 전액 기금으로 충당한다고 할 때 연 약 4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시중의 금리 약 3%로 산출하며 '기금'으로 전환하면 1,4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이 필요함
- 1,400억 원에서 기존의 기금 93억 원을 제외하면 1,307억 원의 기금이 확보되어야 함

○ 장기적 기금 확보 로드맵 : 기금 단계별로 확보

- 1단계 : 2019년~2020년(2년)
 - 목표 기금액의 30% [392.1억 원]
- 2단계 : 2021년~2023년(3년)
 - 목표 기금액의 70% [914.9억 원]
- 3단계 : 2024년~2025년(2년)
 - 목표 기금액의 100% [1,307억 원]

2)

재정 확보 방안

□ 재정 확보 방안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 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개정
-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의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제15조(국유 재산의 무상 대부),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명시해야 함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
|---|
| <p>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p>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p>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2013년 개정내용 참조
- 이후 2015년 제주도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함

|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
|---|
| <p>[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5호, 2013. 8. 6., 일부개정]</p> <p>【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 <p>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추가하고, 해당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hr/> <p>제8조의2(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p> |

[본조신설 2007. 1. 24.]

제8조의3(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의2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9호, 2016. 5. 2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제8조의2(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본조신설 2007. 1. 24.]

-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방법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

[시행 2016.3.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82호, 2016.3.16., 제정]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 및 출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2.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교육사업
5.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단체와의 교류사업
6.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추모사업 지원
7. 그 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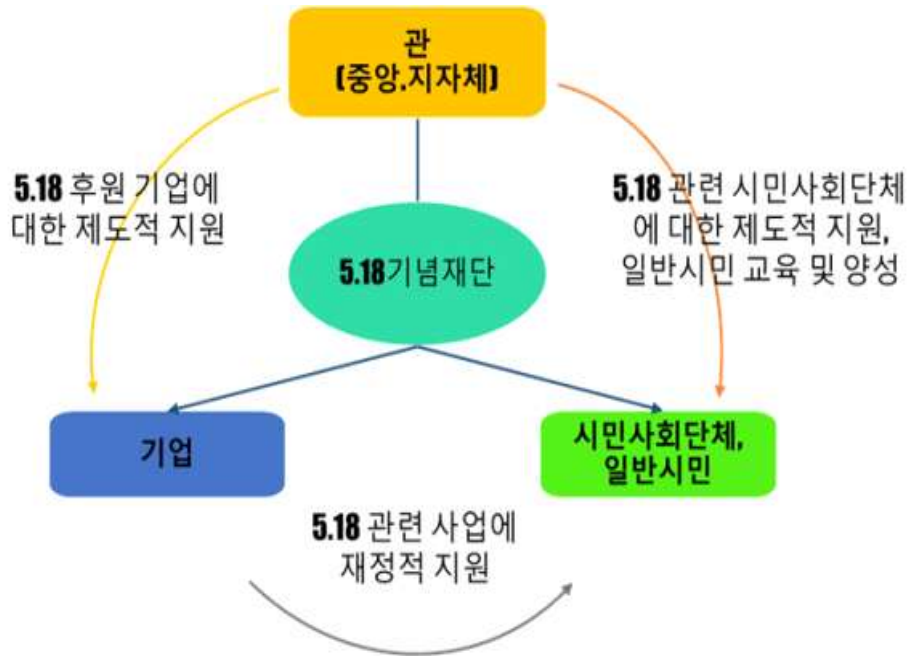
제5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시민의 자발적 후원금 모금을 위한 체계적 전략 수립

- 모금을 위한 마케팅 개념의 이해와 합리적 도입
-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비영리적 마케팅 플랜 작성
- 상품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마케팅, 물질이 아닌 가치교환에 방점을 둔 차별적인 마케팅 기법 개발

<그림 20> 재정확보 로드맵



- 잠재적 후원자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실시
 - 후원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집단을 중심으로 표적시장 구축
 - 후원자의 지리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행동적 변수 등 분석
 - 잠재적 후원자 대상 재단에 대한 수요 및 욕구조사 실시

- 재단의 사업과 콘텐츠에 관심 있는 집단의 인구통계 산출
 - 재단의 행사 및 사업, 킬링 콘텐츠를 언론 및 대중매체에 게재 및 송출 시 이에 반응하는 집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SNS를 통해 5·18 관련 이슈를 알리거나 재단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연령층 분석

- 재단 자체의 모금 프로그램 개발
 - 언론을 활용한 캠페인과 동 캠페인 시 모금 채널로 자연스럽게 연동
 - 인구 유동성이 좋은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하여 이벤트 실시 후 모금으로 연계(이벤트에 따른 흥미유발이 선행되어야 함)

○ 다각적인 Web-promotion 접목

- 포털사이트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디렉토리 검색엔진의 상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 (인터넷 검색 시 상위 10% 이내에서 정보 찾기 종료)
- 오픈 마켓과 제휴하여 사이버 바자회 실시(바자회의 일정 금액이 재단 모금액으로 사용됨을 미리 고지)
- 재단 관련 인사들(행사 참여, 포럼 패널, 발표 등 등록자)의 메일링 서비스로 이벤트나 특별모금 행사 고지

○ 재단 운영 인터넷 방송 송출

-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방법의 편이성과 접근성의 향상으로, 현재는 1인 방송국 시대가 개화했다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임
-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젊은 층을 공략한 접근방법 모색
- 고루하지 않은 신선한 내용으로 3-5분 가량 영상 제작 후 지속적인 유튜브 송출
- 사이버 공간에서 잠재적 후원자 pool 구축(선플 및 긍정적 메시지 전달자 접촉)

○ 시민의 정기후원회원화에 주력

- 재단이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재단을 버티게 하는 동력이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
- 세계적 NGO들(월드비전, 유니세프 등)의 소액 후원금 유인 방법 원용
- 부담스럽지 않은 적은 금액으로도 5·18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저변 확대
- 후원자 등록 후 철저한 정보관리와 서비스 체계 구축(주소 및 직장 변경 시 즉시 반영, 홍보물 수령방법의 선택지 확대, 의견이나 제안 수렴채널 마련 등)
- 후원자 등록 후 1+1운동(한 사람 더 데려오기) 전개

○ 지역 소재 기업 대상 후원금 기탁 독려

-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재단의 설립 취지 및 지속적 운용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지속

적 홍보

- 재단 명의의 사업 자료 및 교재 제작 시 후원기업 홍보란 제공
- 재단 주최 행사 현수막 및 리플렛에 후원기업 명칭과 CI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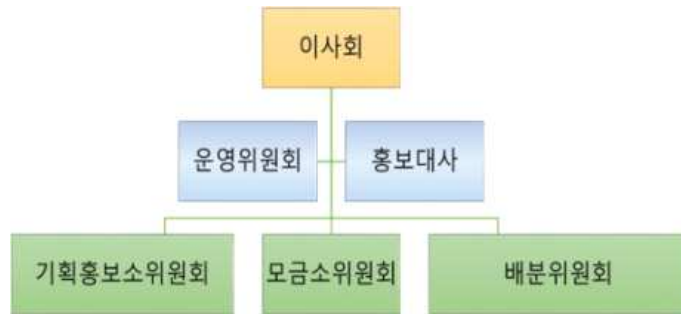
○ 고액기부자 예우 및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honor society나 UNICEF의 honors club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고액기부 할 경우, 이들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마음으로 고액기부자모임 창설
- 기부자의 이름, 사진, 손도장 동판 등을 제작하여 재단 1층에 부착
- 고액기부자들을 중심으로 홍보 영상 제작하여 공영방송에 송출
- 현 5·18 기념재단 기본재산지원조례에 기부자예우지원조항을 첨입하여 개정

○ 재단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방안 마련

- 시, 일반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집단들의 관심과 주시 영역 파악

<그림 21> 재단 운영자금 모금 조직도



- 자금 액수, 재원 획득 방법, 모금원, 모금비용, 사용내용 등에 대한 유리알 공개 강화

3. 교육 및 문화

<표 75> 교육 문화 부문 단계별 발전 전략

| 구 분 | 1단계 실행전략 | 2단계 실행전략 | |
|-----|--|---|---|
| | 단 기 | 중 기 | 장 기 |
| | 2019~2023(5개년) | 2024~2028(5개년) | 2029~2033(5개년) |
| 단계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사업의 전문화와 체계화 문화사업의 효율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적 5·18교육지원 체계,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의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교육지원 체계,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
| 목 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사업, 인력양성사업, 교류연대 사업의 협업 체계 구축 5·18교육협의회 운영 및 내실화 전문화사업의 축소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의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인력양성사업과 국제연대사업을 배치하여 기념사업의 정체성과 위상 강화 5·18교육협의회를 통한 5·18의 전국화, 세계화의 실효적 추진 문화예술을 통한 5·18의 현재화를 가능케 하는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교육의 실질적인 콘트를 타워이자 전문지원 기관으로 발돋움 5·18교육컨텐츠 및 문화예술컨텐츠를 통해 국제연대가 강화되고, 국내외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으로써 5·18정신과 가치가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서 확산 |

□ 발전 방안과 관련된 문제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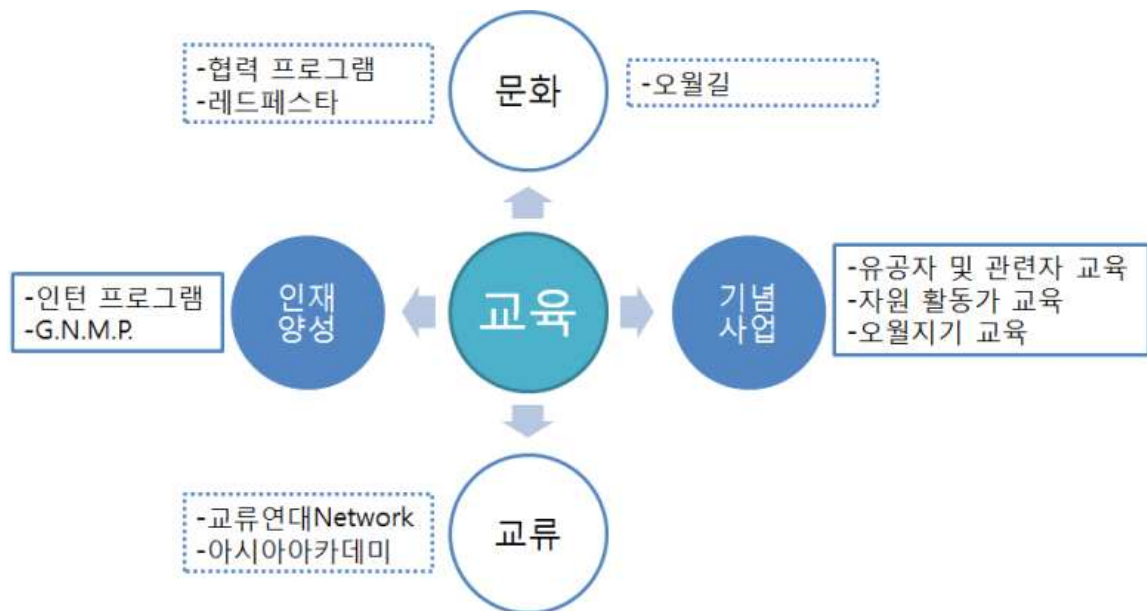
- 재단이 교육 분야에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방향과 전망,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5·18교육협의회나 네트워크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5·18의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현재까지 협력네트워크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않았다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 필요
- 민주시민교육과 5·18교육의 접점 모색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해야 함.(현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및 센터 추진 현황 검토 필요). 민주시민교육 내에 5·18교육을 위치시키는 것은 단순히 관련 강의를 배치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5·18의 관계, 시민됨citizenship과 5·18민주화운동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함. 5·18 시민교육으로 체계화 발전 모색
- 5·18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학생의 관심 부족과 자발적 참여 부족’임. 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서 공교육을 통한 교육이 제도화되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무관심과 비자발적 교육 참

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결여. 따라서 관심과 참여의 부재에 대한 충실한 진단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실과 정보의 전달에만 치중한 교육으로 그칠 가능성이 큼. 공감과 이해, 질문과 상상이 없는 5·18교육을 극복할 교육적 방법과 내용 필요

□ 발전의 키워드와 사업 방향

- 현장성과 활동성: 교육 및 문화 분야는 의례적인 지원 사업의 수행이 아니라 현장과의 소통과 협동을 통해 교육운동과 문화운동 차원으로 다시금 고양시킬 필요가 있음
- 협업과 통합: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의 협업 고도화를 통한 통합
- 선택과 집중: 사업의 전환과 축소를 통한 강화
- 네트워크와 플랫폼: 직접 사업을 축소하고 간접 지원을 확대하여 네트워크 운영과 플랫폼 역할에 충실

<그림 22> 발전의 키워드와 사업 방향



□ 구체적인 발전 방안

○ 중장기 계획의 마련

- 5·18의 미래적 가치를 교육으로 구현하는 것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교육 내용과 방법의 부단한 혁신을 통해 가능. 5·18재단의 교육 및 문화분야는 5·18의 미래적 가치에 대한 연구나 지속적 논의구조를 통해 방향성을 도출하고 중장기계획을 통해 5·18교육의 허브 혹은 교육지원센터로 기능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모색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교육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의 통합, 문화예술사업의 축소 및 이관, 오월길 사업의 전환을 통해서 재단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개별 사업의 체계화와 전문화보다 핵심 사업의 선정과 역량의 집중, 유관 기관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과 나열식 사업의 축소를 통해 5·18교육의 전문성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모색해야 함
- 5·18교육의 컨트롤 타워(5·18교육사업 방향의 길잡이), 5·18교육의 지원거점(5·18교육을 위한 종합안내센터)이 되어야 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성 아래 5·18기념재단이 5·18교육의 허브 혹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중장기 목표 설정이 중요
-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5·18교육지원센터로서 역할 강화하기 위해서는 5·18교육의 과제와 현안을 5·18교육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5·18교육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교육프로그램의 변화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음
- 2019년 5·18 시민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모델을 찾기 위한 연구 과제를 발주할 계획을 수립했듯이 다음 세대의 5·18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진단, 5·18의 재현과 교육 등 2020년까지 5·18교육의 현안과 과제와 관련된 연구 과제들을 계획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해야 함

○ 5·18교육네트워크와 교육협의회의 강화

- 전반적으로 5·18교육지원체계 하에서 교사 연수, 교육활동가 지원 프로그램이 구동될 필요가 있음. 역사적 사실의 전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과 5·18교육의 접점에 대한 문제의식 필요

- 공교육은 교육청과 협업 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학교밖 청소년이나 공교육을 넘어선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5·18교육의 위상과 역할을 고민해야 함
 - 2019년 사업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5·18교육협의회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5·18교육 ‘전국화’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5·18교육협의회에서 제안된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5·18교육자료는 초중등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학 및 시민교육 교재 발굴로 확대되어야 함
 - 대학 교재의 개발은 각 대학에서 5·18 강의나 5·18교육이 포함된 민주, 인권 강좌의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광주시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2018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함

○ 교육사업과 인재육성 사업의 협업을 통한 통합

- 인재육성(5·18아카데미, 국제 인턴, 인턴 해외 파견 사업)과 교육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성과가 축적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인턴의 업무가 단순히 교류와 연대 차원에서 파견되거나 재단의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상호간의 실익이 크지 않음.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를 인턴으로 채용하거나, 해외 인턴으로 파견하고, 인턴 경험을 한 사람이 GNMP 과정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과 교류연대사업을 연결해야 함
- 교육 및 문화 분야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보다 담당 업무를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교육컨텐츠의 기획·개발·운영, 문화예술 지원 업무로 구별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의 일상에서 살아 숨쉬는 5·18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컨텐츠와 일상생활과의 연계 필요. 교육과 삶의 조화는 5·18교육컨텐츠 개발 및 운영의 차원이 아니라 문화사업과의 결합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
- 5·18교육의 세계화는 기존 해외 교유연대의 성과에 기초해야 함.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인력 파견이 아니라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 최소한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국내외 유사 기념시설과 기구에서는 국제와 연대가 고유한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핵심 사업의 부가적인 활동으로 구성됨.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교육사업 아래 인력

사업과 국제 및 연대 사업이 배치되어야 함. 국제와 연대 사업의 내용은 5·18의 기억, 교육, 기념활동이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함

○ 5월문화예술사업의 축소와 이관

- 5월문화예술 사업은 축소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관을 고려. 재단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지원(기획전의 외부기관 공모 지원, 레지던시 지원 등)의 형태를 취하여 업무를 축소. 광주 외부와 해외 전시의 경우 재단의 교류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고 재단의 문화사업 담당자는 해당 문화예술기관 및 예술가들을 타 지역과 해외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
- 문화예술사업의 경우 재단의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지원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5·18문화사업의 지원은 표면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해 5·18에 대한 문화적·예술적 상상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함
- ‘5·18문학상’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재단에서 5·18문학상을 지속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판단 필요. 문학상은 지역의 문학관련 기구나 단체에서 추진하고 재단은 간접 지원 형태로 추진), 레드페스타는 현재 공모를 통해 사업팀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형태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청소년단체를 비롯해 광주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행사를 확대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고등학생토론대회’는 2018년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했던 것을 평가하고 교육청의 기여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등학생토론대회를 재단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결선에 진출하여 수상한 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을 통해 졸업 이후에 5·18교육프로그램과 결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오월길 사업의 전환

- 오월길 사업은 재단의 고유업무로 지속하기보다 광주시가 사적지 관리 및 운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이미 2019년 사업에 제시된 ‘5·18사적지안내해설 협의 체계’ 구축하여 이러한 협의체에서 오월길 사업을 추진케 하는 것도 고려
- 장기적으로는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더불어 오월길 사업은 민주·인권·평화라는 5·18의 가치를 구현하는 시티투어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오월길 사업을 시티투어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현재 오월길 사업 중 안내해설사 교육만을 5·18기념재단의 교육 분야의 업무로 편입하여 진행하고 오월길 누리집 운영 또한 민주, 인권, 평화를 테마로 한 광주관광지원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4. 국제교류 및 연대

1) 국제교류 및 연대의 방향

□ 국제교류 및 연대의 단계별 전략

<표 76> 국제교류 및 연대의 단계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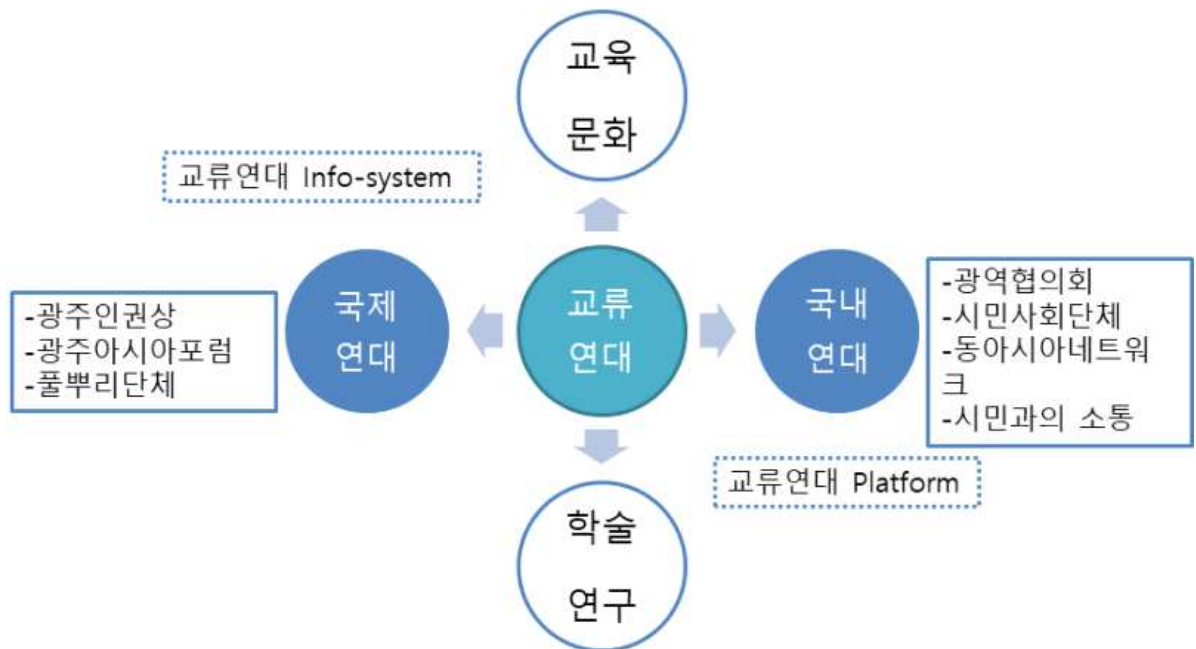
| 구 분 | 1단계 실행전략 | 2단계 실행전략 | 3단계 실행전략 |
|-----|--|--|---|
| 단계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업무의 선택과 집중 - 교육 기능의 분리 - 외부전문가위원회 구성 - 상시적 네트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대의 안정화 - Info-system 구축 및 메 뉴얼화 - 전문인력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대의 확산 - 시민참여 플랫폼 - 민주·인권·평화의 플랫폼 |
| 목 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역량에 선택과 집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인권·평화의 네트워크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월정신의 확산 플랫폼 |
| 이 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대의 집중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대의 전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대의 일상화 |

□ 국제교류 및 연대의 방향

- 5·18정신을 현재화하고 전국화·세계화로 가는 미래지향적인 연대로써 아시아 지역만이 아닌 전 세계로 5·18정신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기념재단의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
- 국제연대 사업의 질적 변화를 위해 재단의 사업적 성과를 국제연대 사업으로 확장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풀뿌리 국제연대 사업을 전개

- 신뢰에 기반해 국제 네트워크의 지속과 새로운 단체를 발굴
- 국제연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 관리 능력을 함양하여 타 기관과 협력 체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향
- 재단이 기획, 지원하는 역할로의 변화로 인해 네트워크의 지속적 관리 및 활용 방안을 강구
- 지역사회, 5월 단체, 5·18기념사업광역협의회, 전국적인 민주화운동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연대와 열린 소통으로 대동정신의 공유와 확장을 가속화
- 선택과 집중, 브랜드화,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 자문그룹을 확대하고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연대 시스템을 확산

<그림 23> 국제교류 및 연대의 방향



2) 국제교류 및 연대의 발전 방안

□ 핵심업무로의 집중 및 조직의 재편

○ 핵심 업무의 집중

- 기념재단의 대표적인 국제 사업은 광주인권상, 광주아시아포럼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예산 축소, 광주아시아포럼, 세계인권도시 포럼과 같이 유사 기관들과 업무가 점차 중복됨에 따라 핵심사업의 안정화가 필요함
- 역사적, 축적된 경험 측면에서 국제교류 및 연대 사업의 대표적인 광주인권상, 광주아시아포럼 등과 더불어 연대의 한 축인 국내연대 사업에 국제연대부의 조직 역량을 집중 및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외부인적자원의 활용

- 외부의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기념재단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외부의 전문가그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외부 위원회 구조가 내부 조직과 자유롭게 업무를 기획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조직화
- 국제교류 및 연대 사업은 기념재단의 국제연대부원이 아닌 세계 각 지역에 대한 활동가, 전문가들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지역별 전문가, 활동가 등을 통한 상시적인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력을 보완해야 함
- 따라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 활동가들의 참여를 일정 정도 보장하는 규정과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적극적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국제연대와 교육 기능의 분리

- 재단이 수행하는 국제연대, 기념사업, 교육문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국제연대와 교육의 기능이 함께 포함돼 있음
- 대표적으로 인재양성 사업은 국제연대 보다 교육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강의 형태의 프로그램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 따라서 인재양성은 교육문화부의 사업으로 재편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 및 기념사업에서 생산되는 교류 및 연대의 자원은 조직 개편에 따른 가칭 ‘네트워크팀’의 상설화로 연대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

- 연구학술, 교육문화 분야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연대는 기획역할에 주안점을 두어 실질적 사업은 외부 전문가 또는 단체가 수행

□ 국제연대 플랫폼

○ 유사기관과의 사업의 차별성 확보

- 2000년 이후에는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국제 교류·연대사업이 본격화 되었으며, 점차 지방정부가 국제연대의 주요 주체로 새롭게 등장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연대사업이 전개
- 최근 광주광역시가 주관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추진되면서 국제 교류연대사업의 참여 주체와 내용의 다양성은 제고되었으나 특정 시기에 사업이 집중되고 중첩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념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자산을 보다 확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

○ 재단 내부 플랫폼 역할

- 지속적인 피드백 구조를 통해 조사연구, 교육문화 사업의 성과가 국제연대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내부의 네트워크 구조 확립
- 연구의 결과 활용 및 국내외 연구자와의 교류에 있어서 외부 연구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국제연대로 인해 축적되는 해외 인권운동가, 단체 등에 대한 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

○ 외부의 플랫폼

- 재단이 통합할 수 있는 사업, 재단으로 수렴되는 사업은 필수 사업으로 수행
- 재단은 사업이 널리 연계되도록 정보와 지식을 엮어내고 기획하는 역할을 강화해 5·18의 전국화,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을 확장
- 민주·인권·평화의 가치 확장이 필요한 다른 비영리조직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활동가들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조성해 오월정신의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사업 지원
- 오월정신을 직접적인 콘텐츠로 실행하는 기념, 교육 사업은 기념재단의 국제연대 통로를 거쳐 국내외연대를 통해 외부의 단체들이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결과에

대한 유지, 관리는 기념재단이 하도록 역할을 분담

- 기념재단은 실무적인 기능보다 연대의 중심 기구로서 세미나, 간담회 등 NGO, 인권단체 등의 네트워킹을 수행해 외연을 확장

○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 지방정부, 중앙정부, 기념재단, 시민사회단체, 대중 등의 결합해 새로운 국제 교류연대 사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제연대사업에서 지역사회의 현안과 이슈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일회성 선언으로 그치는 문제점 극복
- 국제연대 사업에 있어 특정 단체나 기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제연대사업의 ‘시민참여 플랫폼’을 온·오프라인에 도입
- 국제연대사업에 있어 시민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단체나 기관에 연대교류의 내용과 성과가 머무르지 않고 그 성과를 시민들이 공유하는 국제연대의 거버넌스를 실현

□ 현장성 강화

○ 기념을 넘어서는 활동성

- 국제네트워크사업, 광주인권상, 광주아시아포럼 등 독자적인 내용과 역사를 갖춘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은 오월 정신의 국제화와 민주·인권·평화를 매개한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모델을 제시함에 따라, 나아가 현장성 강화를 통해 시대의 아젠다 제시가 가능
- 국제 연대활동인 친선교류를 위한 초청사업, 인터넷을 통한 교육사업, NGO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의식이나 그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운동형태라기보다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젊은 세대들을 교육하는 등 사회운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시대의 현장성을 보완해 역동성 추구

○ 시민 참여 보장

- 최근 국제 연대에서 참여단체 간 사업의 증가와 확대로 5월 당사자를 뛰어 넘어 시민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시민참여와 참여주체들의 일정한 역할을 보장

- 지역성과 현장성이 반영된 연대 사업으로 일반적 의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부각되는 특정의 현안과 이슈를 의제로 선정하여 지역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의 이슈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제연대사업의 결과가 지역사회로 현장감 있게 환류되는 모델 제시

○ 5·18정신의 현재화와 미래가치의 구현

- 국제연대사업의 비전과 목적을 5·18의 역사적 경험과 가치를 공감하는 무대에서 5·18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생산하고 확산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
- 국제연대 사업의 의제를 오월정신으로 평가받는 ‘민주·인권·평화’를 중심으로 전개하면서도 ‘소수자·연대·생명’과 같은 미래가치를 접목하여, 오월정신의 현재화와 새로운 미래가치가 동시에 구현되는 국제 국제사업의 실시

□ 국내외 연대 인사 및 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축적

○ ‘연대 정보시스템(Info-system)’ 구축

- 5·18 국제연대는 일회적인 기념식 참석을 위한 파견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학습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참여, 장기적인 사업 참여 등과 같이 보다 발전적인 방식으로 변화 필요
- 선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점이 아닌 주제 및 전문 영역별 다양한 영역에서 내실있는 국제연대를 실시
- 국제·연대 단체의 검증과 국제성과의 평가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제연대사업의 내용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국제연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연대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 광주인권상 및 광주아시아포럼은 일회적 행사가 아닌 자료와 네트워크를 축적함으로써 후속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 및 홍보자료로서의 활용

○ ‘교류·연대 정보시스템’ 활용

- 재단의 대표적 사업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연대사업은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국제 및 국내 네트워크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활용 방안을 강화

○ 국제·연대의 메뉴얼화

- 업무분장 이외에 추진되는 다양한 연대 사업과 관련된 표준화된 업무의 메뉴얼화를 정착해 담당자에 따라 생산된 상이한 자료 관리, 보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
- 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효율성, 공공성, 투명성을 향상으로 사업의 전략적인 수립 계획 마련

□ 전문 인력 양성

○ 전담인력의 확보 및 재교육

- 기념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연대활동에 비해 재단 내 전담부서 및 실무인력의 여건은 열악함에 따라 국제교류업무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충원
- 각 업무담당자는 사업 영역에 따라, 기획, 커뮤니케이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플랫폼 기능의 강화

□ 홍보역량의 강화

○ 5·18의 사회적·역사적인 현재화

- 광주·전남 이외의 지역에서 5·18이 갖는 의미와 현재적 실태에 연구조사 사업이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5·18인식도 조사로 5·18에 대한 지역별 기초 여건을 분석, 이에 기반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광주의 5·18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한국의 역사 및 민주화운동에서 5·18의 의미와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
- 5월에 집중이 아닌 상시적인 지원으로 타 지역에서의 5·18 의미의 재구성 및 타 지역에 대한 5·18기념사업 지원 활성화
- 표준화된 행사안, 프로그램, 콘텐츠 보급: 서적, 미디어, 이미지 오픈소스 등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자료 제공

○ 5·18의 전국화를 위한 연대 확대

- 5·18의 전국화를 위해 지역 및 다양한 주체들간 연대를 모색. 지역별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 및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5·18의 의미를 공유, 확산
- 5·18 당시가 아닌 현재의 광주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배포·홍보를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

○ SNS를 활용한 5·18의 전국화

- 5·18왜곡은 주로 SNS의 빠른 속도로 전파. 왜곡에 대한 상시적 대응을 위해서는 SNS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
- 기념재단의 홈페이지 재편, SNS 활용전략을 연계해 왜곡 대응과 기념재단 사업의 홍보 강화

3) 세부 실행 방안

□ 광주인권상

○ 인권상 선정 과정의 체계화

- 국제연대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광주인권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추천 가능한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확보
- 예산 확보를 통한 전문가 파견으로 기념재단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거쳐 검증 과정을 강화
- 지역 전문가, 활동가 그룹을 활용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후보추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민주·평화·인권에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검증 위원의 다양화 및 교차 선정을 통해 매년 검증을 다양화해 수상의 권위를 확보
- 여성, 소수자, 난민 등 세계의 긴급한 현안과 5·18정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검증 과정 참여

- 후보자 추천과 검증에 분야별 시민사회와의 소통 구조 확립

○ 수상자들의 네트워크 강화

- 수상자들, 기념재단의 지속가능한 연대, 일상적 교류를 위한 연례 세미나 개최
- 세계적 주요 현안에 대한 수상자들의 발언 창구 확보, 수상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웹진, 5·18아카데미, GNMP 등 재단 사업과 연계해 수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구축

□ 광주아시아포럼

○ 공통의 연대 구조 마련

- 5·18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세계 국가들과의 공통의 연대 가능성을 제공
- 전문가, 활동가 등의 네트워크에서 계승, 발전되고 있는 5·18정신을 아시아포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워크숍, 이벤트 등의 기획이 필요
- 환경, 인권, 소수자, 여성 등 새로운 사회변화의 흐름과 대안 사회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 활동가들의 참여 프로그램 기획
- 참석자들만의 포럼에서 벗어나 교육청, 대학 등과의 연계된 민주·평화·인권의 네트워크 지향

○ 민주·인권·평화의 연대와 교류 기반 구축

-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 국내외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념재단의 위상 강화
- 매년 주제에 대한 세밀한 접근과 제시를 통한 일관된 방향의 개별 섹션 구성과 연계 프로그램 계획, 운영
- 일방향적인 발표 형태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획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포럼의 다양화
- 캠프, 워크숍, 아카데미, GNMP 등 재단에서 운영하는 국제연대 사업의 자산들이 포럼으

로 결집하고 확산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포럼을 거점으로 지역의 시설 및 기관들과 연계해 참여형 시민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 국제연대

○ 연대 국제단체의 발굴

- 5·18정신의 전국적 확대, 국제적 교류의 지속성 강화 등의 과제를 위해 재단 자체적으로 인력과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재단의 위상 제고와 전국적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
- 국제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단체들의 정보를 확인, 교류협력단체에 대한 파견과 교육을 실시해 교류연대 전문가를 육성해 국제단체와의 교류연대 사업을 전개
- 국제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한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에 접근해 세계 지역의 관련 단체와의 연대 모색

○ 국제연대의 강화와 확장

- 풀뿌리 단체 지원 사례처럼 기념재단의 기념 및 국제 사업은 연대를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연대를 구축하는 과정이므로 사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대의 씨앗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 동아시아민주인권네트워크, 국제역사적기념공간연합 등과 같은 축적된 네트워크는 수평적 입장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네트워크의 여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
- 기념재단, 기존 국제 네트워크 단체들이 다(多)-허브로서 기능하고, 국제 민주·인권·평화 단체들이 접합하는 확장 네트워크 모델
- 외부의 지역 전문가, 활동가, 학계, 기념재단의 담당 직원, 국제인턴의 상시적 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 파악 가능

□ 국내연대

○ 협력기관과의 교류연대 네트워크 구성

- 5·18정신의 전국적 확대, 국제적 교류의 지속성 강화 등의 과제를 위해 재단 자체적으로 인력과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한계로 작용. 국내 유사기관과의 협력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함
- 기념재단이 지역사회, 5월 단체, 5·18기념사업광역협의회, 전국적인 민주화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5·18정신과 같이 하는 주체들과의 연대와 열린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
- 연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공공기관의 교류·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개별 단체의 사업의 중복을 자제하고 3단체 이상의 공동사업이 가능한 협업 모델 제시
- 대학 연구소 같은 전문적인 교육연구기관, 문화재단, 교육청, 광주광역시 등과 같은 지역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아시아문화전당 등 5·18관련 또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 국내연대의 체계화

- 단기적인 일회성 행사가 아닌 중장기적인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민주, 인권, 평화, 대동 정신 등 5·18정신의 재개념화와 확장으로 연대 구축
- 공동추진 사업의 경우 체계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대하고 연대역량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인 워크숍 마련
- 기념재단은 컨트롤 타워이자 플랫폼으로서 중장기 계획에 따른 목적과 분야에 맞는 연대사업을 계획. 계획에 적합한 연대사업의 선정, 성과 관리 및 공유 기회의 강화

5. 학술 및 연구

□ 학술연구의 단계별 전략

<표 77> 학술연구의 단계별 전략

| 구 분 | 1단계 실행전략 | 2단계 실행전략 | 3단계 실행전략 |
|-----|---|--|---|
| 단계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지원의 전문화 - 5·18기록물의 발굴 조사 - 통합 아카이브서비스 제공 - 5·18신진연구자 양성 - 5·18학술네트워크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지원의 확산 - 5·18정신의 현재화 - 민주주의 · 인권 · 평화 · 공동체 · 연대 · 통일 등 다양한 미래 인간학 연구의 플랫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의 방향성 정립 - ‘5·18학’의 정립 - 5·18학술연구의 운동성 강화 |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지원 허브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기능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정신의 현재화를 통한 학술연구의 확대와 연대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변화에 맞는 연구 좌표 및 비전 설정 |
| 이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지원의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지원의 글로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의 체계화 |

1) 학술연구의 방향

○ 학술연구지원의 플랫폼

- 기념재단은 5·18진상규명 및 5월운동연구의 토대가 되는 5·18자료(기록물)의 수집 및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연구자는 물론 시민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역사 대중화 시대 5·18학술연구의 저변을 확대함

○ 연구자의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 5·18 학술연구의 활성화와 확장을 위해 새로운 시각과 연구 아젠다(의제)를 제기하는 신진 연구자를 발굴·육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5·18연구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통섭적 학술연구의 장과 실험을 촉진하는 가운데,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5·18학술담론을 재생산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마련함

○ 학술성과의 대중화

- 5·18학술연구의 성과가 대학이나 전문 연구자들의 전유물로만 그치지 않고 출판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일반 시민이 쉽게 5·18연구의 성과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동시에 항쟁 참여자를 넘어 일반 시민의 경험과 기억에서 출발해 5·18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기획을 통해 시민을 조사 및 학술연구의 ‘대상’에서 ‘주체’로 재정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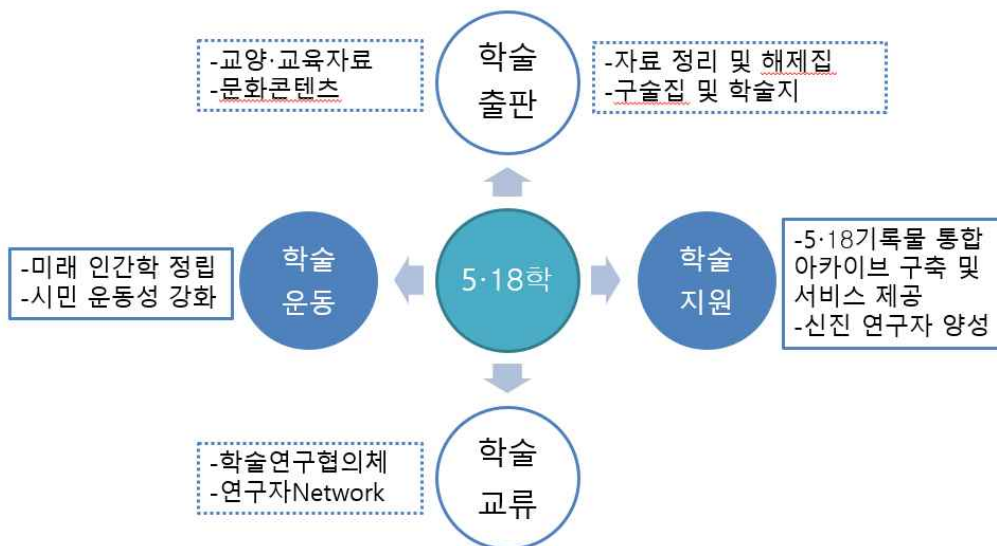
○ ‘5·18학’ 정립

- 5·18 및 5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현재화하고 보편적 가치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인권·평화’는 물론 ‘공동체·나눔·연대·통일’ 등 미래지향적 인간학으로서 ‘5·18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연구 기반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

○ 시민운동성 강화

- 미래지향적 인간학으로서 ‘5·18학’은 새로운 연구 담론 및 미래사회의 의제를 창출하는 가운데, 기념이 아닌 기억실천으로서 지역 및 세계의 운동과 교섭하는 5·18학술운동을 지향함. 이 과정에서 역으로 5·18학술담론의 인간학적 전망과 실천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혁신해감

<그림 24> 학술연구의 방향



2) 세부 실행 방안

□ 학술운동 및 신진연구자 양성

○ 학술연구의 현장성 강화

- 5·18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 관련 담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역시 현재적 사회 이슈와의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추동되어야 함. 다시 말해 5·18을 과거 기념의 대상으로 박물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5·18의 경험과 기억이 내재했던 다양한 함의들을 현재는 물론 미래적 가치와 지향 속에서 의미화 하는 작업이 필요. 5·18을 애도와 기념이 아닌 현실의 운동(빈부차, 비정규직, 성차별, 소수자, 난민, 환경, 통일운동 등) 속에서 연구하는 것은 곧 5·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와 5·18을 매개로 소통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5·18의 시민권과 발언권을 주는 것이기도 함
- 기념 재단은 새로운 세대가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5·18을 토로하고 논쟁할 수 있도록 학술장을 마련해 주어야 함.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민, 대학생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5·18난장을 통해 현실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5·18정신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와 소통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새로운 세대의 집담회,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 및 실행함

○ 신진연구자 양성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5·18학술 연구의 외연 확장 및 현재적 의미를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는 신진 연구자의 발굴 및 육성에 있음. 5·18연구를 장기적 전망 속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성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참신한 연구주제와 비판의식을 견지한 새로운 연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국내외에 걸쳐 5·18연구자 간 네트워크 구축해서 교류를 활성화해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이 교류 자체가 5·18의 전국화, 세계화의 동력이 되도록 유도함

□ 기록물 조사 및 활용방안

○ 기록물 조사의 체계화

- 5·18기록물의 발굴 및 조사사업의 계속적 추진 전에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

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사 사업 컨설팅이나 용역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각 조사 사업의 목적과 활용성에 맞는 조사 사업의 매뉴얼과 과업지시서 등을 만들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조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사사업의 매뉴얼은 향후 조사 결과물을 기록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선결 작업임

○ 기록물 관리의 전문화

- 5·18학술연구와 담론의 부재는 진상규명의 미흡이나 자료의 겹핍이 아니라, 수 년 간 발굴 및 조사를 통해 축적된 5·18자료(기록물)를 적절하게 정리 및 활용하지 못한 측면 역시 강함. 5·18학술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5·18담론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문 연구자는 물론 일반 시민이 5·18기록물을 쉽고 정확하게 검색 및 열람 가능하도록 통합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
- 현재 5·18관련 기록, 기념사업 문서, 일반 문서로 구성된 약 3,400여건의 재단 소장 기록물을 장기적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디지털 변환→시스템 업로드→컬렉션 별 기록 등록→기념사업 문서 등록’ 작업을 추진해야 함. 동시에 5·18기록관을 허브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리 보관하고 있는 소장 기록물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통합 DB구축 및 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록물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DB구축 및 포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사업을 지원 받고, 유관 기관 간 기록물 협의체를 구성해 기록물의 발굴, 조사, 보관,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세워갈 필요가 있음

□ 5·18 관련 기관의 역할 정립

○ 유관 기관의 위상 정립 및 협의체 구성

- 진상조사 및 학술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명확한 자기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하고 있지 못한 채 상호 중복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전남대 5·18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특화된 성격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
- 5·18의 대중화, 세계화, 활성화, 연구담론 창출을 위해 학술대회, 기록물 조사 및 관리, 저술사업, 연구용역 등 제반 5·18 기념사업의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상생적 협력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술연구 및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

□ 5·18 저술사업

○ 다양한 대중 교양 및 교육교재 개발

- 5·18학술연구 성과의 대중화를 위해 각종 대중서적을 발행할 필요가 있음. 전문 연구자나 학계만의 공유물이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양 및 교육 자료로써 책자를 발행함. 동시에 만화, 이미지, 캐릭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대중을 유인할 수 있는 기획 및 실천을 담보
-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대학교재, 중고등교재, 초등교재, 일반 시민교재, 외국인 교재 등으로 전문화해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5·18저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 저술사업의 기획력 및 확장성 강화

- 5·18 항쟁 참여자를 넘어 5월 이후 광주시민은 물론 타 지역과 세계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5·18구술집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변화 된 주체는 물론 후속 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이를 통해 지역과 세대를 횡단해 다양한 사람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5·18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지향함

○ 자료 정리 및 해제집

- 진상규명 및 전문 학술연구의 목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5·18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 토대로서 1차 자료를 정리 및 해제한 간행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함. 동시에 5·18연구의 현황 및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책자의 정기적 발행 역시 추진

○ 저술사업의 소통성 확대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간행물에 대한 전문가집단 및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소통의 통로로 삼아 저술사업의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갱신하는 동시에 5·18의 대중화, 세계화의 계기로서 활용

□ ‘5·18학’의 정립

○ 학술연구의 방향성 정립

- 2000년대 이후 5·18연구가 침체된 원인 중 하나는 5·18연구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5·18기념재단의 사업 역시 진상규명과 현실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 차원에 매몰된 가운데, 5·18의 현재적 의미와 확장성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그 결과 5·18은 기념의 대상이자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머무른 채 현재의 대중과 괴리되고 왜곡·폄훼의 논쟁 대상으로 남겨짐. 무엇보다 5·18의 경험과 기억이 갖는 현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운동성은 계승 및 발전되지 못함
- 과거 군부독재와 5·18왜곡 및 폄훼의 사태에 대응한 진상규명 차원의 조사 및 연구에 머물러서는 5·18학술연구는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현실사회가 직면한 제반의 문제와 호흡하는 과정에서 5·18의 의미와 가치를 재사유하고, 미래사회의 전망과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인간학으로서 5·18학의 정립과 5·18담론의 생산이 요청됨
- 진상규명의 차원을 넘어 현재적 의제 속에서 5·18자료(기록물)의 수집 및 발굴 사업을 추진해야 함.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조사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5·18자료(기록물) 수집 및 조사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음

○ 연구소 활성화

- 5·18학술연구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그에 걸맞은 학술연구지원센터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단 연구소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학술연구분야의 특성상 연구소 인원이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학술행사의 전문화

- 5·18을 민주주의, 인권, 평화, 공동체, 나눔, 연대, 통일 등 다양한 현재적 의제 속에서 재조명하는 학술대회 및 학술연구에 대한 지속적 지원 사업을 추진.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술연구협의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내 전문 학술연구기관과의 안정적인 협의구조가 필요

VII. 부록

1. F.G.I 질문지 및 면담록

[부록] F.G.I 질문지

□ 5·18기념사업 및 5·18기념재단 발전방안 연구 초점집단면접 질문지

자신에게 5·18민주화운동이란?

※ 다음은 5·18민주화운동 및 5·18기념사업 대한 인식과 관련된 공통질문입니다.

1. 자신에게 5·18민주화운동이란 무엇입니까?
2. 귀하는 5·18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받으셨다면 어떤 형태(시기, 방법, 교육주체)였는지, 그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평가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3. 귀하는 다음의 5·18 기념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5·18기념사업이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승, 확장하기 위한 제반 사업 및 실천들’을 지칭함. 기념사업은 다음과 같은 하위 실천 영역들을 포함함 (학술, 교육, 교류·연대, 기념의례, 기념공간)
- ▶ 5·18기념행사는 5월 행사기간 중에 거행되는 ‘전야제’와 ‘기념주간 행사’로 이루어 집니다. 기념주간 행사는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주관 행사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행사들을 포함합니다.

- 3-1.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귀하는 5·18 기념사업이나 행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5·18기념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5월 유관단체
 ④ 시민사회 단체 ⑤ 학계 ⑥ 문화·예술단체

5·18기념재단이란?

※ 다음은 5·18기념재단 대한 인식과 관련된 공통질문입니다.

1. 귀하는 5·18기념재단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귀하는 5·18기념재단의 사업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5·18기념재단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추모기념사업, 국제교류연대사업, 국내연대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학술연구사업, 기록물관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귀하는 참여한 구체적인 사업의 시기와 역할, 활동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지금까지의 5·18기념재단의 사업 중 가장 잘 운영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였다고 생각하십니까?

4. 5·18기념재단 현재 운영에 있어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시) ① 인력 ② 예산 ③ 인력의 전문성 ④ 목표와 비전
 ⑤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소통

5. 5·18기념재단은 앞으로 어떤 조직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세대와 5·18

※ 다음은 미래세대, 혹은 다음세대와 5·18에 대한 공통질문입니다.

1. 귀하는 5·18민주화운동의 핵심 미래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① 저항 ② 대동정신 ③ 희생 ④ 민주 ⑤ 인권 ⑥ 평화 ⑦ 통일 ⑧ 연대 ⑨ 공동체 ⑩ 시민자치 ⑪ 평등 ⑫ 돌봄 ⑬ 생명 ⑭ 헌신 등

2. 귀하는 5·18기념사업이 미래세대, 혹은 다음세대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5·18기념재단이 미래세대, 혹은 다음세대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F.G.I 면담록

□ 5·18기념사업 및 5·18기념재단 발전방안 연구 초점집단면접 면담록

○ 일시 및 장소 : 12월 18일(화) 오후 4시, 용봉관 3층 308호

○ 참석자 : 배준범, 문나래, 한별, 이소영, 김유빈, 정두용

① 5·18기념재단 5월 자원활동가 추천

- 1) 배준범(2018년 활동)
- 2) 문나래(2014년 활동)
- 3) 한별(2014년 활동)

② 5·18연구소 추천

- 1) 이소영(전남대 사회학과 조교, 5·18기록관, 5·18기념사업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연구 보조업무 수행)
- 2) 김유빈(광주여성민우회 간사, 자원활동가로 활동 후 해외인턴십 파견)
- 3) 정두용(청년문화허브 대표, 레드 페스타 등 행사 기획경험)

○ 면접자 : 박경섭, 김형주, 임정섭

○ 참관자 : 김주영, 신서영

○ 주제 : 5·18이후 세대의 5·18 기념사업의 방향 및 5·18기념재단 발전방안 등

자신에게 5·18민주화운동이란?

※ 다음은 5·18민주화운동 및 5·18기념사업 대한 인식과 관련된 공통질문입니다.

① 자신에게 5·18민주화운동이란 무엇입니까?

1. 5.18은 광주에서 자유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운 민주화운동
2. 5.18민중항쟁이다. 이름 자체로 느낌이 있다.

3.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 사건, 독재정권과 싸운 숭고한 희생, 광주시민들의 아픔
4. 역사적으로 정의된 것보다 무섭다는 감정. 5·18당사자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트라우마를 교육받는 느낌. 끓어오르는 것도 있지만 무섭다는 느낌
5. 정의보다는 타 지역 사람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는 성스럽다는 느낌 기존의 사회운동과는 다른 정신을 가졌던 것으로 봄. 현재는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지 않는 성역화된 느낌.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다른 의미의 박제화된 것으로 보임
6. 복잡한 심경. 대학 다닐 때는 특별한 관심 없었음. 문화단체를 하며 기묘한 일 겪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상처가 터부시 되어 있다는 느낌. 시민단체 활동 통해서 겪은 일화. 광주사람이 아니면 감히 말할 수 없는 것. 광주사람 조차도 말하기 어려움. 5·18축제 감독을 하면서 마음의 빛이라는 생각. 소위 광주정신이라는 것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감독을 하면서 현재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나 역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 책이 만들어지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책이 강매되는 과정을 통해 ‘5·18전승이 이렇게 되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슬픔과 아픔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깐 현 세대들은 실감을 못하는 것.

② 귀하는 5·18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받으셨다면 어떤 형태(시기, 방법, 교육주체)였는지, 그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평가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1. 받은 적 없음
2. 배우기는 했지만 이전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알게 됨. 선생님의 경험을 통해서, 엄마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됨. 살아오면서 주기적으로 겪어 봄
3. 공교육으로 배우지 않고 광주에 와서 5·18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됨.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5·18경험을 이야기 해줌 그 때 처음으로 슬픈 것으로 생각
4. 유치원 때 망월동 소풍을 갔음. 다른 지역 친구들과 인식의 차이가 당연하게 있음. 주변 어른들이 직간접적으로 알려줌. 교과서에서는 스치듯 지나가서 기억이 잘 안 남. 대학생 때는 5·18수업을 찾아 들어 공부로는 처음 접한 것 같음
5. 광주 태생 아님. 초중학생 때는 전혀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 때 화려한 휴가 영화 보며 짧게 알려줌. 대학교 와서 행사 등을 통해 자세히 접하게 됨

6. 초중고 전혀 배운 기억이 없음 잠깐 스쳐지나간 것 같음. 강풀의 26년 웹툰을 보고 좀 더 알게 됨. 교육과정에서보다 자원활동가 활동을 하며 배우게 됨

③귀하는 다음의 5·18 기념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하신 적인 있으십니까?

③-1) 자원활동가를 지원한 이유?

1.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화려한 휴가 영화를 보러 갔을 때의 경험이 인상적
2. 학교신문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5·18관련 자료를 접하다 알게 되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자 진행되던 프로그램 참여.
3. 지금까지 서양문물이 예쁘다 생각해서 배우려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부끄러움. 자원활동을 통해서라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

③-2) 해외 인턴 신청 이유?

1. 개인적인 동기요.

③-3) 레드페스타, 5·18전야제 행사 경험은 어떠했는지?

1. 회원들과 토론 중 5·18 때문에 5월에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음. 문화적 재현이 되어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 처음에는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 그런데 일제강점기는 겪지 않았는데 감정적으로 반응. 차이가 무엇? 문화적으로 재현이 되어야 공감에 공감될 수 있을 것. 5·18이 너무나 아픔과 패배로 기억되고 있음. 광주사람들 자체가 터부시 하는 느낌.
2. 타지 사람들이 영웅화 하는 느낌은 좋지 않음.

③-4) 학생들에게 5·18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였는지?

1.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 최근에는 미디어를 많이 활용.

③-1(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귀하는 5·18 기념사업이나 행사의 문제점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1. 조별로 나누어 발표하는 활동. 유적지 돌아다니며 사진 찍고 강의. 행사 보조하는 역할.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다들 흥미가 없고 8명 중 2명 정도밖에 참여 안한 채로 끝남. 그 이후로는 흐지부지 되었던 것 같음. 5월 길 걷기 참여. 좋기는 한데 마무리가 흐지부지. 처음에는 기대를 품고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아쉬움. 중간에 누가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2. 전국학생토론대회, 생각보다 괜찮았음. 다양한 지역 학생들 모여 이야기 나눠 재미 있었음. 당시 자원활동인데 지나치게 업무를 주는 느낌. 자원활동가들에게 주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있음.
3.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있음. 하루만 참여했어도 알차음. 기자님이 직접 찍은 사진 보여주며 이야기. 재단 직원이 만든 게임 등등 다양하게 참여. 살면서 경험하지 못할 것을 많이 해 봄. 다른 활동가보다 많은 것을 경험. 아시아포럼 때 기증하는 모습도 보고, 직원 따라다니며 내부적 이야기 많이 해봄. 영문판 작성하신 분과 식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며 직원들과 많이 소통. 1년 중 가장 잘한 일이 5·18자원활동가를 한 것. 재능기부, 시간낭비 하는 기분도 들었음 사무적인 업무를 보조할 때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함.
4. 담당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듯. 대학생들의 한계를 무시하는 처사로 느껴지기도 함. 생각을 해봐라 등등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어디까지..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느낌. 자원활동가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메리트가 부족. 수료증에 메리트가 없음. 터닝포인트는 되었지만 옳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됨.
5. 연구용역사업을 많이 참여.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200만원 지원해주기도 함. 그 때가 처음 경험. 계획서를 써야하는데 5·18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하나 고민을 함. 5·18의 정신 가치를 명확하게 내리지 않고 여기저기에 갖다 붙이는 것, 모든 콘텐츠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혼란과 머리아픔이 있음. 과연 미래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성과 확장이 있을 때 확장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6. 개인적으로 축제 총감독입장에서는 재단은 좋은 파트너. 요청사항이 없고 감독의 자유로움을 지원해줌. 재단과의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재단 자체는 지원을 잘 해줌. 개인적으로는 레드페스타 호불호가 명확. 청소년축제이자 5·18축제. 일부러 포스터

에 청소년축제라는 말과 5·18을 쓰지 않음. 대상의 욕구를 중요시. 그런데 청소년들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축제라는 말이 많았음. 탐관오리 사냥이라는 부제를 달았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자 함. 재미있었기 때문에 반응은 좋았지만 기존의 5·18축제 기획자들은 너무 가볍게 다룬 것에 대해서 의문제기.

5·18기념재단이란?

※ 다음은 5·18기념재단 대한 인식과 관련된 공통질문입니다.

① 귀하는 지금까지의 5·18기념재단의 사업 중 가장 잘 운영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문화. 그 곳 소속으로 활동. 후세대들은 교육 문화적으로 접근. 다른 지역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2. 인턴 갔을 때 관리가 되지 않는 다는 느낌. 보내기만 하고 이후 관리는 없었음. 11개월 동안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음.
3. 교류, 교육 문화 사업에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음.

② 5·18기념재단 현재 운영에 있어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시민사회단체에 있는 입장에서 5·18기념재단이 지역사회와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시민사회와 협업도 안 되고 분리되어 있는 느낌. 5·18이름을 가진 단체가 너무 많은데 재단에서 융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2. 유족회 분을 비롯해서 너무 강력해서 재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컨트롤타워를 움직이는 주체가 소수의 유족회 분들로 생각됨. 기득권화, 주류가 된 것 같은 상황.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기획안을 낸다고 한들 수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듦.
3. 처음에는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난립한다는 느낌.

4. 광주 시민들조차도 5·18에 대한 피로감이 느끼는 것 같음.

③ 5·18기념재단은 앞으로 어떤 조직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세대와 5·18

※ 다음은 미래세대, 혹은 다음세대와 5·18에 대한 공통질문입니다.

① 귀하는 5·18기념재단 및 기념사업이 미래세대, 혹은 다음세대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추상적인 광주정신, 5·18정신을 새롭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공모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음. ex) 장애인이 많은 도시. / 교육관광하는 콘텐츠.
2. 트라우마를 많이 생각. 5·18을 지금에서 과거를 보아야하는데 과거에서 과거를 보는 상황. 간접적으로 트라우마에 노출. 가장 쉬운 것은 회피. 사회적인 인정부터 시작. 국가폭력끼리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 공동 활동 했으면.
3. 국제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 인권. 정리가 필요. 진상규명이 명확히 되어야 할 것.
4.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5·18을 접하는 수단은 미디어. 가끔은 일회성으로 소비하고 마는 느낌. ‘광주에서 있었구나.’ 라는 지역적 생각을 극복했으면. 대학생들끼리 교류를 늘리는 사업을 했으면.
5. 접근성 확보가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 올해 5·18때 광주에 없다는 이유로 조용히 지나갔음. 교육적 콘텐츠에 있어서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일로 관련 사업이 있었으면. 왜곡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으면.
6. 유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유연하면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음. 그걸 막고 있는 것이 성역화 같은 박제화된 정신. 그것이 조금만 열리면 더 나올 것. 확장과 전국화에 도움이 될 것.

2. 5·18 기념재단 정관

[부록] 5·18기념재단 정관

정관

제정 1994. 8. 30
 개정 1996. 4. 26
 개정 1996. 7. 25
 개정 1998. 9. 18
 개정 2001. 7. 23
 개정 2002. 6. 24
 개정 2003. 12. 15
 개정 2005. 12. 26
 개정 2008. 6. 26
 개정 2008. 10. 21
 개정 2011. 11. 6
 개정 2014. 7. 28
 개정 2017.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조국의 민주·자유·통일을 위한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8)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에 둔다. (개정 96. 4. 26) (개정 2001. 7. 23) (개정 2014. 7. 28)

제4조(목적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02. 6. 24) (개정 2008. 10. 21)

1.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2. 5·18민주화운동정신의 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교육·문화사업(개정2008. 10. 21)
 3.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4. 5·18민주화운동정신을 정립, 계승하기 위한 진상규명사업(신설 2002. 6. 24)
 5.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홍보, 출판사업(신설 2002. 6. 24)
 6.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선 사업(신설 2002. 6. 24)
 7.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시상사업(신설 2002. 6. 24)
 8.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 인권 단체와 연대사업(신설 2002. 6. 24)
 9.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신설 2002. 6. 24)
- ②제1항의 목적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 공여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추진위원(발기인 포함)들이 설립 당시에 출연한 재산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신설 2011. 11. 6)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개정 2014. 7. 28)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

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16조의 규정에 명시된 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9. 18)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
 2. 이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이내 (개정 1996. 7. 25) (개정 2008. 6. 26)
 2. 감사 2인
-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이 포함된다.

제17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모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상임이사를 선임한다.(개정 2017. 12. 1)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직무전결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12. 1)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 ②삭제 (2008. 10. 21)

제19조(임원의 선출방법)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설립당

시의 임원은 발기인대회(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②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개정 2001. 7. 23)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8)

④이사 및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은 당해 임원의 임기 개시 바로 직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신설 2008. 10. 21)

제19조의 2(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정관부속서임원선거임기규약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4. 7. 28)

제19조의 3(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기에 해임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 28)

1. 법령·정관·규정 또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 때
3.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때

제19조의 4(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임원이 법령·정관·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 7. 28)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함께 이사가 되는 때에는 그들은 재적이사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개정 2017. 12. 1)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③ (삭제 2017. 12. 1)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4. 7. 28)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개정 2014. 7. 28)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 유고 및 궐위 시 후임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10. 21) (개정 2017. 12. 1)

② (삭제 2017. 12. 1)

③ (삭제 2017. 12. 1)

④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4. 7. 28) (개정 2017. 12. 1)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①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신설 2014. 7. 28)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신설 2014. 7. 28)

제25조의 2(이사회와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개정 2014. 7. 28)

1.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한 사항으로써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 제26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개정 2008. 10. 21)
 ②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0. 21)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8)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이사회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3)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결은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함이 없이 서면에 의하거나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할 수 없다.

제5장 사무처

제32조(사무처 구성) ①이 법인의 운영 및 일반 서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4. 7. 28)

②사무처는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장 1인 외에 필요한 상근 직원과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10. 21)

③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사무처의 상근 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6. 24) (개정 2014. 7. 28)

⑤삭제(1996. 4. 26)

⑥사무처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의거 규정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⑦신규 채용 사무처 상근 직원(사무처장 제외)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다. (개정 2003. 12. 15)

제32조의 2(부설연구소) (신설 2008. 10.21) (삭제 2014. 7. 28)

제32조의 3 (직원의 신분 보장) 직원은 이 정관 및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7. 28)

제6장 보칙

제33조(정관 및 규정) ①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0. 21)

②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7. 28)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21)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토록 한다.(개정 2005. 12. 26)

제36조(위임)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 등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제37조(공고사항 및 공고)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한민국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결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38조(삭제 2003. 12. 15)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우리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 6. 24)

제40조(고문) 우리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임 이사장 및 원로와 재단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02. 6. 24) (개정 2003. 12. 15)

제41조(연구소)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정관허가 1994년 12월 24일)
- 2.(경과조치) 이 법인의 설립 년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 한다.
- 3.(준용규정) 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14. 7. 28)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6. 자치행정과-4945)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19. 사회통합지원과-2399)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 및 이사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및 이사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3. (임원의 재임기간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및 이사장의 재임기간은 최초 임기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2018. 1. 5. 사회통합지원과-54)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기타 유사 기념사업 조직도 및 관련 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3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 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의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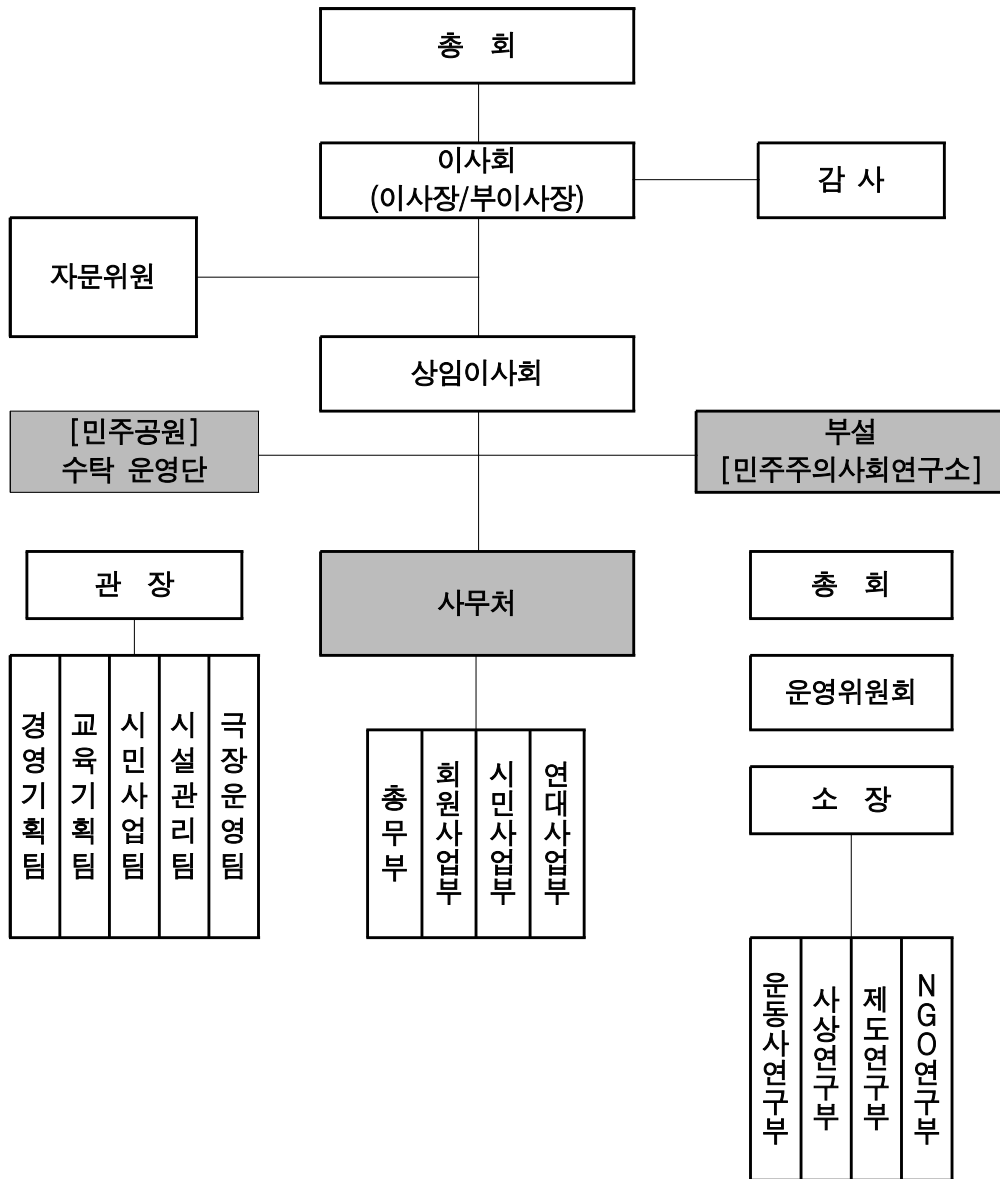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 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12.]

제19조(결산 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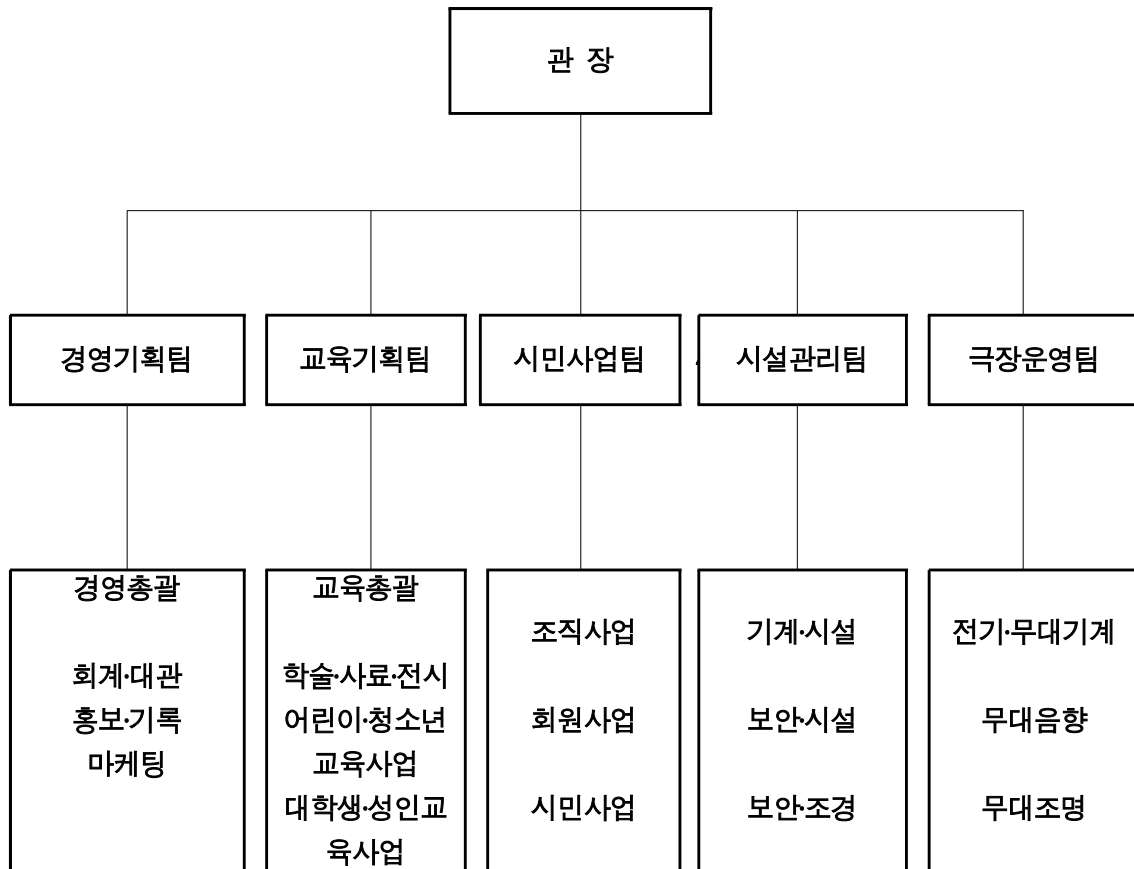
[부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 |
|---|
| <p>제4장 재산 및 회계</p> <p>제20조(기본재산)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2. 정부의 출연금중 기념사업회의 부동산 임차보증금(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및 건물 4.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p>제21조(재산의 관리) ① 기념사업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그중 그해 예산 1% 이상의 거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6. 7. 4, 2012. 3. 12. 개정)</p> <p>② 기념사업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념사업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2005. 1. 27. 개정)</p> <p>③ 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p> <p>제22조(운영재원) 기념사업회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보조금, 출연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 2. 기념사업회의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 및 각종 사업을 통한 사업수익 <p>제23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p> <p>② 관람료 및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제24조(수익사업) 기념사업회는 그 목적 범위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의 내용·범위·조건 및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p> <p>제25조(저작권 등의 귀속) 기념사업회 직원의 업무수행중 이루어진 저작권, 특허권, 기타 무체 재산권은 따로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념사업회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원 등에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p> |

<부록-그림>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조직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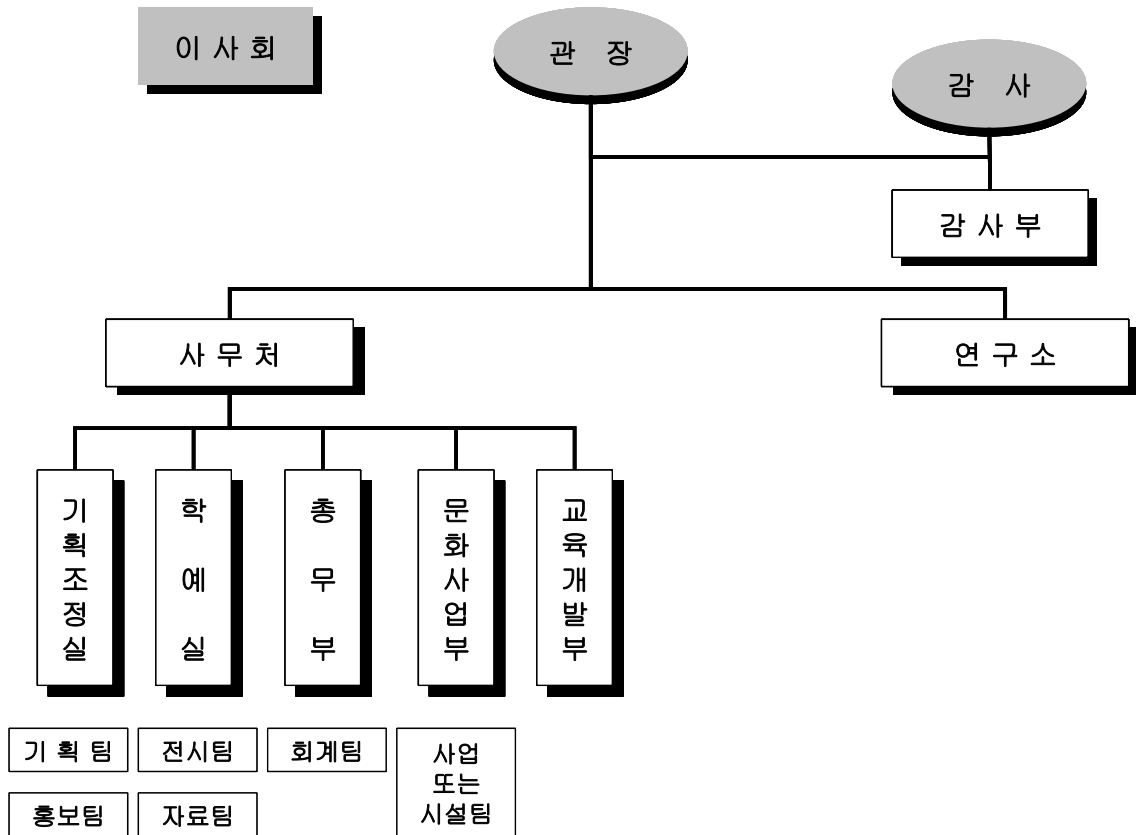


<부록-그림> 민주공원 조직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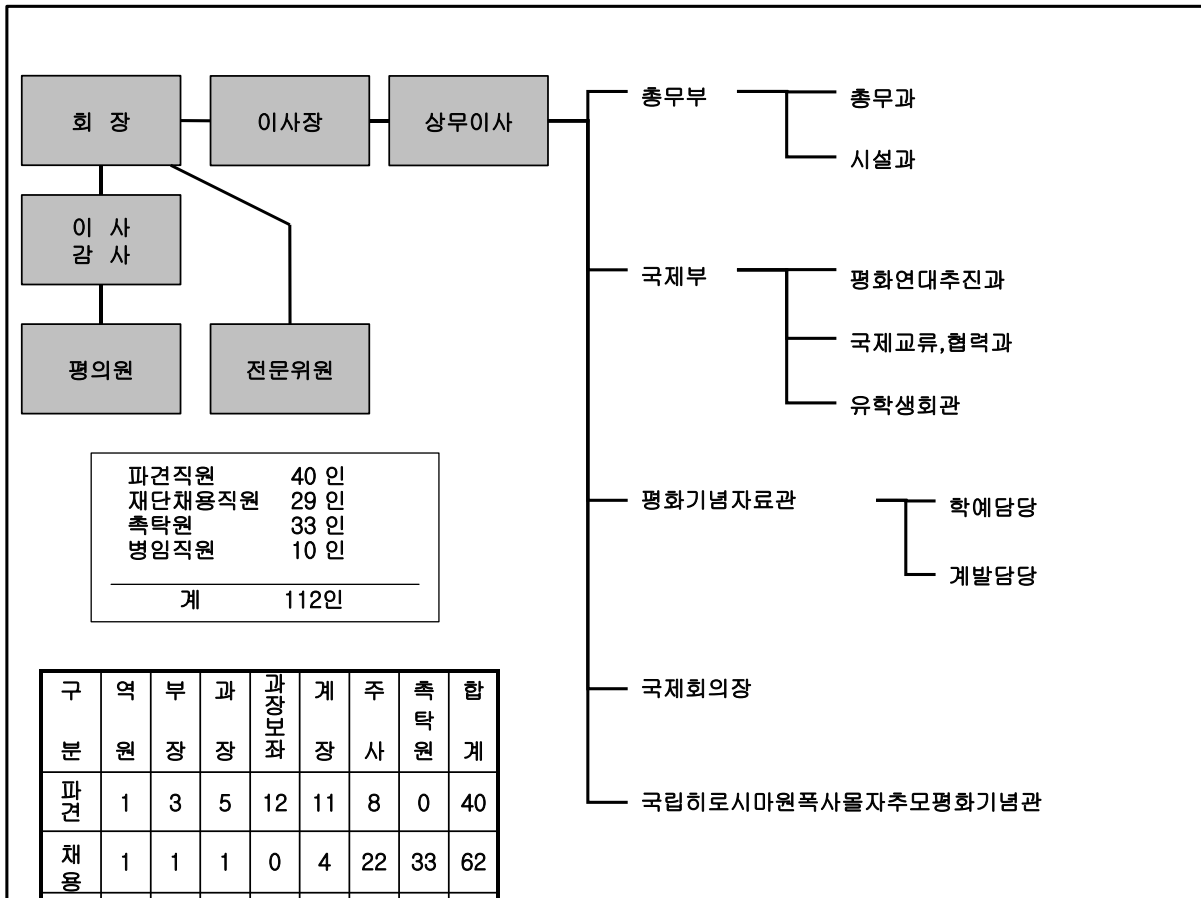


- 경영기획팀 : 민주공원 운영, 국내외 민주공원 홍보·마케팅 업무
- 교육기획팀 :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사업 및 사료정리 등 업무
- 시민사업팀 : 후원회원 및 시민참여 등 관련업무
- 시설관리팀 : 시설 및 주변환경관리 등 관련 업무
- 극장운영팀 : 공연 관련업무

<부록-그림> 독립기념관 구성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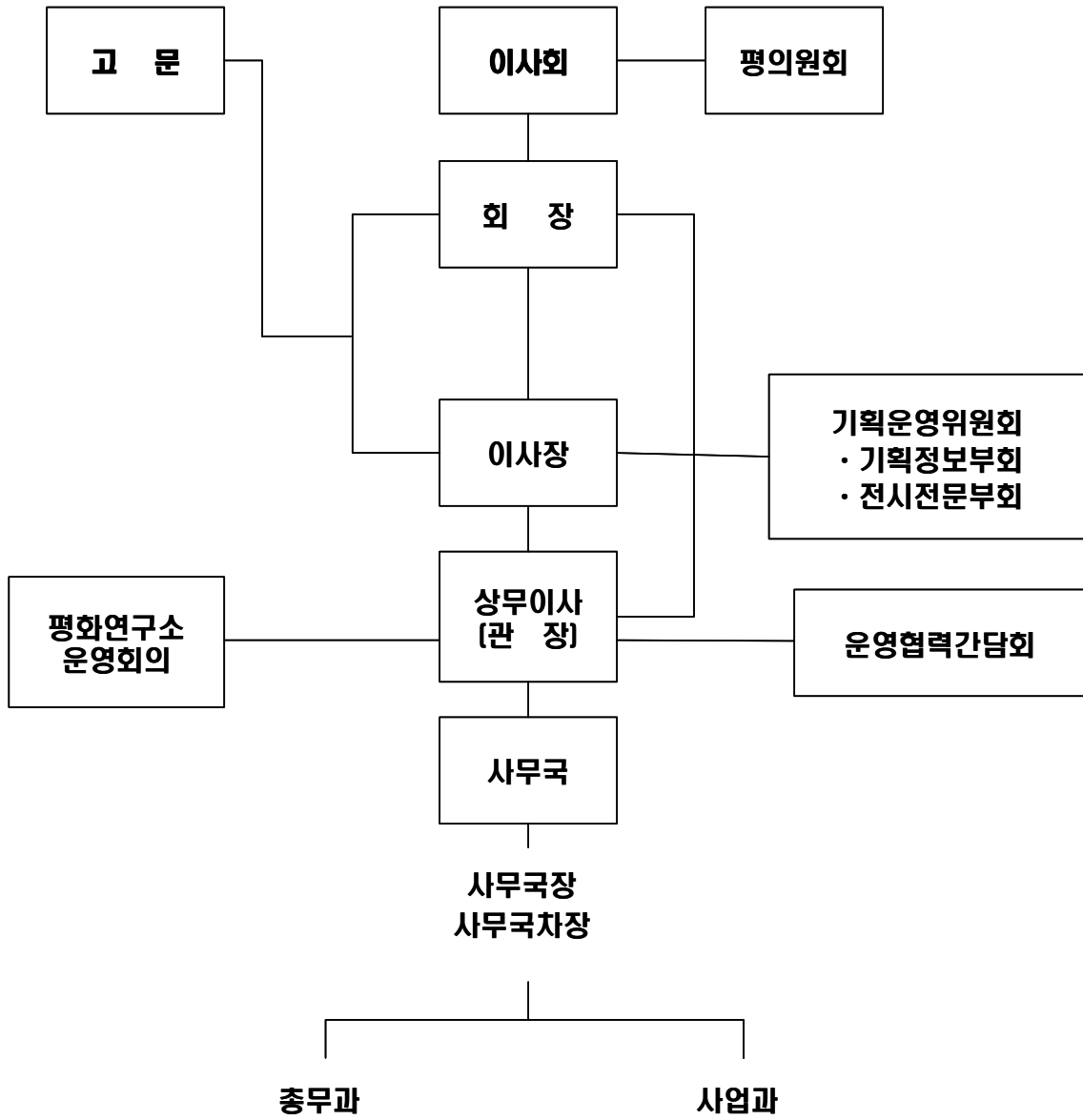
<부록-그림> 히로시마 평화문화센터 조직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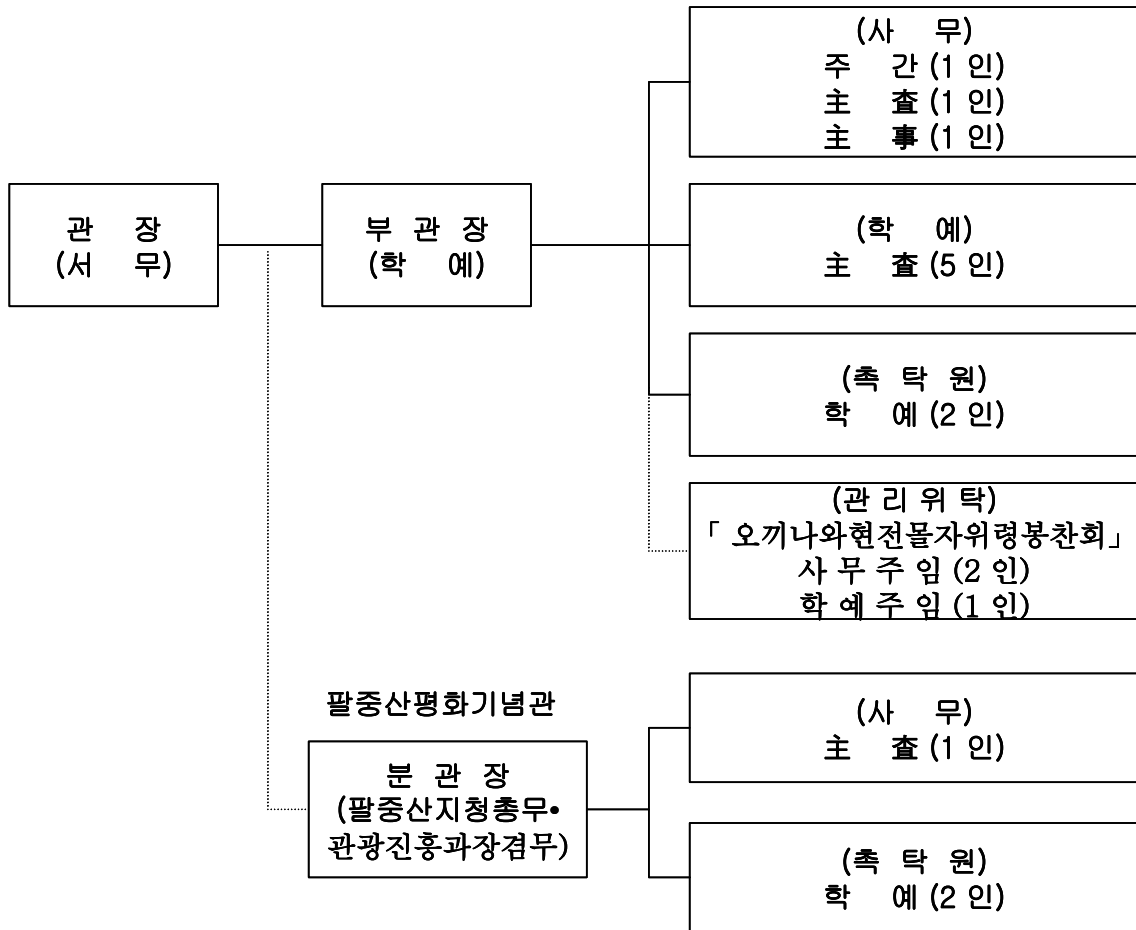
| | |
|--------|------|
| 파견직원 | 40 인 |
| 재단채용직원 | 29 인 |
| 촉탁원 | 33 인 |
| 병임직원 | 10 인 |
| 계 | 112인 |

| 구 | 역 | 부 | 과 | 과장 | 계 | 주 | 촉 | 합 |
|----|---|---|---|----|----|----|----|-----|
| 계 | 원 | 장 | 장 | 장 | 장 | 사 | 탁 | 계 |
| 파견 | 1 | 3 | 5 | 12 | 11 | 8 | 0 | 40 |
| 채용 | 1 | 1 | 1 | 0 | 4 | 22 | 33 | 62 |
| 병임 | 1 | 0 | 1 | 2 | 4 | 2 | 0 | 10 |
| 계 | 3 | 4 | 7 | 14 | 19 | 32 | 33 | 112 |

<부록-그림>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조직구성도



<부록-그림> 오키나와 평화기념 자료관 조직구성도



*기타로 건물관리회사 상주위탁직원

접수(3인), 경비(2인), 청소(2인), 기계설비관리(1인), 야간경비(1인)